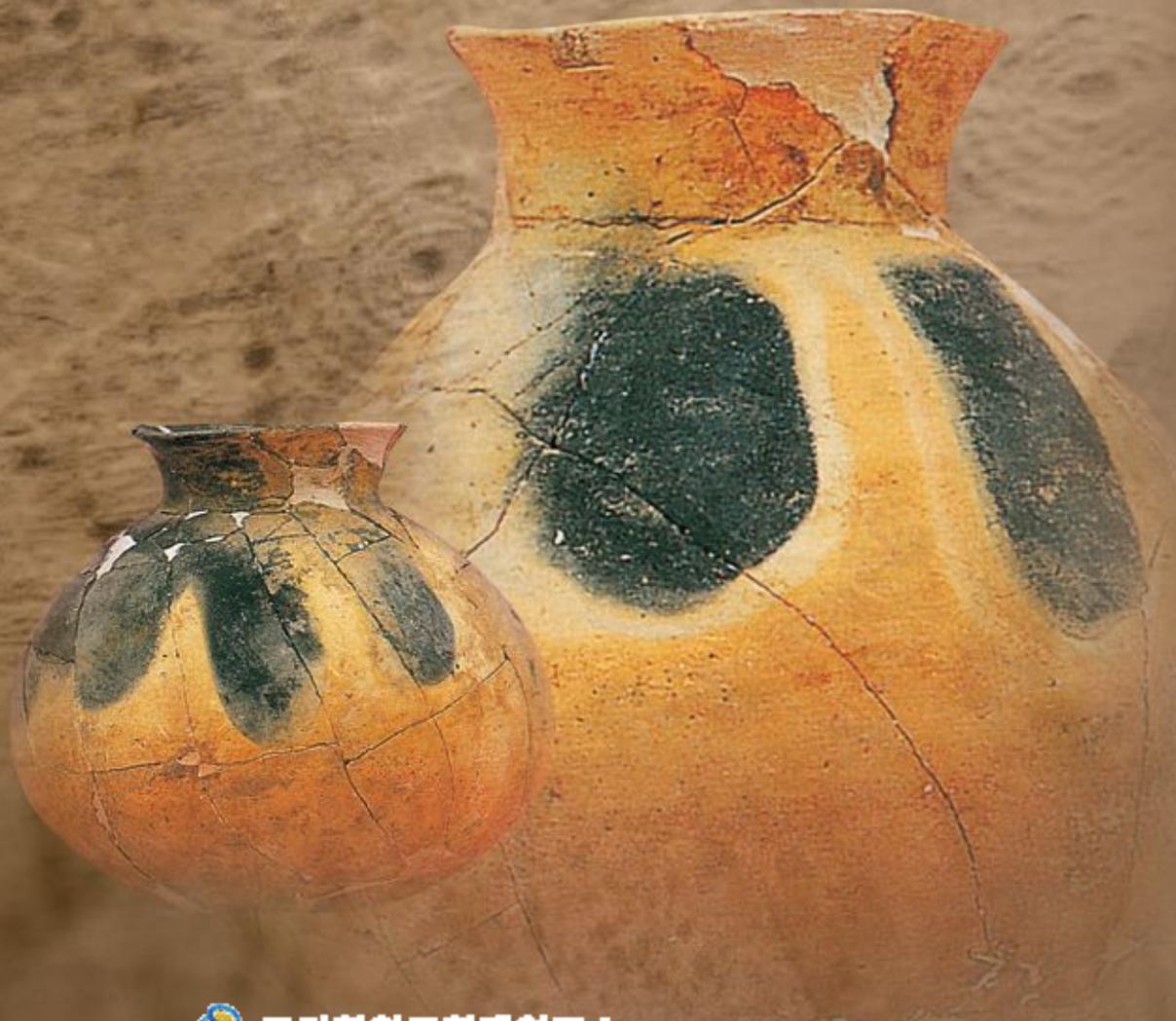


Prehistoric Culture of Gyeongnam

Changw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경남의

선사문화



경남의

선사문화

Prehistoric Culture of Gyeongnam
Changw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사진자료협조기관

경남고고학연구소
경남대학교박물관
경남발전연구원
경상대학교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동아대학교박물관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동의대학교박물관
부산복천박물관
부산대학교박물관
신라대학교박물관
창원대학교박물관
한양대학교박물관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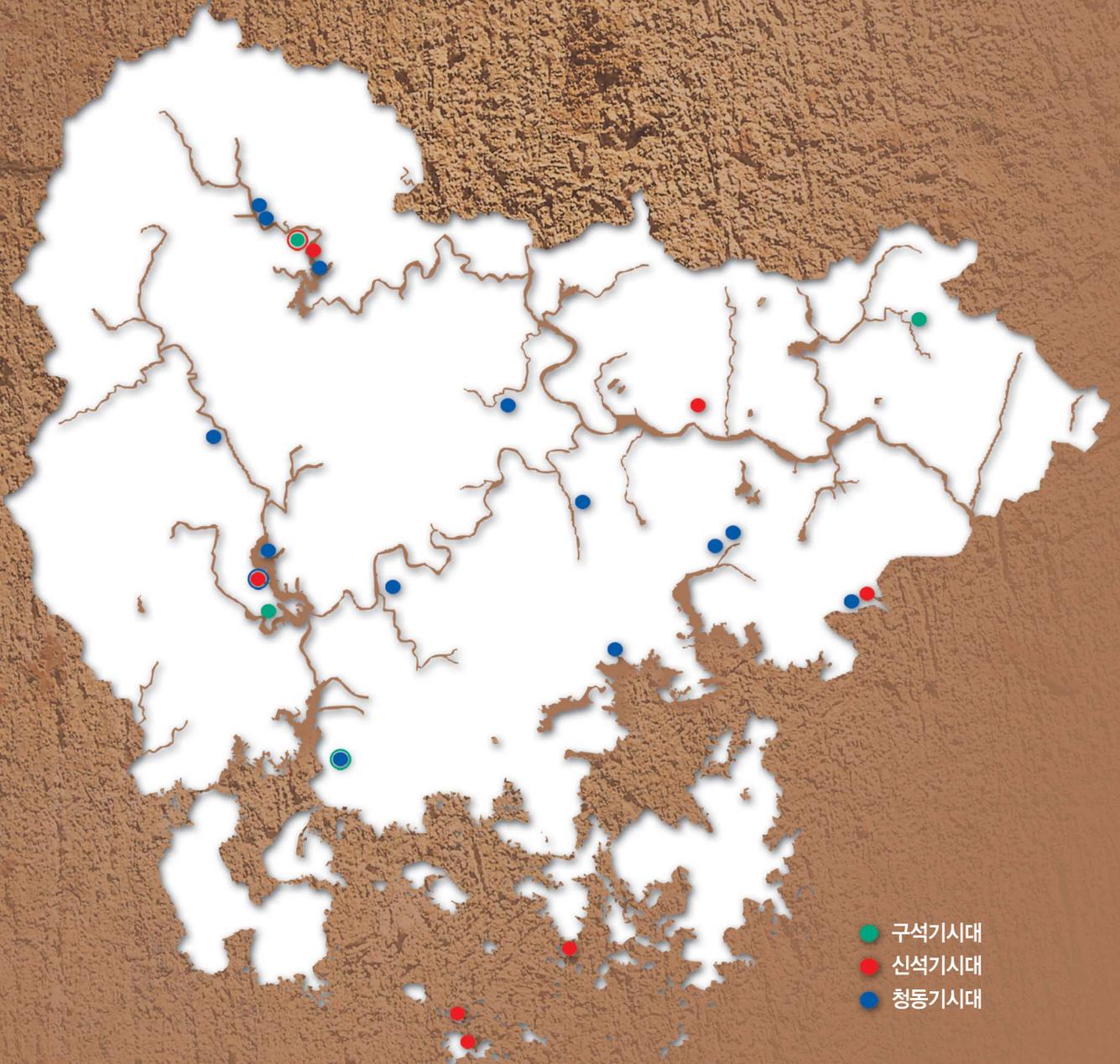
02	I 주요유적 조사연표
04	II 주요유적 조사성과
	1. 구석기시대
	2. 신석기시대
	3. 청동기시대
42	III 주요 선사유적 분포지도 및 조사일람표
	1. 구석기시대
	2. 신석기시대
	3. 청동기시대
52	IV 경남지역 선사유적현황
84	V 관련논저목록
	1. 보고서
	2. 논문
	3. 도록
95	VI 특별논고
	경남지역 신석기시대 문화(하인수)
	경남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전개과정(이상길)

I

Prehistoric Culture of Gyeongnam

Changw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주요유적 조사연표



주요유적 조사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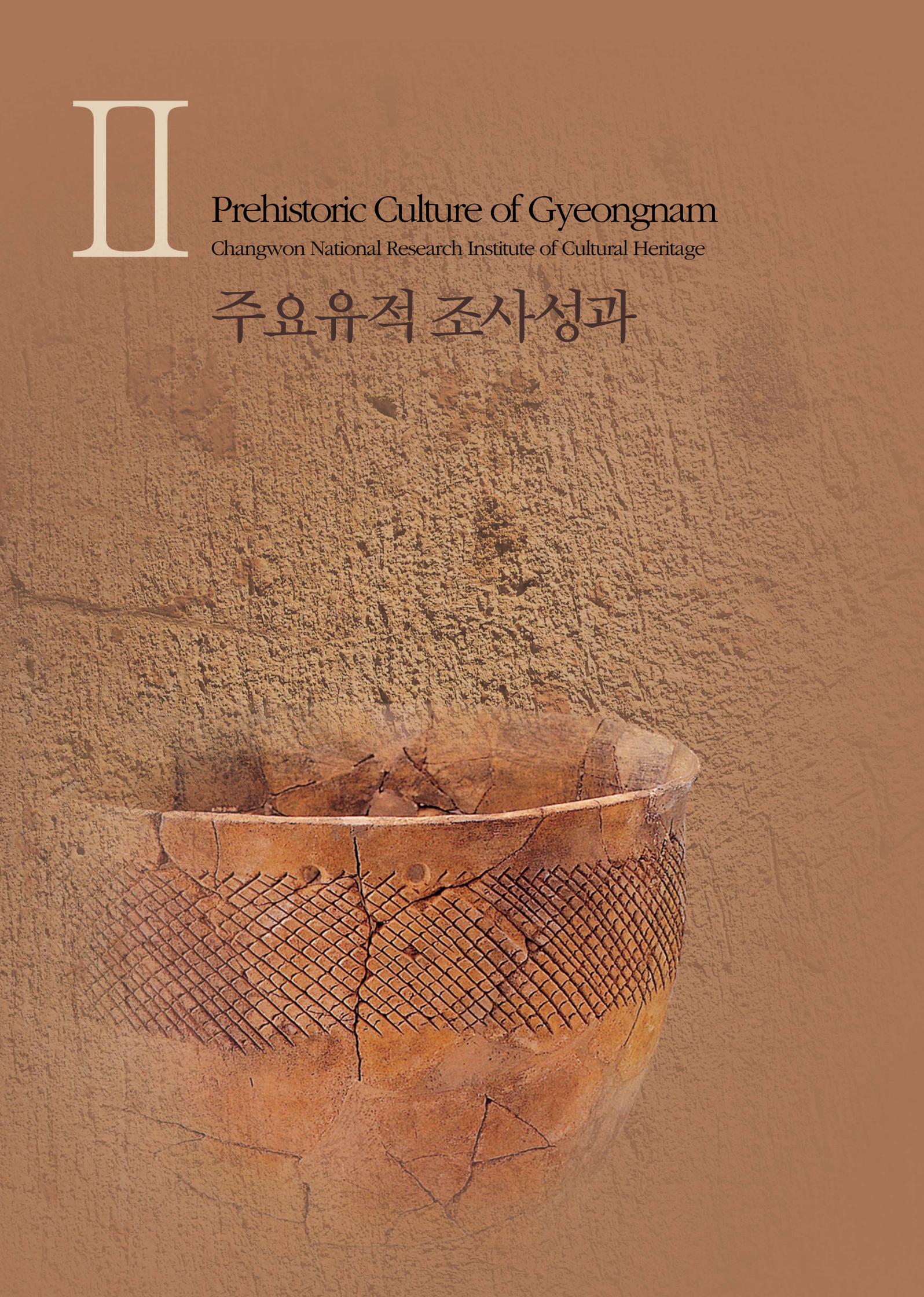
연번	시대구분	유적명	조사년도	조사기관	유적성격
1	구석기시대	거창 임블리유적	1988	신라대학교박물관	유물포함층
2	구석기시대	밀양 고례리유적	1996~1997	부산대학교박물관	한대유적
3	구석기시대	진주 내촌리유적	1997	한양대학교박물관	유물포함층
4	구석기시대	사천 이금동유적	1998~1999	경남고고학연구소	유물포함층
5	신석기시대	통영 상노대도유적	1978, 1988	연세대학교·동아대학교박물관, 수산대학교박물관	폐층
6	신석기시대	김해 수가리유적	1978, 1979	부산대학교박물관	폐층
7	신석기시대	합천 봉계리유적	1987~1988	동아대학교박물관	주거지
8	신석기시대	거창 임블리유적	1988	신라대학교박물관	주거지, 수혈
9	신석기시대	통영 연대도유적	1988	국립진주박물관	폐층, 매장시설
10	신석기시대	통영 옥지도유적	1988, 1989	국립진주박물관	폐층, 무덤
11	신석기시대	진주 상촌리유적	1996~1998	동의대학교·동아대학교·한양대학교박물관	주거지, 수혈, 화장시설, 옹관, 제사유구 등
12	신석기시대	창녕 비봉리유적	2004~2005	국립김해박물관	폐층, 저장시설, 배(舟)
13	청동기시대	합천 저포E지구유적	1986~1987	부산대학교박물관	주거지, 지석묘
14	청동기시대	거창 산포유적	1986~1987	동의대학교박물관	지석묘
15	청동기시대	거창 대야리유적	1987~1988	동의대학교박물관	주거지, 수혈, 옹관묘, 지석묘 등
16	청동기시대	의령 석곡리유적	1989	동아대학교박물관	지석묘
17	청동기시대	함안 도항리선사유적	1991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주거지, 지석묘
18	청동기시대	창원 덕천리유적	1992~1993	경남대학교박물관	지석묘, 석관(석곽)묘, 환호 등
19	청동기시대	진주 대평유적	1995~1999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등 16개 기관	주거지, 지석묘, 석관묘, 환호, 발 등
20	청동기시대	산청 옥산리유적	1996	부산대학교·경상대학교박물관	주거지, 고상건물, 수혈, 환호 등
21	청동기시대	산청 사월리유적	1996	부경대학교박물관	주거지, 지석묘, 수혈, 구(溝) 등
22	청동기시대	창원 남산유적	1997	창원대학교박물관	주거지, 환호, 폐층
23	청동기시대	사천 이금동유적	1998~1999	경남고고학연구소	주거지, 지석묘, 고상건물, 수혈, 구상유구 등
24	청동기시대	마산 진동유적	2004~2006	경남발전연구원	주거지, 지석묘, 석관묘, 발 등
25	청동기시대	김해 율하리유적	2005~2006	경남발전연구원	주거지, 고상건물, 구상유구, 지석묘 등
26	청동기시대	진주 이곡리유적	2005~2006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주거지, 환호, 지석묘 등

II

Prehistoric Culture of Gyeongnam

Changw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주요유적 조사성과



Chapter 1.

Paleolithic Age

구석기시대

거창 임불리유적 · 밀양 고례리유적 · 진주 내촌리유적
사천 이금동유적

Chapter 2.

Neolithic Age

신석기시대

통영 상노대도유적 · 김해 수가리유적 · 합천 봉계리유적
거창 임불리유적 · 통영 연대도유적 · 통영 옥지도유적
진주 상촌리유적 · 창녕 비봉리유적

Chapter 3.

Bronze Age

청동기시대

합천 저포E지구유적 · 거창 산포유적 · 거창 대야리유적
의령 석곡리유적 · 함안 도항리선사유적 · 창원 덕천리유적
진주 대평유적 · 산청 옥산리유적 · 산청 사월리유적
창원 남산유적 · 사천 이금동유적 · 마산 진동유적
김해 율하리유적



거창 임블리유적

밀양 고례리유적

진주 내촌리유적

사천 이금동유적



거창 임블리유적 출토 석기류

진주 내촌리유적 전경



Chapter 1.

구석기시대

Paleolithic Age

밀양 고례리유적 출토유물



조사내용

- 거창 임블리유적 1988 신라대학교박물관
- 밀양 고례리유적 1996~1997 부산대학교박물관
- 진주 내촌리유적 1997 한양대학교박물관
- 사천 이금동유적 1998~1999 경남고고학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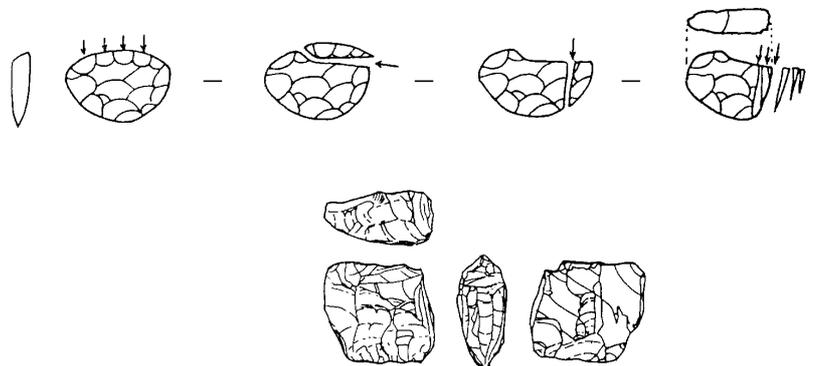
Paleolithic Age 구석기시대

거창 임블리유적

거창 임블리유적은 신라대학교박물관에 의해 1988년 합천댐 수몰지구 유적발굴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천덕사지 발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유적이다. 유적은 황강유역으로부터 약 15~20m 높이의 사질성 하안단구에 위치하고 있다. 유물구성상은 줌돌날몸돌, 돌날, 격지, 소형밀개, 새기개, 방형대형격지 굽개/흠날의 잔손질이 가해진 복합도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적의 시기는 중석기시대로 편년되며, 이와 유사한 성격의 유물구성상은 공주 석장리의 상부층문화에서 확인된다. 유적의 성격은 잠시 머물다 떠난 사람들에 의해 남겨진 단일성격의 생활유물군으로 판단되고 있다.



거창 임블리유적 출토 석기류



임블리 줌돌날몸돌 제작과정



Paleolithic Age 구석기시대

밀양 고레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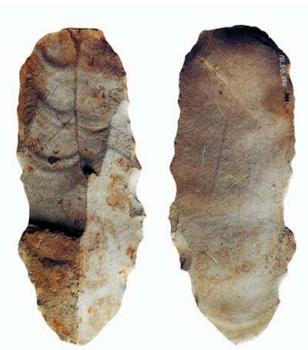
1993년 부산대학교박물관에 의한 지표조사과정에서 발견되었으며, 발굴조사는 1996년 11월부터 1997년 10월까지 실시되었다. 유적은 단장천(丹場川)과 인접해 있으며, 평지와 20m 정도 높이차를 보이는 구릉에 입지한다. 이 지역의 지질은 약 1억년 전의 중생대 백악기층들이 존재하는 곳이며, 유적이 위치한 곳은 안산암질 응회암이 기반암으로, 심하게 풍화되어 토양화 현상을 보이는 기반암 위로 제 4기층이 쌓여 있다.

고레리유적의 퇴적층은 크게 7개 층위로 구분되는데, 구석기문화층은 II·III층의 점토퇴적층으로 III층의 경우, 연대가 B.P. 24,000~25,000으로 측정되었다. 유물은 문화층을 기준으로 하부유물군층(III층)과 상부유물군층(II층)에서 출토되며, 몸돌, 격지 등 7,908점이 출토되었다. 하부유물군층에서 확인된 유물은 전체적으로 10cm 미만의 중·소형돌날이 주를 이룬다. 반면 상부유물군은 유물 구성측면에서 하부보다 다양하다. 광폭의 대형돌날과 길이 20cm 이상의 대형돌날몸돌, 대형홈날석기 등이 있으며, 유물 가운데 마연(磨研)이 된 석기는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예이다. 유물접합은 몸돌과 격지, 몸돌과 몸돌, 격지와 격지, 절단된 격지의 접합, 부스리기돌의 접합, 자갈돌의 접합, 불탄돌의 접합 등 여러 유형이 출토되어 석기 제작·복원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석기의 돌감은 혼펠스와 안산암이 주류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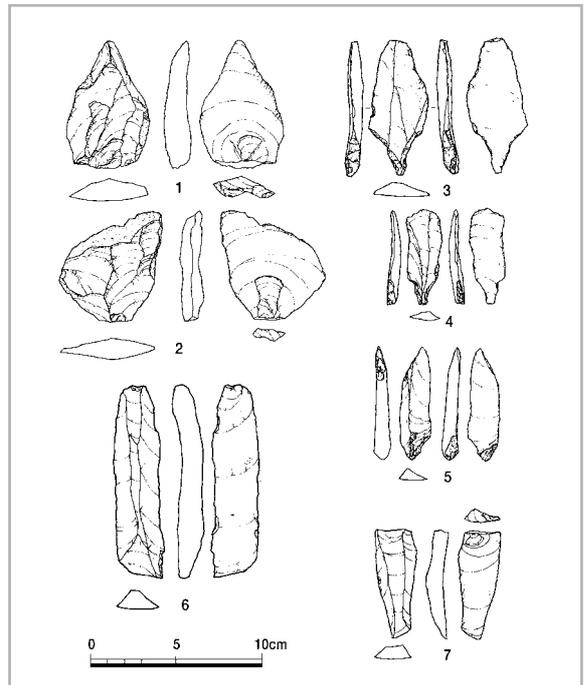
고레리의 문화상은 돌날문화(Blade Industry)로 부를 수 있으며, 찌르개형 격지와 전형적인 돌날의 제작, 새로운 형태의 석기 출현, 그리고 후기구석기문화의 전형적인 유물인 밀개류와 좁돌날몸돌이 전혀 출토되는 않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밀양 고레리유적 출토 석기류



밀양 고레리유적 출토 석기류



밀양 고레리 후기구석기 상부유물군층 출토유물



Paleolithic Age 구석기시대

진주 내촌리유적

진주 내촌리 구석기유적은 1990년 경상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발견되었고, 발굴 조사는 1997년 한양대학교박물관·문화인류학과가 실시하였다. 유적은 남강과 덕천강이 합류하는 지점의 완만한 경사를 가진 두 개의 구릉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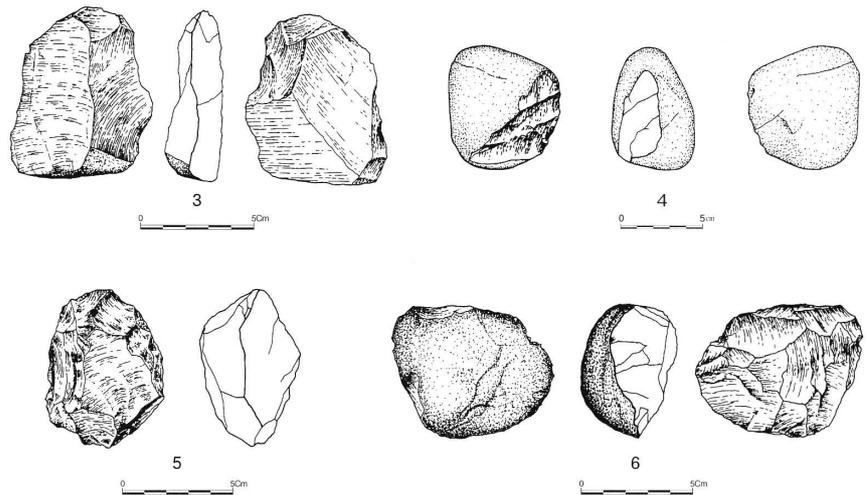
층위는 모두 8개로 나누어지며, 문화층은 II층의 명갈색점토층에서 출토되었다. 석기는 총 11점이 수습되었는데, 돌감은 석영암 또는 규암이 많고, 일부 응회암과 사암 등이 이용되기도 하였다.

출토 석기는 2차 가공 석기의 수가 적고, 2차 가공이 이루어진 석기도 적은 수의 타격을 가하여 변형시킨 것이 대부분이다. 석기의 대부분은 몸돌과 격지로 구성되어 있고 가공된 석기들은 극히 소량이며 가공 정도도 아주 미약하다. 가공된 석기는 찌개나 굽개들이며, 몸돌(石核)류는 몇 차례 타격을 가하여 격지를 만들어 낸 박리된 강돌(川石), 중간단계의 석재를 몇 차례 박리한 석재, 찌개류의 몸돌들, 다각면원구상(多角面圓球狀)의 몸돌 등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몸돌의 종류가 대부분 보인다. 격지는 대체로 자연면이나 박리평면을 타격면으로 이용하여 박리한 것이다.

유적의 연대는 석기공작에서 돌날이나 돌날석기들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른 후기구석기문화처럼 다양한 석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기 이전의 석기공작으로 판단된다.



진주 내촌리유적 전경



진주 내촌리 출토 석기



Paleolithic Age 구석기시대

사천 이금동유적

이 유적의 발굴조사는 1998년에서 1999년까지 2차에 걸쳐 경남고고학연구소에 의해 이루어졌다. 유적은 산사면의 말단부에 위치한 구릉의 사면에 형성되어 있다. 층위는 표토층과 기반암을 포함하여 6개층으로 나누어지는데, 제Ⅳ·Ⅴ층에서 구석기가 채집되었다. 유물은 6개 Grid에서 24점이 출토되었으며, 청동기시대 유구조사시 수습된 7점과 지표채집유물 5점 등 모두 36점이 채집되었다. 돌감은 대부분 혼펠스이며, 석영암과 이암도 보인다. 석기의 종류는 격지, 몸돌 등이며, 청동기시대 원형주거지 상부에서 흑요석제 격지가 출토되었다. 유적의 연대는 10,000~30,000년 전의 후기구석기시대로 보여진다.



사천 이금동유적 전경



사천 이금동유적 출토 흑요석제 석기



거창 임블리유적 ● ● 합천 봉계리유적

창녕 비봉리유적 ●

진주 상촌리유적 ●

김해 수가리유적 ●

● 통영 연대도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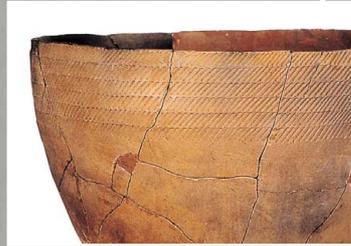
● 통영 상노대도유적

● 통영 옥지도유적



합천 봉계리 출토유물

진주 상촌리 출토유물



창녕 비봉리유적



Chapter 2.

신석기시대

Neolithic Age

조사내용

- 통영 상노대도유적 1978, 1988 동아대학교 · 연세대학교박물관, 수산대학교박물관
- 김해 수가리유적 1978, 1979 부산대학교박물관
- 합천 봉계리유적 1987~1988 동아대학교박물관
- 거창 임불리유적 1988 신라대학교박물관
- 통영 연대도유적 1988 국립진주박물관
- 통영 옥지도유적 1988, 1989 국립진주박물관
- 진주 상촌리유적 1996~1998 동의대학교 · 동아대학교 · 한양대학교박물관
- 창녕 비봉리유적 2004~2005 국립김해박물관



Neolithic Age 신석기시대

진주 상촌리유적

상촌리유적은 남강댐 수몰지구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유적으로 A와 B, C지역으로 나누어지며, 각각 동의대학교박물관, 동아대학교박물관, 한양대학교박물관에서 1996년에서 1998년에 걸쳐 발굴조사하였다. 유적의 입지는 남강의 서안에 발달한 충적대지로서 남강과 접해 있다. 동의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한 A지역에서는 신석기시대 주거지 5동과 수혈유구 10여기, 구상유구 3기가 조사되었다. B지역에서는 주거지 23동과 옹관, 구상의 제사유구, 적석으로 이루어진 화장(火葬)시설 등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가 다수 발견되었다. 한편 C지역은 A·B지역의 남쪽에 위치한 유적으로 신석기시대 토기편 일부가 혼입되어 있었다.

B지역은 상촌리 신석기유적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확인된 주거지는 신석기시대 중기와 후기 단계의 것으로 구분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전체적으로 말각장방형을 이루고 있으며, 후기로 갈수록 규모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노지는 주거의 중앙에 특별한 시설없이 배치되어 있었다. B지역에서 주목되는 유구는 적석화장(積石火葬)시설이다. 이것은 길이 8.7m, 폭 5.5m, 깊이 1.1m 규모의 장방형 수혈유구로서 내부에 강돌과 할석이 쌓여 있었으며, 상면(床面)은 불에 의해 소성되어 붉은 색을 띠고 있었다. 이 유구의 외곽에서는 각종 빗살무늬토기편과 평저토기, 홍도와 마제석부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밖에 수혈의 중앙부에 가루형태의 골편(骨片) 일부가 남아 있었다. 옹관을 포함한 여러 유구에서 화장된 인골 편들이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유골을 옹관에 넣기 위하여 화장하였던 특수한 시설로 추정된다. 화장시설 외곽에서는 구상(溝狀)의 제사유구가 발견되었으며, 주거지 내부에서 옹관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한편 상촌리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는 중기와 후기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토기들 중 특기할 만한 것은 번개문토기와 홍도의 출토이다. 이들 토기는 우리나라의 동북지역에서 용기문토기 이후 단계에 주로 출토되는 것들로 이 지역과 남강유역과의 관련성이 주목된다.

이처럼 상촌리유적은 주거지와 묘제, 의례행위 등을 추정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여 당시의 사회문화상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유적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진주 상촌리유적 화장(火葬)시설



진주 상촌리유적 출토 토기



Neolithic Age 신석기시대

함천 봉계리유적

함천 봉계리유적은 거창 임불리유적과 함께 함천담 수몰지구 발굴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유적이다. 발굴조사는 동아대학교박물관에 의해 1987년과 1988년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신석기시대 주거지 13동이 확인되었다. 유적은 황강의 중상류지역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하안단구의 가장자리에 입지하고 있다.

층위는 크게 5개로 나누어지는데, 신석기시대의 중심문화층은 제3층으로 이곳에서 유물이 집중출토되었다. 주거지는 모두 직경 4m 안팎의 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일부 주거지는 별도의 돌출된 출입구 시설을 갖춘 것이 있다. 노지는 주거지 바닥의 중앙 또는 한 쪽에 치우쳐 설치한 것과 아무런 시설없이 바닥면을 오목하게 파고 불을 피운 흔적이 있는 예가 있으며, 주거지 내부에서 저장공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유물은 빗살무늬토기와 타제석부, 연석(礪石), 지석(砥石)과 같은 석기들이 출토되었다. 빗살무늬토기는 다섯 시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제1기는 신석기시대 중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립하는 구연부에 구순이 편평하고 문양은 전면시문의 양상을 보인다. 제2기는 구연부가 직립하는 것이 많고, 구순은 평평하고 구연부 가까이까지 문양이 시문된다. 제3기에는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순은 등근 것이 많으며, 문양은 구연부에서 벗어난 동체부에만 시문되어 있다. 이것은 남해안지역에서는 자주 볼 수 없는 형태로서 하나의 토기유형으로 설정가능하여 '봉계리식토기'로 명명되었으며, 제3기는 이 토기유형의 전형으로 불리우고 있다. 제4기는 구연부에 점토대를 갖고 있으며, 제5기는 문양이 많이 생략되어 사집선문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봉계리유적은 남부내륙에서 가장 다양한 유물이 출토된 곳으로 주거지의 저장공에서는 다량의 탄화된 도토리과 호두 등이 출토되어 당시의 식생활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빗살무늬토기는 남해안지역과 중부이북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문형태를 보이고 있어 '봉계리식'이라는 하나의 독특한 토기양식을 만들기도 하였다.



봉계리식 토기편



함천 봉계리유적 전경



Neolithic Age 신석기시대

통영 연대도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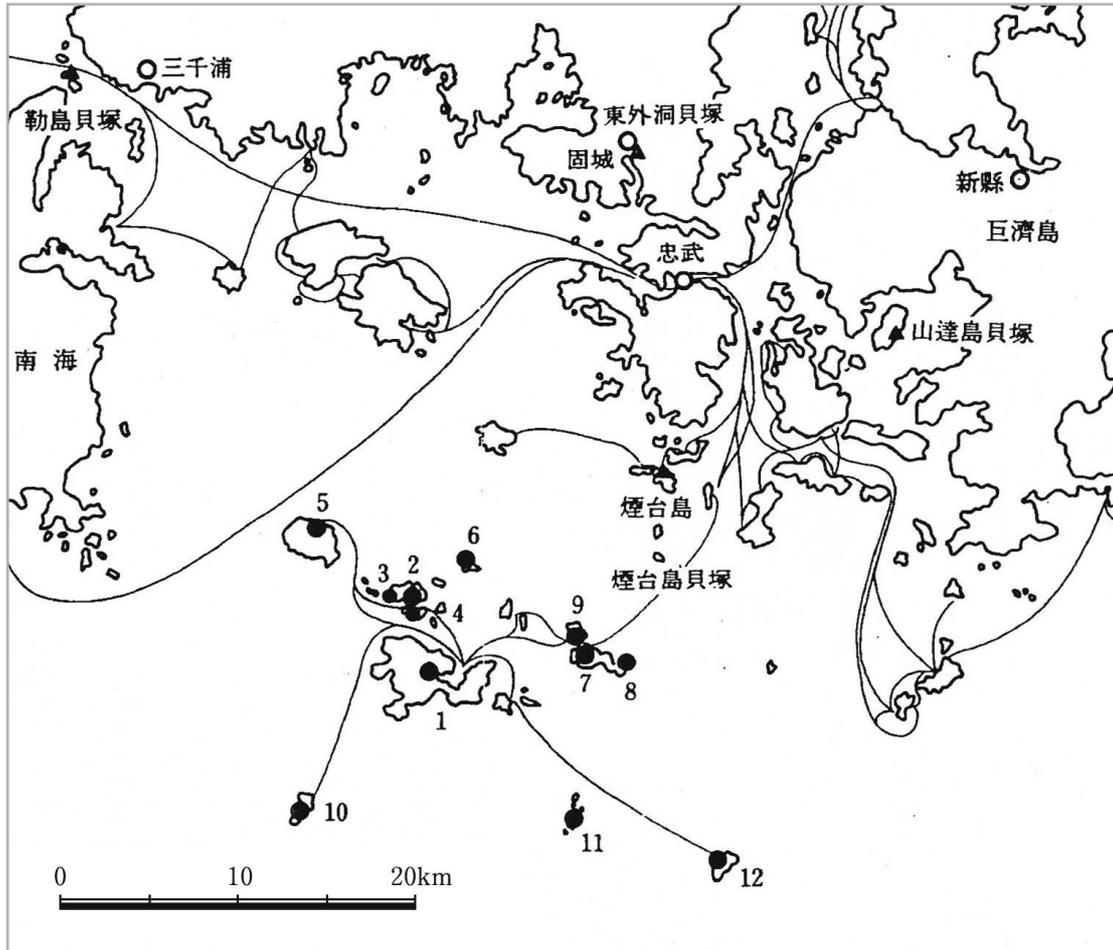
연대도유적은 경남 통영시에 위치한 유적으로 사적 제33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립진주박물관에서 1988년에 발굴조사하였다. 이 유적은 주변의 옥지도, 상노대도 등과 함께 남해안 지역의 신석기문화를 대표하는 패총이다. 신석기시대 문화층은 2개의 층위를 형성하고 있으며, 많은 유구와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주목받은 것은 신석기시대 매장시설이다.

이 유적은 당시의 매장형태와 우리 조상의 형질인류학적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이며, 여기에서 출토된 인골자료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인골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대도에서 인골이 공반된 유구는 모두 13기이며, 이러한 매장시설은 생활공간과 분리된 장소일 가능성이 크다. 인골은 대부분 무덤구덩이를 얇게 파고 시신의 침향(枕向)을 바다로 향하게 하여 곧게 펴서 묻는 신전장(伸展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무덤 안에는 조가비팔찌, 발찌, 뼈작살, 결합식뉘시바늘, 뼈장식, 토기 등을 부장하였다. 시신과 부장유물을 안치한 후에는 작은 돌들을 위에 쌓은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한 사람씩 매장되었으나, 세 사람이 같이 합장된 모습도 보인다. 한편 인골에서는 병리학적인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두개골의 귀에서 잠수부에게 흔히 발생하는 외이도골종(外耳道骨腫)이라는 꺾병이 확인되어 당시 심해(深海)어업이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었다.

유물은 토기, 석기, 골·패제품 등이 출토되었다. 토기는 용기문토기와 압날문·압인문토기, 구순각목토기 등이 층위에 따라 출토량을 달리하며 나타나고 있으며, 이밖에 많은 양의 흑요석과 돌접시 등이 출토되어 일본 구주지방과의 교류 또는 남해안과 구주지방을 잇는 당시 문화권역의 하나를 상정할 수 있는 자료로 여겨지고 있다. 골·패제품으로는 비교적 많은 어로 용구와 뼈연장, 장신구 등이 출토되어 당시의 어로, 사냥풍습 등의 생활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연대도 인골 출토상태



도면 1. 조사유적 분포도

- | | | | |
|--------------|-----------|-------------|------------|
| 1. 육지도패총 | 4. 하노대도패총 | 7. 연화도 분촌패총 | 10. 갈도패총 |
| 2. 상노대도 상리패총 | 5. 두미도패총 | 8. 연화도 동두패총 | 11. 좌사리도패총 |
| 3. 상노대도 산등패총 | 6. 남도패총 | 9. 우도패총 | 12. 국도패총 |



상노대도 1·2호 무덤과 기둥구멍

Neolithic Age 신석기시대

통영 옥지도유적

옥지도유적은 연대도, 상노대도유적과 함께 경남 통영시에 위치한 패총으로 국립진주박물관에서 1988년과 1989년 두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하였다. 신석기시대 문화층은 II 층과 III 층에서 확인되었는데, II 층에서는 돌무지시설과 2기의 무덤이 조사되었으며, 각종 토기, 생활용석기, 몸돌, 격지 등이 출토되었다. III 층은 II 층에서와 마찬가지로 돌무지시설과 덧무늬토기가 다수 출토되었다.

돌무지시설은 돌들 사이에서 많은 양의 생활용 유물이 출토되어 이 시설 자체가 공동제작소나 임시 주거지였을 가능성도 높지만 무덤 2기가 함께 조사되어 집단무덤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덤 내 인골의 짐향은 연대도유적과 같이 바다를 향하고 있다.

토기는 3개의 문화층에서 덧무늬토기와 이중구연토기, 붉은간토기 등이 출토되었으며, 토기의 표면에는 단사선문과 압인문, 압날문 등이 시문되었다. 이밖에 흑요석제의 화살촉과 뼈연장, 장신구 등이 출토되었다.

보편적으로 남부지방의 신석기시대 유적에서는 석기가 적게 출토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옥지도유적에서는 다량의 석기가 출토되어 연구의 폭을 넓혔으며, 특히 흑요석제 석기들은 원석의 산지문제와 더불어 일본 구주지방과의 교류상을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통영 상노대도유적

상노대도는 옥지도의 북쪽에 위치한 섬으로 인근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적과 마찬가지로 패총이 형성되어 있는데, 발굴조사는 상리유적과 산등유적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상리유적은 1978년 동아대학교박물관과 연세대학교박물관이 공동으로 모두 4개의 구역에 대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적의 층위는 층위적으로 성격이 뚜렷한 3지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제4층에서는 용기문토기와 평행자돌문, 그리고 침선의 호선문토기가 출토되고 있으며, 제3층에서는 평행자돌문과 압날문토기가 새롭게 나타난다. 제2층은 제3층과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제1층에서는 압인어골문만 출토되었다. 한편 연세대학교박물관이 조사한 지점에서는 모두 10개의 퇴적층이 확인되었는데, 초기, 전기, 후기로 시기구분이 가능하다. 초기에는 토기의 문양이 무문과 용기문이 주를 이루나 상층으로 갈수록 압날문 계통이 많아진다. 전기에는 압인문이 주를 이루며, 후기에는 대부분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된다. 이 유적은 남해안의 전형적인 빗살무늬토기의 출토량이 아주 적은 것으로 보아 중기신석기시대는 공백기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산등유적은 1988년 수산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무덤과 돌무지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 유적은 상리패총과 인접해 있으나 출토유물의 성격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층위는 모두 6개 층으로 나누어지며, 제1층과 제2층에서는 이중구연토기가, 제3·4·5층에서는 자돌문(刺突文)계통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 유적은 6개층의 방사성탄소연대와 출토유물 등을 고려해 볼 때 대체로 신석기시대 중기이후와 후기 사이에 형성된 유적으로 보여진다.



Neolithic Age 신석기시대

김해 수가리유적



수가리 유적 전경

김해 수가리유적은 부산-마산간 고속도로 공사과정에서 발견되어 1978년과 1979년 두 차례에 걸쳐 부산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되었다. 유적은 구릉 사면의 해발 8~5m 사이에 형성된 패총으로, 층위는 모두 6개로 나뉜다. 각 층위에는 순패각층과 부식토층이 교대로 퇴적되어 있는데, 토기의 시문양식과 기법 등에 따라 수가리 I·II·III기의 문화층으로 구분된다. 먼저 수가리 I기는 순패각층의 아래인 제6층에서 나타나며 이 시기의 토기는 구연부에서 동체상부까지 압인의 단사집선문이 있고, 그 아래에 어골문으로 태선침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기형은 원저와 평저의 토기가 모두 출토되고 있으며, 기종은 발형, 완형(甕形), 호형토기, 붉은간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이밖에 자돌구(刺突具)로 보이는 골각기가 출토되었다. 이 시기는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 4,380B.P.~4,200B.P.로서 신석기시대 중기의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가리 II기는 제5층~제3층에 해당되며, 이 시기의 토기는 주로 격자문을 중심으로 태선의 능형 집선문, 삼각집선문, 사다리꼴 문양 등의 단독문양이 동체 상부에 시문되었으며, 바닥은 침저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수가리 III기는 제2층과 제1층으로 흠구연토기와 이중구연토기로 나누어지는데, 문양은 1~2열의 단사선문이나 장사선문이 주로 시문되고 바닥은 역시 침저의 형태를 취한다. 이밖에 방추차, 어망추, 타제 석부, 흑요석제 화살촉, 뼈찌르개, 팔찌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 시기는 신석기시대 후기로 추정된다.

수가리유적은 남해안 패총유적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토기들이 섞여 나타나지 않고, 비교적 단순하면서 원저 내지 침저를 특징으로 하는 침선문토기의 단독유적으로서 남부지방 빗살무늬토기의 편년 연구에 중요한 지표를 제시하였다.



수가리 출토 호형 토기



Neolithic Age 신석기시대

창녕 비봉리유적

비봉리유적은 국립김해박물관에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발굴조사한 우리나라 최초의 신석기시대 저습지유적이다. 유적은 낙동강의 한 지류와 인접한 내륙에 속한 곳이지만, 패각층의 층서에 의한 퇴적양상을 잘 살필 수 있어 용기문, 압인문, 태선침선문, 이중구연토기로 이어지는 남부지역 신석기시대 토기편년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배 출토상태(선미부에서)

출토유물로는 신석기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제2부석층에서 동물그림이 선각(線刻)된 토기편과 분석(糞石 : 사람이나 동물의 배설물이 굳어 화석처럼 된 것)이 출토되어 주목을 받았다. 이밖에 신석기시대의 생계방식 중에서 채집(도토리, 가래, 솔방울, 조개), 어로(바다생물, 잉어), 사냥(사슴, 멧돼지), 가축(개) 등이 확인되었으며, 야외노지(중기)와 제1패층(전기)에서 탄화조가 발견되어 신석기시대 전기에 이미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 농경 내지는 경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탄화된 도토리가 토기의 내면에 다량 붙어 있는 채 출토되고 10호 저장공에서는 제분된 도토리 탄화물이 출토되어 신석기시대의 식료획득, 저장(저장공), 가공(갈판과 갈돌), 조리(탄화물)의 전과정과 당시의 먹을거리를 구체화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

한편 비봉리유적에서는 고고학적 층위로 보아 신석기시대 초장기층으로 추정되는 퇴적층에서 배가 출토되었는데, 약 8,000년 전의 것으로 보여진다. 배의 수종은 소나무로서 기본적으로 통나무를 파내어 제작하였다. 규모는 최대길이 3.1m, 최대폭 0.6m, 두께 2.0~5.0cm, 깊이 약 20cm 정도이다. 배의 내부에서 부분적으로 제작 당시 불에 태워 가공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보이는 초흔(焦痕, 불에 그을려 가공한 흔적)이 관찰되었다.



토기에 선각된 동물그림



거창 대야리유적

거창 산포유적

합천 저포E지구유적

의령 석곡리유적

산청 옥산리유적

산청 사월리유적

진주 대평유적

진주 이곡리유적

마산 진동유적

사천 이금동유적

함안 도항리유적

창원 남산유적

창원 덕천리유적

김해 율하리유적



산청 옥산리유적

함안 도항리선사유적



사천 이금동유적 출토유물



Chapter 3.

청동기시대

Bronze Age

조사내용

- 합천 저포E지구유적 1986~1987 부산대학교박물관
- 거창 산포유적 1986~1987 동의대학교박물관
- 거창 대야리유적 1987~1988 동의대학교박물관
- 의령 석곡리유적 1989 동아대학교박물관
- 함안 도항리선사유적 1991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 창원 덕천리유적 1992~1993 경남대학교박물관
- 진주 대평유적 1995~1999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등 16개 기관
- 산청 옥산리유적 1996 부산대학교 · 경상대학교박물관
- 산청 사월리유적 1996 부경대학교박물관
- 창원 남산유적 1997 창원대학교박물관
- 사천 이금동유적 1998~1999 경남고고학연구원
- 마산 진동유적 2004~2006 경남발전연구원
- 김해 율하리유적 2005~2006 경남발전연구원
- 진주 이곡리유적 2005~2006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황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유적



황강유역(합천댐 수몰지구 발굴조사 유적 분포도)



거창 대야리유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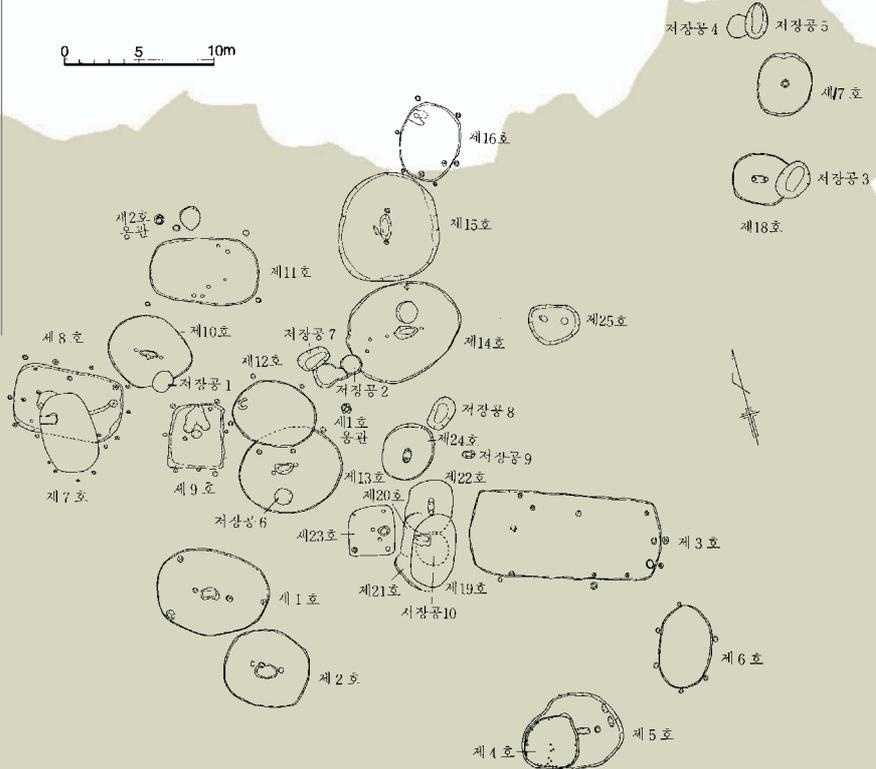
Bronze Age 청동기시대

거창 대야리유적

대야리유적은 합천댐 수몰지구 발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유적으로 동의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1987년과 1988년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유적은 황강과 접한 충적대에 위치하며, 청동기시대 유구는 주거지 15동과 수혈 11기, 옹관묘 2기, 개석식지석묘 4기 등이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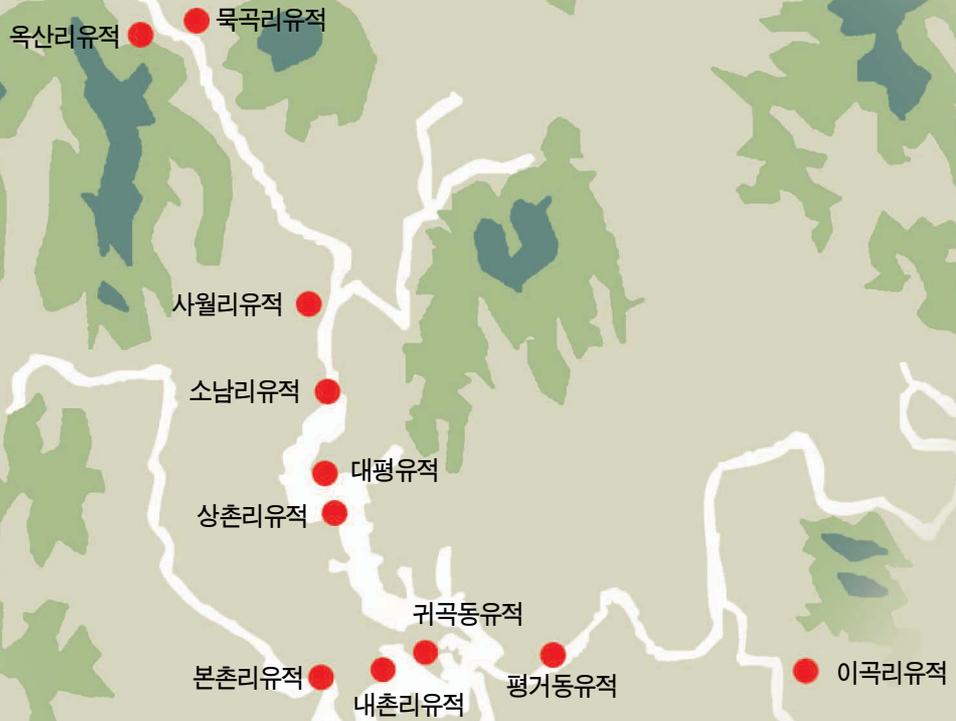
주거지의 형식은 중앙 작업공의 유무에 따라 송국리형과 방형·장방형으로 구분된다. 송국리형 주거지의 면적은 대체로 30㎡ 내외이며, 평면은 모두 원형이다. 바닥면은 생토면을 이용한 경우도 있지만 불다짐하여 바닥처리를 하기도 하였다. 주혈은 대부분 타원형 구덩이 밖에 설치되었다. 방형·장방형주거지는 송국리형보다 수혈의 깊이가 얇고 주혈도 내외의 벽면을 따라 배치된 양상을 보인다. 송국리형과 방형·장방형주거지 간의 선후관계는 유구의 중복상태로 보아 송국리형 주거지가 먼저 축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혈은 주거지에 부속된 저장공으로 판단되지만, 내부에 소토 등이 확인된 예도 있어 야외노지로 추정되기도 한다. 주거지에서는 무문토기와 홍도, 유경식석축, 반월형석도, 유구석부, 지석 등이 출토되었으며 방형·장방형주거지의 유물 출토량이 송국리형주거지보다 많은 편이다.

한편 지석묘는 강돌을 4~5단 정도 쌓아 석곽형의 묘실을 만들었으며, 발굴조사 전 주위의 강들로 보아 묘역시설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석검과 석촉 등이 출토되었는데, 2호 지석묘에는 모두 42점에 달하는 다량의 유물이 매납되어 주목된다.



주거지배치도

경호강·남강유역의 청동기시대유적





Bronze Age 청동기시대

산청 옥산리유적

경호강은 남강의 한 지류로서 주로 하안단구에서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남강댐 수몰지구에서 확인된 유적들과 함께 영남지방 청동기시대 문화의 전개과정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산청 옥산리 유적도 그 중 하나로 1996년 부산대학교·경상대학교 발굴조사단에 의해 조사가 실시되어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친 주거지 및 분묘유적이 확인되었으며, 청동기시대 유구는 주거지 117동, 고상건물 5동, 수혈유구 18기, 환호 등이 발견되었다.



산청 옥산리유적 전경

주거지 중 평면형태가 원형 또는 방형인 송국리형주거지는 모두 67동이다. 주거지의 증복상태를 통하여 볼 때, 방형주거지가 원형주거지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호 내의 주거지들은 환호와 연결하여 조성되었으며, 조성시기는 방형주거지의 사용시기와 일치하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환호의 형태는 단면 'V'자형으로 직선 길이 약 180m 정도의 2열이 확인되었다.

송국리형주거지의 내부 작업공에서는 대형지석과 석기박편, 옥 원석 및 반제품 등이 출토되었으며, 돌대문토기, 공렬문토기, 외반구연 용 등의 토기류가 주거지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산청 사월리유적



산청 사월리 주거지 전경

산청 사월리유적은 1996년 부경대학교박물관에서 실시한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구간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이다. 유적은 남강의 충적대지에 위치한 낮은 구릉상에 입지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는 주거지 19동과 지석묘 9기, 소형 수혈유구 1기, 구 2열이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 말각장방형, 세장방형, 말각방형, 타원형 등으로 다양하다. 장방형주거지는 비교적 규모가 큰 편으로, 내부에서 노지와 작업공 등이 확인된다. 세장방형주거지는 장축길이가 16.7m로 규모면에서 가장 크다. 내부에는 벽면을 따라 벽구가 설치되었으며, 노지 5개소와 배수구 등도 확인되었다. 말각방형과 타원형주거지는 각각 5기씩 조사되었는데, 주거지 중앙에 타원형 구덩이가 있는 것과 벽구시설을 가진 것 등 특징적인 내부시설에 따라 2종류로 세분된다. 그리고 내부 중앙에 타원형구덩이를 갖춘 것은 평면형태나 주혈의 배치상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거지는 증복관계와 평면형태, 출토유물 등으로 볼 때 3단계의 축조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장방형주거지 내부에 노지가 있고 공렬문, 구순각목문, 단사선문 등이 서로 조합을 이룬 청동기시대 전기의 토기가 출토되는 단계이다. 2단계는 평면형태가 말각방형·타원형에 작업공을 가진 송국리형주거지와 세장방형주거지가 축조된 시기이다. 유물은 직립구연의 심발형·발형토기가 주종을 이룬다. 3단계는 말각방형의 평면형태를 이루며, 2단계의 토기가 출토되나 외반구연의 용형토기의 비중이 증가한다. 이러한 유구와 유물 출토상을 볼 때 사월리 유적은 청동기시대 전기~중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Bronze Age 청동기시대

진주 대평유적

대평유적은 남강댐 건설공사로 인해 알려진 유적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1975년부터 1980년까지 4차례에 걸쳐 실시한 발굴조사에서 주거지와 지석묘, 석관묘 등이 조사되면서 영남지역의 중요한 청동기시대 유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남강다목적댐 개량사업이 추진되면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진주 대평면, 산청 단성면, 사천 곤명면 일대의 총적대지에 대한 대규모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발굴조사에서 구석기시대~삼국시대에 걸친 다양한 유적들이 확인되었다. 특히 대단위 지역의 전면조사를 통하여 청동기시대 집자리와 농경지, 무덤 등의 공간배치를 알 수 있는 마을유적이 확인되었고, 각종 유물과 매장유구들은 남강유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문화의 전개과정 및 장송의례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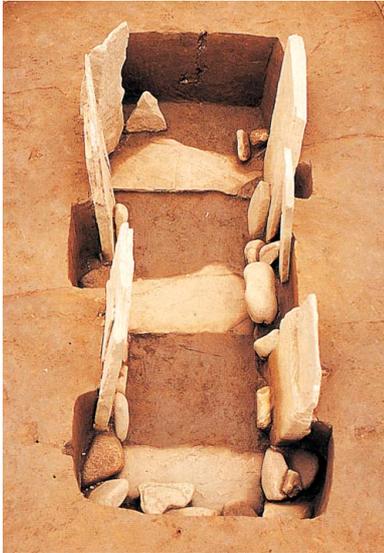
남강의 청동기시대 집자리는 대평리와 상촌리, 귀곡동 등에서 확인되었다. 대평리는 옥방, 어은지구로 나누어지는데, 모두 11개 기관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대평유적에서 발굴된 주거지는 모두 400동 이상으로 청동기시대 전기와 중기로 편년된다.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되는 기원전 10~7세기 경의 주거지는 평면이 대체로 장방형 또는 세장방형의 형태로 주거지 내부에는 위석식(圍石式)이나 수혈식의 노지가 위치하고, 유물은 각목돌대문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구순각목공열문토기, 이단병식석검 등이 출토된다. 청동기시대 중기는 주거지 평면 형태가 방형, 말각방형, 원형으로서 송국리형주거지에 속하는 것들이며, 규모면에서 중소형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지는 주거지 외부에도 위치하며, 대체로 아궁이형이나 수혈식이다. 대표적인 유물은 무문양의 심발형토기, 외반구연의 호형토기, 유구석부, 삼각형석도, 일단병식석검 등이 있다. 이 시기에는 옥방 1지구와 옥방 4지구, 7지구에서 주거지군을 둘러싼 환호가 발견되었다. 옥방 1지구의 환호를 살펴보면, 환호 내부에 주거지가 주로 배치되고 외부에 노지·수혈유구·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구들과 전혀 분리된 공간에 매장유구와 경작유구가 분포하는 양상을 보여 주거공간을 다른 성격의 공간과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유형의 청동기시대 주거지



어은 1지구의 주거지군과 경작지



옥방 8지구 석관묘 전경

한편 대평유적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대규모 농경지의 확인이다. 농경지는 완만한 U자형의 배후사면에 형성되어 있는데, 자연제방의 강쪽 사면에서 발굴된 밭의 면적은 약 40,000㎡이다. 이 경작지는 상·중·하층의 중복관계를 보이고 있어 동일 장소에서 오랜 기간 반복하여 경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밭은 소규모로 나누어지지 않은 규모가 큰 것으로 집단에 의해 공동으로 경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평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분묘는 지석묘를 비롯하여 석관묘, 토광묘, 석개토광묘, 옹관묘 등 다양하여 청동기시대 묘제의 변천과정과 당시의 장송 의례 등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지석묘는 대부분 개석식으로 장방형의 묘역을 갖추고 있는 경우와 묘역시설이 없는 것으로 구분되며, 하부구조는 석곽형이나 유사석곽형을 이룬다. 한편 대평유적을 비롯한 남강유역에서는 200여 기의 석관묘가 조사되어 석관묘가 이 지역의 일반적인 묘제처럼 보인다. 이곳에서 확인된 석관묘 자료는 석관묘의 성격과 구조를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장방형 또는 원형의 주구를 가진 새로운 형태로 확인되고 있어 청동기시대 묘제연구에 새로운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석관묘의 구조는 각 1매의 대형 판석을 조립한 것과 수 개의 판석으로 구성된 것, 판상석을 이용하여 상형석관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평면형태는 대부분 '교'자형을 이루고 있다. 이들 석관묘는 일반적으로 수 기부터 수십 기까지 군집을 이루며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토광묘·석광묘·지석묘 등 타 묘제와 혼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출토유물은 홍도와 석검, 석촉 등이 있다.



대평의 석관묘



옥방 8지구 출토 채문토기



Bronze Age 청동기시대

진주 이곡리유적

이 유적은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와 이곡리 일원에 해당하는 곳으로 동아세아 문화재연구원에서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적은 남강의 한 지류인 영천강과 인접해 있으며, 산사면의 말단부에 위치한다. 이 유적은 청동기시대 전기와 중기의 대규모 취락유적으로 매장·생활·생산공간이 지형조건에 따라 형성되어 있어 취락경관을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30호 지석묘와 주변 유구



27호 지석묘

청동기시대 유구는 분묘 43기, 환호 2개소, 주거지 5동, 수혈 14기, 고상건물 5동, 주혈군 등과 농경지와 관련된 수로가 조사되었다. 분묘는 지석묘 14기, 석관묘 29기, 석계토광 1기가 확인되었는데, 지석묘는 입지와 규모, 군집성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I 유형은 구릉말단에서 층적대지로 이어지는 경사변환점을 따라 입지하며, 대형의 장방형 묘역과 단독분포의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지석묘 주변에 소규모 지석묘 또는 배장묘로 추정되는 석관묘가 배치되는 양상을 보인다. 23호, 30호지석묘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II 유형은 I 유형과 달리 군집을 이루면서 소형의 묘역시설을 가진 것이 대부분이다. 묘실은 지하식석관형도 있으나 대부분 지상식 석관형이다. 묘역시설은 원형과 방형을 이룬다.

석관묘는 총 29기가 확인되었는데, 지석묘군보다 높은 구릉의 사면에 입지하고 있다. 묘실은 판석을 이용하여 상형(箱形)으로 조립한 판석형 석관과 할석을 이용하여 석곽형태로 쌓아 만든 할석형으로 구분되며, 판석형과 할석형석관을 혼용한 형태도 있다. 대부분 판석형의 묘실을 지니고 있다.

환호는 A호, B호로 구분되는데, 먼저 단면 'U' 자형을 이루고 있는 A호는 구릉말단의 경사변환점을 따라 등고선 방향으로 축조되었다. 이 환호와 관련된 생활 유구는 수 기의 수혈에 불과하고 주거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구릉사면의 자연구(自然溝)에 다량의 무문토기편과 석기편 등이 퇴적되어 있어 환호가 둘러싼 구릉이 주거중심지역일 가능성이 높으며, 환호의 형성 시기는 청동기시대 전기로 판단된다. 환호 B는 묘역과 분리된 주거역의 외곽 환호로 추정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단면은 'V'자상에 가깝다. 환호 내에서 주거지 5동, 수혈 2기, 구상유구 등이 확인되었으며, 청동기시대 중기로 비정된다.



환호B



3호 지석묘 조사 후 광경

Bronze Age 청동기시대

의령 석곡리지석묘

석곡리유적은 1989년에 동아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한 지석묘군이다. 곡간지대에 형성된 소하천의 충적대지 상에 위치한 유적으로 지석묘 9기가 조사되었다. 지석묘의 형식은 5호, 7호의 경우, 묘실이 지상에 설치된 소위 '위석식'지석묘이며, 나머지는 묘실의 형태로 보아 개석식지석묘인 가능성이 크다. 축조순서는 매장시설의 형태와 축조방법으로 보아 지하에 석곽형 묘실을 갖추고 주위에 묘역시설을 한 지석묘가 선행하고 지하에 토광형 묘실을 갖춘 2호, 9호 지석묘가 축조된 이후 지상에 위석을 설치하여 묘실을 마련한 5호, 7호지석묘의 순서로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물은 홍도와 이단병식석검, 석촉 등이 출토되었으며, 묘역시설과 주변지역에서 공렬토기, 점토대토기, 홍도편 등이 출토되었으나 지석묘 축조 전후에 혼입된 것으로 보인다.



암각화 전경



8호 지석묘와 송국리형 주거지

함안 도항리선사유적

도항리선사유적은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1991년에 실시한 함안 말이산고분군의 암각화고분(現34호분) 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유적이다. 고분의 봉토 하층에서 지석묘 8기와 송국리형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다.

지석묘는 묘실의 축조방법에 따라 석곽형과 토광형으로 구분된다. 석곽형은 할석을 가로쌓기하여 만든 것과 단벽은 1매의 판석을 두고 장벽을 가로쌓기한 형태로 나뉜다. 토광형은 단순토광형과 이단토광형으로 구분되는데, 이단토광형은 2단의 묘광을 파고 하단에 매장주체부를 마련한 후 개석-할석-흙-상석의 순서로 축조하였다. 이 유형의 지석묘는 단순토광형보다 규모도 크고 매장주체부의 깊이도 훨씬 깊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얇은 판석을 가로쌓기하여 하부구조를 쌓은 석곽형의 경우는 비교적 빠른 단계에 속하는 기원전 5세기 이전의 것으로 보인다. 지석묘 내부의 출토유물은 석촉과 홍도 등이 있다.

한편 다호 지석묘의 상석에는 동심원문, 음각선 등이 그려져 있으며, 성혈도 다수 확인되었다. 이 암각화의 내용은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행위의 결과로 추정되며, 특히 동심원의 형태가 정연하고 원을 등분(等分)한 후 쪼아서 새긴 점 등은 뚜렷한 제작의도에 의해서 기획되고 창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원형인 송국리형주거지로 중앙의 타원형구덩이 외곽에 4개의 주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석촉과 지석, 반월형석도편이 출토되었으며, 지석묘 축조과정에서 파괴되어 지석묘와 주거지의 선후관계를 알 수 있었다.



Bronze Age 청동기시대

창원 덕천리유적



1호 지석묘 전경

이 유적은 경남대학교박물관이 1992년부터 1993년까지 발굴조사하여 지석묘 3기와 석관(석곽)묘 12기, 석개토광묘 5기 등과 환호유구를 확인하였다. 유적의 위치는 산기슭과 평지가 접하는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분묘는 I 지구에서 확인되었다. 지석묘는 3기가 조사되었는데, 대체로 남-북의 일정한 방향성을 갖추고 있었으며, 상석이나 묘광의 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묘광을 판 후 그 아래에 석곽형의 묘실을 축조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 지석묘 중 가장 규모가 큰 1호 지석묘를 중심으로 축조과정을 살펴보면, 8×6m의 묘광을 3단으로 파고, 4.5m 아래에 묘실을 축조하였다. 묘실 위에 5매의 개석을 덮고, 그 위에 적석을 하였다. 이후 다시 12매의 개석을 2겹으로 덮은 후 묘광 어깨선까지 흙을 채웠다. 그리고 적·황색토를 봉토처럼 50cm 가량 덮은 후 지석을 놓고 상석을 얹은 과정을 거쳤다. 1호 지석묘에서는 석축 22점과 관옥 6점, 목제품 2점의 출토유물이 확인되었다.

석곽(석관)묘는 모두 12기가 조사되었는데, 네 벽 모두 판상의 할석으로 가로 쌓기한 것과 가로쌓기와 세로쌓기를 혼용한 것, 강돌을 이용하여 쌓은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덕천리유적 발굴조사에서는 지석묘의 구조뿐만 아니라 유구 확인과정에서 고고학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먼저 청동기시대 분묘가 확인된 지역 주변에서 주거지가 발견되지 않아 당시 생활공간과 묘역을 분리한 공간분할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2·5호 지석묘에서 일반적인 지석묘의 구조와 차이가 있는 다단(多段)토광의 하부구조가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1호의 경우, 외곽에 별도의 묘역시설을 갖추고 있고, 묘실의 규모와 밀폐과정에서 나타난 특별한 배려를 통해 볼 때 피장자는 당시 이 지역의 지석묘 축조 집단 중에서 차별적인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계층으로 생각된다. 또한 1호 지석묘 주변에 시설된 묘역시설에서는 다량의 무문토기편과 석착, 숫돌 등이 석축의 모서리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견되어 의례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



Bronze Age 청동기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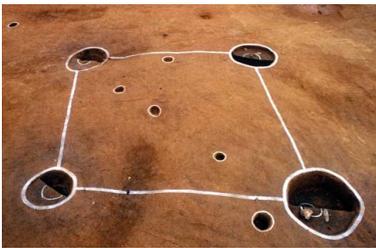
창원 남산유적

남산유적은 1997년에 창원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환호취락유적이다. 유적은 해발 100m 정도의 독립구릉 정상부에 입지하고 있다. 창원분지 내에는 낮은 구릉지대를 배경으로 세 개의 유적군이 형성되어 있는데, 남산유적도 그 중의 하나이며 선사시대로부터 인간 주거의 중심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청동기시대 유구는 타원형으로 구릉 정상부를 감싸며 돌아가는 환호와 그 내부 경사면에 축조된 주거지, 그리고 환호 바깥쪽에 자리잡은 패총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환호시설은 감싼 범위는 넓지 않으나 자체 규모는 지금까지 한반도 내에서 발견된 것 중 비교적 대규모에 속하는 것이다. 환호는 전체 주거지와 구(溝)를 타원형으로 둘러싸면서 규모가 큰 중심환호가 돌아가고 그 바깥쪽으로 2중 혹은 3중의 규모가 보다 작은 편에 속하는 외환호(外環濠)들이 둘러져 있다. 이러한 대규모 환호를 축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대규모 공동노동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남산 환호취락이 형성된 시기의 사회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성숙한 농경사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환호 밖 사면에는 소규모 폐기장구덩이 1개소, 동쪽 사면에는 소규모 패총 1개소가 위치하고 환호 중심으로부터 약 50m 떨어져 패총이 형성되어 있다.

주거지는 평면형태에 따라 원형, 장방형, 방형으로 나눌 수 있다. 원형주거지는 바닥 중앙에 타원형 구덩이를 파고 그 양단(兩端)에 주혈을 배치한 송국리형 주거지이다. 원형주거지는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소형에 속하는 것은 없으며, 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장방형주거지는 장축길이 약 8m 정도의 규모가 큰 것이 있으며, 대부분 화재로 폐기된 상태였다. 방형주거지들은 상대적으로 소형에 속하는 편인데, 장방형, 방형 등 방형계의 주거지는 예외없이 주거지 바닥 한쪽 편에 노지를 가지며 배수시설인 벽구가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원형주거지와 방형계주거지는 중복관계나 규모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주거지 외에 저장 시설로 보이는 소형의 타원형 또는 원형, 방형의 수혈들이 확인되었다.

남산유적에서는 많은 양의 석기와 토기가 출토되었다. 석기류는 농경사회의 제반작업, 즉 벌목(伐木), 목재가공, 굴지(掘地), 농경물 수확 등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종류의 석부와 반월형석도 등이 출토되었으며, 토기는 대형 저장용 옹형토기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58호 장방형 주거지



45호·51호 원형주거지 중복상태



환호 단면



창원 남산유적 전경



Bronze Age 청동기시대

사천 이금동유적

이금동유적은 사천 기능대학 건립부지에 해당된 지역으로 경남고고학연구소에서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가~'라'지구 등 모두 네 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청동기시대 유구는 1차 조사 시 '가'지구에서 주거지 22동, 주혈군, 수혈 9기, 구상유구 5기, 집석유구 등과 66기의 지석묘가 하나의 군집을 이루고 있는 분묘군이 확인되었다. '다'지구에서는 주거지 3동, 수혈 2기, 석관묘 3기가 조사되었으며, '라'지구에서는 구상유구가 확인되었다. 한편 2차 발굴조사에서는 대형건물지 2동과 주거지 2동, 수혈 4기, 주혈군 등이 조사되었다.

'가'지구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생활공간과 지석묘 중심의 무덤공간으로 나뉘며, 주거지는 평면형태에 따라 장방형주거지와 원형주거지로 구분된다. 장방형주거지는 군집양상을 보이지 않으며, 내부시설은 노지, 벽구, 주혈, 저장혈 등이, 유물은 공열토기, 석촉, 방추차 등이 확인되었다. 원형주거지는 송국리형으로 발형토기, 석촉, 지석, 삼각형석도, 무문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한편 2차 조사에서 확인된 고상건물은 주거지군의 남쪽에 위치하는데, 길이 11m와 29m의 건물이 중복되어 있다. 건물의 규모는 각각 정면 6칸, 측면 2칸과 정면 13칸, 측면 2칸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조사된 것 중 가장 대형에 해당되며, 주거지군과 지석묘 묘역의 중간지점에 위치한다.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주거지와 지석묘에서 출토된 것들과 동시대의 것으로 보고 있다.

청동기시대 분묘는 생활공간 내에서 상형석관묘, 석촉석관묘, 석개토팡묘 등이 확인되었으며, 무덤공간으로 분리된 구역에서는 지석묘군이 조사되었다. 이 지석묘군은 일정한 공간 안에 서로 연접하여 조성된 '벨트'를 형성하고 있으며, 동-서축으로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상석은 지석묘 하부구조에 비해 매우 적은 수가 확인되어 덮개돌의 기능보다는 묘표석(墓標石)의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하부구조 주변에는 대부분 묘역시설이 존재하는데, 장방형, 말각방형, 세장방형, 타원형 등 다양하며, 묘실은 상형석관, 석촉석관 등의 형태를 이룬다. 출토유물은 무문토기, 홍도, 채문토기 등의 토기류와 석검, 석촉, 비파형동검, 동촉, 관옥 등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비파형동검



60호 대형건물지 전경



사천 이금동 유적 전경



A군 1호 지석묘

Bronze Age 청동기시대

마산 진동유적

진동유적은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발굴 조사한 유적이다. 유적은 진동만에서 유입되는 태봉천 하구에 형성된 범람원에 위치하며, 유구는 자연제방과 배후사면 및 구하천 사이인 평탄면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 문화층은 상하 양층으로 구분되는데, 하층은 자갈층을 기반으로 분묘의 묘역을 조성하는데 활용하였으며, 상층은 흑갈색점질토가 다량 퇴적되면서 자연제방의 묘역과 배후사면의 경작지로 분리된다.

유구는 전체 길이 400m에 달하는 지석묘군 분포대와 석관묘 41기, 경작지, 야외노지 등이다. 대규모의 지석묘군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분포하며, 자연적으로 주변보다 높게 쌓인 자갈층을 정지하여 묘역을 조성한 특징을 보인다. 묘역은 가장자리에 구획석을 돌리고 내부에 부석(敷石), 적석(積石)을 하였고, 묘역의 중앙에는 매장주체부를 시설하였다. 묘역은 서로 연결하여 만들어진 것이 특징적이다. 지석묘 A군에는 원형과 장방형의 묘역을 가진 지석묘가 분포하는데, 원형 묘역을 가진 유구가 다수이며, 규모나 배치상의 우위를 차지한다. 이는 원형과 장방형이 혼재한 대부분의 유적에서 장방형의 묘역을 가진 지석묘가 규모나 배상의 우위를 차지하는 것과는 대치되는 것이다.

지석묘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A군 1호로 약 20m 정도의 대형 원형묘역을 가지고 있다. 이 지석묘는 묘역의 바깥에 설치된 주구, 봉토와 호석, 봉토상부의 층석(葺石), 단일 지상식 매장부로 구성되어 있다. 지석묘에서 층석의 존재는 창원 덕천리유적, 사천 이금동유적, 함안 도항리유적, 양산 소토리유적, 대전 비래동유적, 진안 여의곡 유적 등에서 확인된다.

한편 지석묘 E군은 지석묘 3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원형 또는 방형, 장방형의 묘역을 가지고 있다. 이 중 원형 묘역을 가진 유구가 가장 이른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큰 묘역시설을 갖춘 E-1호는 묘역의 형태는 장방형으로 25×11.5m으로 외곽에 장대석을 5~7단 쌓아 돌린 후 내부는 흙과 적석을 채워 전체 묘역이 평탄화된 지상식구조물로 만들었다.

석관묘는 가~라군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군(群) 내에서 소군집을 이루고 있다. 묘실의 축조방법에 따라 상형석관묘와 석축석관묘로 구분되는데, 상형석관묘는 판석의 조립형태에 따라 평면 'ㄱ·ㄴ·ㄷ'자형으로 나누어진다. 길이는 최소 40cm부터 최대 172cm로 다양하다. 석축형석관묘는 묘광을 얇게 파고, 측벽은 작은 냇돌과 잔자갈, 사질토를 혼용하여 무질서하게 축조한 것과 평면형태가 세장하고 석벽을 묘광벽에 밀착시켜 쌓은 것, 비교적 묘광이 넓고 깊으며 측벽을 정연하게 축조한 것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2006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된 추가조사에서는 청동기시대 상하로 형성된 밭과 수혈유구, 집석유구, 석관묘 등이 A구역에서 추가로 조사되었으며, B구역에서 청동기시대 분묘 5기가 새로이 추가조사되었다. A구역의 밭은 2개의 문화층에서 확인되었는데, 상부는 논 경작에 의해 삭평되어 흔적만 남아 있었으며,



토군 1호 지석묘

하층은 여러 개의 구획으로 이루어진 발이 조사되었다. 발 분포지역에서 확인된 집석유구와 수혈은 발과 관련된 유구로 판단된다. 한편 B구역에서 추가로 확인된 청동기시대 분묘 5기는 기본적으로 1차 조사에서 확인된 분묘들과 유사하나, B-2호분의 2단 묘광과 목관의 사용 등은 주변지역의 청동기시대 분묘들과의 비교연구에 좋은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구배치도



유적전경

한편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모두 51동이 조사되었는데, 대체로 낮은 구릉의 정상부와 사면에 조성되었다. 주거지는 평면형태에 따라 장방형, (타)원형, 방형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장방형주거지는 토광형의 노지를 갖추고 있으며, 바닥은 불다짐하였다. (타)원형과 방형주거지는 송국리형주거지들로 내부 중앙에 타원형 수혈을 파고 그 주위에 주혈 2~4개 정도를 배치하였다. 일부 주거지들에서는 주거지 내부에 벽구시설과 중앙수혈로 연결되는 내구를 설치한 예가 있으며, 이 중에서는 중앙수혈에서 다시 주거지 밖으로 외구를 마련한 것도 있다. 주거지 내부에서는 주로 무문토기편과 석촉, 반월형석도, 석검 병부편 등의 석기류 등이 소량 출토되었다.

고상건물지는 모두 7기가 조사되었다. 평면형태로 1×1칸, 2×2칸, 1×8칸 등의 구조가 확인되었는데, 한 칸의 크기는 주혈 간 거리로 보아 대체로 1.2~2m 정도의 크기로 주거의 목적보다는 저장을 위한 창고시설일 가능성이 크다.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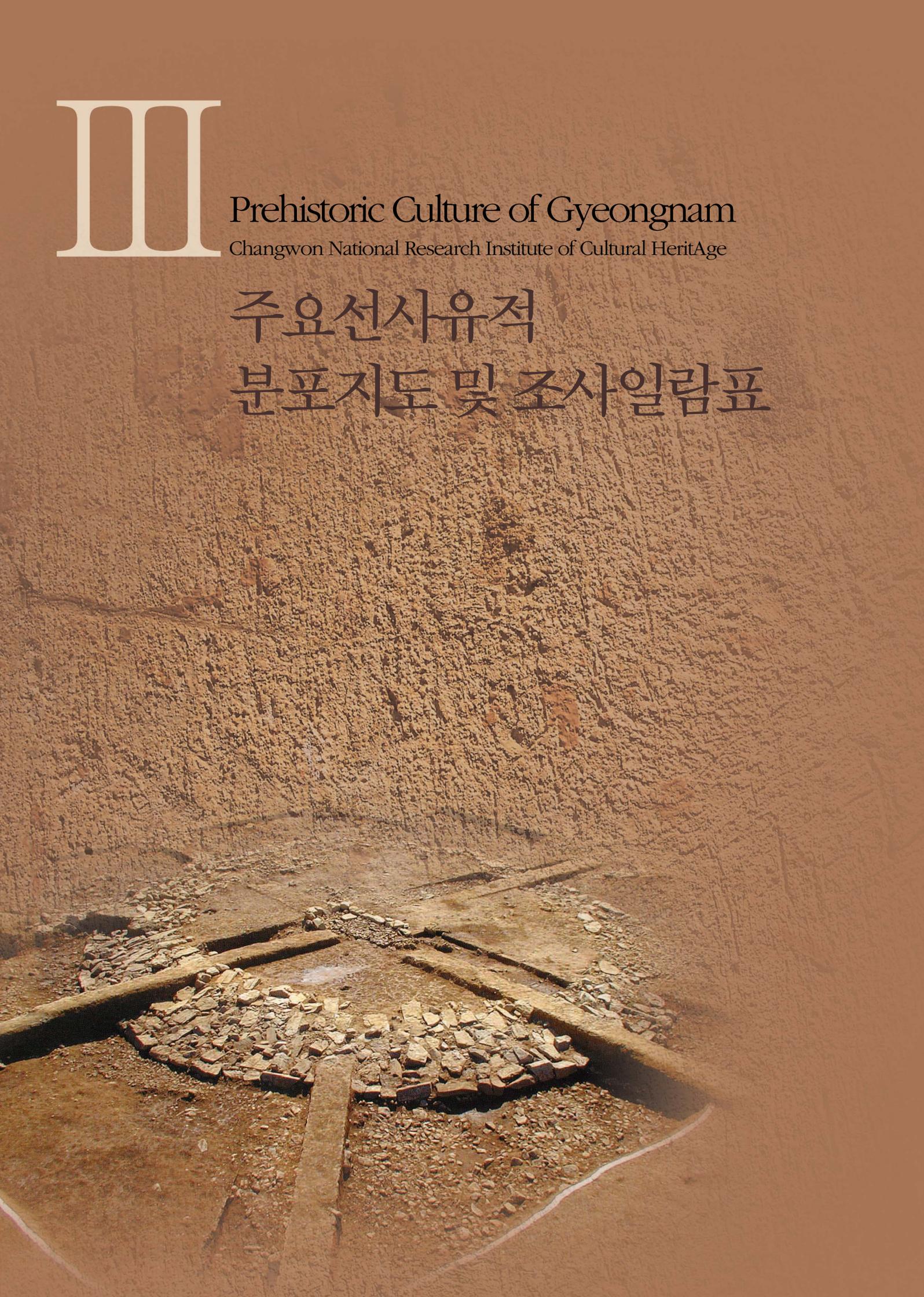
6

III

Prehistoric Culture of Gyeongnam

Changw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주요 선사유적 분포지도 및 조사일람표



Chapter 1.

Paleolithic Age

구석기시대

구석기시대 유적 및 분포도

Chapter 2.

Neolithic Age

신석기시대

신석기시대 패총 및 분포도

Chapter 3.

Bronze Age

청동기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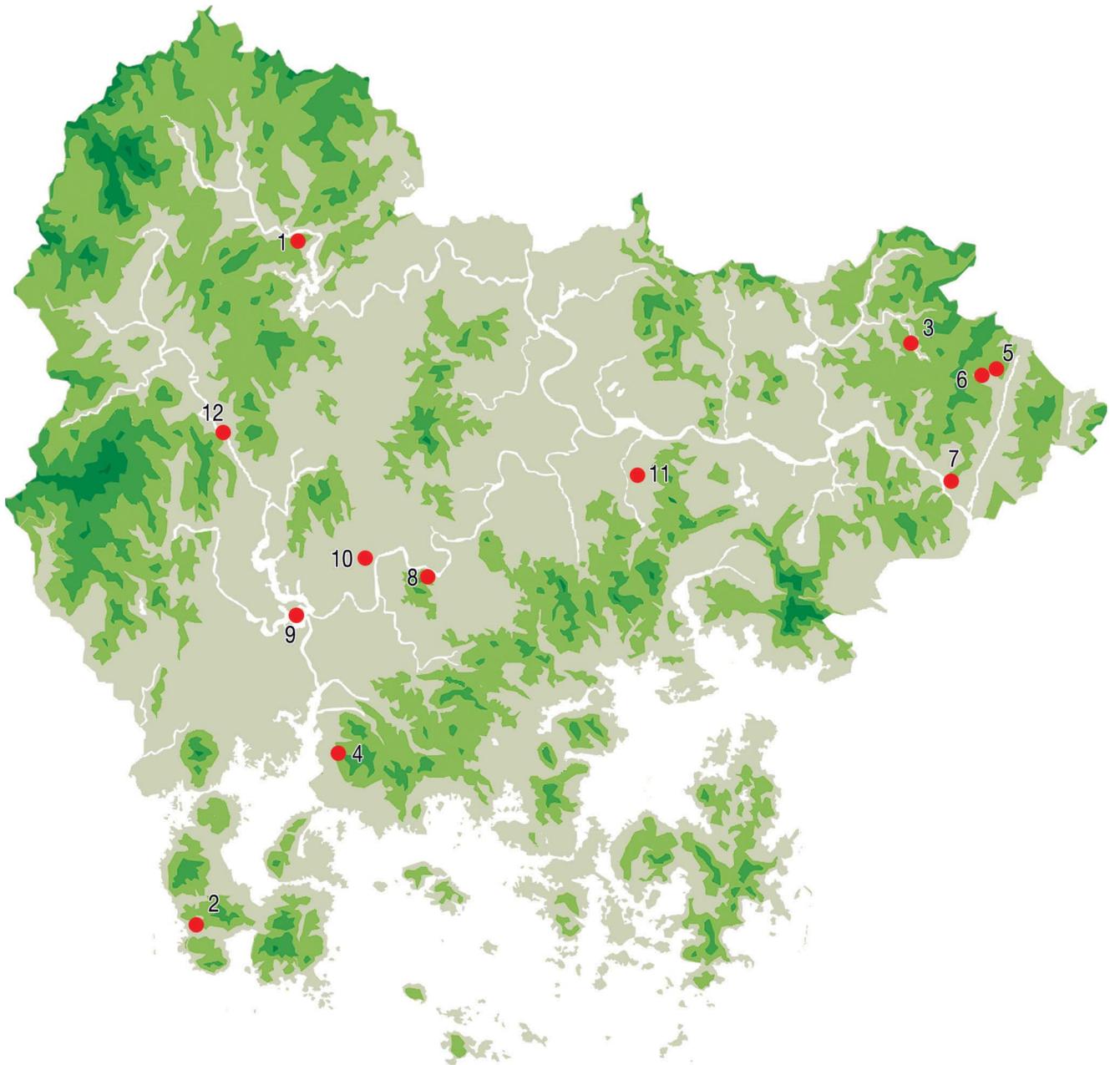
1. 생활유적 발굴조사 및 분포도
2. 지역별 지석묘 발굴조사 및 분포도

1. 구석기시대

Paleolithic Age

연 번	지역 명	소재지(읍면)	유 적 명	조사성격
1	거창	남상	임불리유적	발굴조사
2	남해	남면	평산리 구석기채집지	지표조사
3	밀양	단장	고례리 구석기유적	발굴조사
4	사천	이금동	이금동유적	발굴조사
5	양산	상북	외석리 외석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6		상북	내석리 내석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7		원동	화제리 화제 유물산포지2	지표조사
8	진주	대곡	마진리 유적5	지표조사
9		대평	내촌리 유적	발굴조사
10		집현	월평 유적1	발굴조사
11	함안	칠원	용산리 구석기채집지	지표조사
12	산청	산청	옥산리유적	발굴조사

구석기시대 유적 분포도



2. 신석기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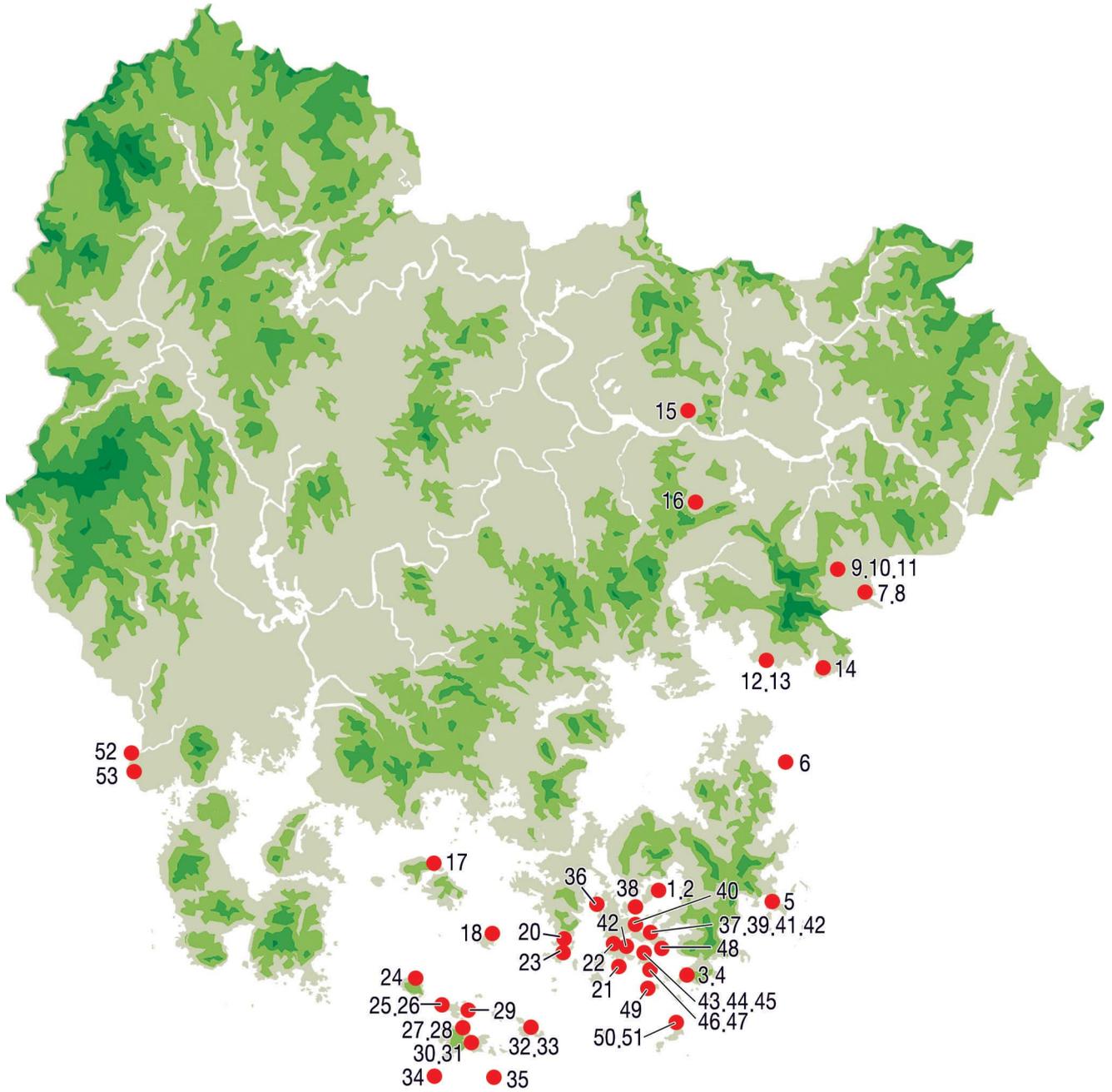
Neolithic Age

1. 패총유적 목록

연번	지역명	소재지(읍면)	유적명	조사성격
1	거제	거제	산달도 전등패총	지표조사
2	거제	거제	산달도 후등패총	지표조사
3	남부	남부	근포유물산포지	지표조사
4	남부	남부	대포패총	지표조사
5	일운	일운	내도유적	지표조사
6	장목	장목	이수도패총	지표조사
7	김해	김해	수가리 본동 패총	지표조사
8	김해	김해	수가리 패총	발굴조사
9	주촌	주촌	용덕 패총	지표조사
10	주촌	주촌	양동리 패총	지표조사
11	주촌	주촌	농소리 패총	발굴조사
12	진해	진해	수도패총 I	지표조사
13	진해	진해	수도패총 II	지표조사
14	안골	안골	안골포패총 I	지표조사
15	창녕	창녕	비봉리 패총	시굴조사
16	창원	창원	산남리 합산패총	지표조사
17	통영	통영	금평리 패총	지표조사
18	산양	산양	추도 패총	지표조사
19	산양	산양	연대도 패총	지표조사
20	산양	산양	전 신전리 패총	지표조사
21	산양	산양	미남리 패총	지표조사
22	산양	산양	송도 패총1	지표조사
23	산양	산양	연대도 패총	발굴조사
24	욕지	욕지	학리 패총	지표조사
25	욕지	욕지	산등 패총1	발굴조사
26	욕지	욕지	산등 패총2	지표조사
27	욕지	욕지	상노대도 패총	발굴조사

연번	지역명	소재지(읍면)	유적명	조사성격
28	통영	통영	하노대도 패총	지표조사
29	통영	통영	우도 올막개 패총	지표조사
30	욕지	욕지	욕지 패총2	지표조사
31	욕지	욕지	욕지 패총1	발굴조사
32	욕지	욕지	본촌 패총	지표조사
33	욕지	욕지	동두 패총1	지표조사
34	욕지	욕지	갈도 패총	지표조사
35	욕지	욕지	좌도 패총	지표조사
36	한산	한산	의항 패총	지표조사
37	한산	한산	장곡 유물산포지1	지표조사
38	한산	한산	동좌 패총1	지표조사
39	한산	한산	서좌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40	한산	한산	봉암 패총1	지표조사
41	한산	한산	추원 패총	지표조사
42	한산	한산	예곡 패총	지표조사
43	한산	한산	용초 작은마을 패총1	지표조사
44	한산	한산	용초 큰마을 패총	지표조사
45	한산	한산	호두 패총	지표조사
46	한산	한산	죽도 패총1	지표조사
47	한산	한산	죽도 패총2	지표조사
48	한산	한산	곡릉포 패총	지표조사
49	한산	한산	선유도 패총1	지표조사
50	한산	한산	소매물도 패총	지표조사
51	한산	한산	대매물도 패총	지표조사
52	하동	하동	목도리패총	지표조사
53	하동	하동	전도리패총	지표조사

신석기시대 패총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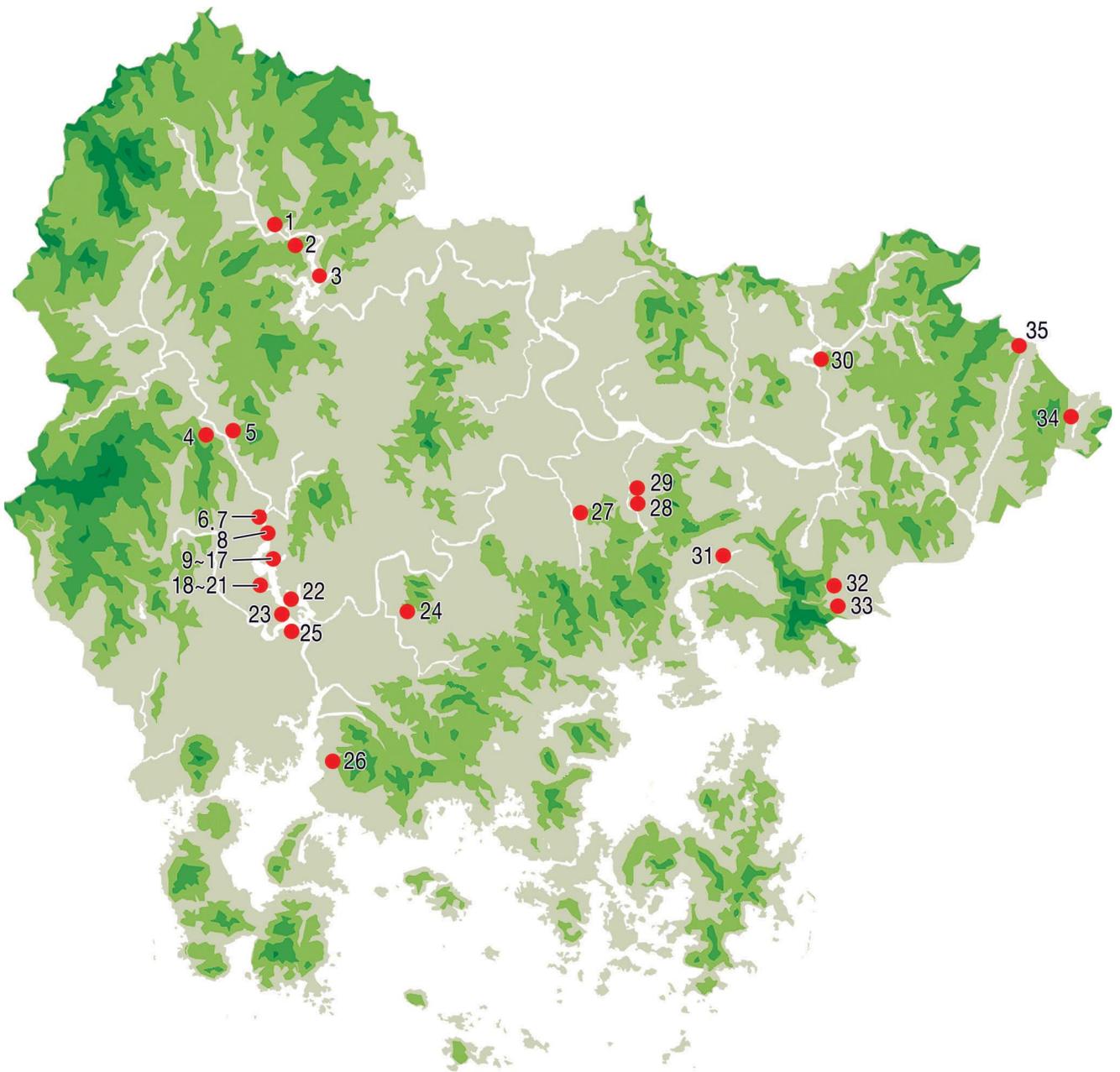
3. 청동기시대

Bronze Age

1. 생활유적 발굴조사 목록

연 번	지역 명	유적명	조사년도	조사기관	주거지수
1	거창	대야리	1987·88	동의대학교박물관	25
2		임불리	1988	신라대학교박물관	2
3	합천	저포리 E지구	1986~1987	부산대학교박물관	7
4	산정	옥산리	1996~1997	부산대학교·경상대학교박물관	117
5		묵곡리	1996	경남대학교박물관	7
6		사월리 환호	1996	부경대학교박물관	10
7		사월리	1996	동의대학교박물관	19
8		소남리	1995~1997	신라대학교박물관	27
9	진주	대평리 어은2지구	1997~1998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50
10		대평리 어은1지구	1997~1999	경남대학교박물관	120
11		대평리 옥방1지구	1997~1999	국립진주박물관·경남고고학연구소	95
12		대평리 옥방2·3지구	1997~1998	경상대학교박물관	30
13		대평리 옥방4지구	1996~1999	동의대학교박물관	65
14		대평리 옥방5지구	1997~1999	선문대학교 역사학과	64
15		대평리 옥방7지구	1999	경남문화재연구원	21
16		대평리 옥방8지구	1999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
17		대평리 옥방9지구	1999	경남고고학연구소	10
18		상촌리 B지구	1996~1998	동아대학교박물관	3
19		상촌리 C지구	1997	한양대학교박물관	3
20		상촌리 D지구	1997~1998	건국대학교박물관	15
21		상촌리 E지구	1996~1997	대전보건대학박물관	39
22		귀곡동 대촌	1997	부산북천박물관	12
23		내촌리	1996~1997	동아대학교박물관	1
24		이곡리유적	2005~2006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5
25	사천	본촌리	1995	경상대학교박물관	17
26		이금동	1998~1999	경남고고학연구소	22
27	함안	도항리	1991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
28		가마실	1997~1998	창원대학교박물관	5
29		오곡리	1994	창원대학교박물관	4
30	밀양	살내	2001~2002	경남발전연구원	19
31	창원	남산	1997	창원대학교박물관	20
32	김해	대청	1995~1996	부산대학교박물관	2
33		율하리	2005~2006	경남발전연구원	51
34	양산	평산리	1996	동아대학교박물관	7
35		신평	1992	부산대학교박물관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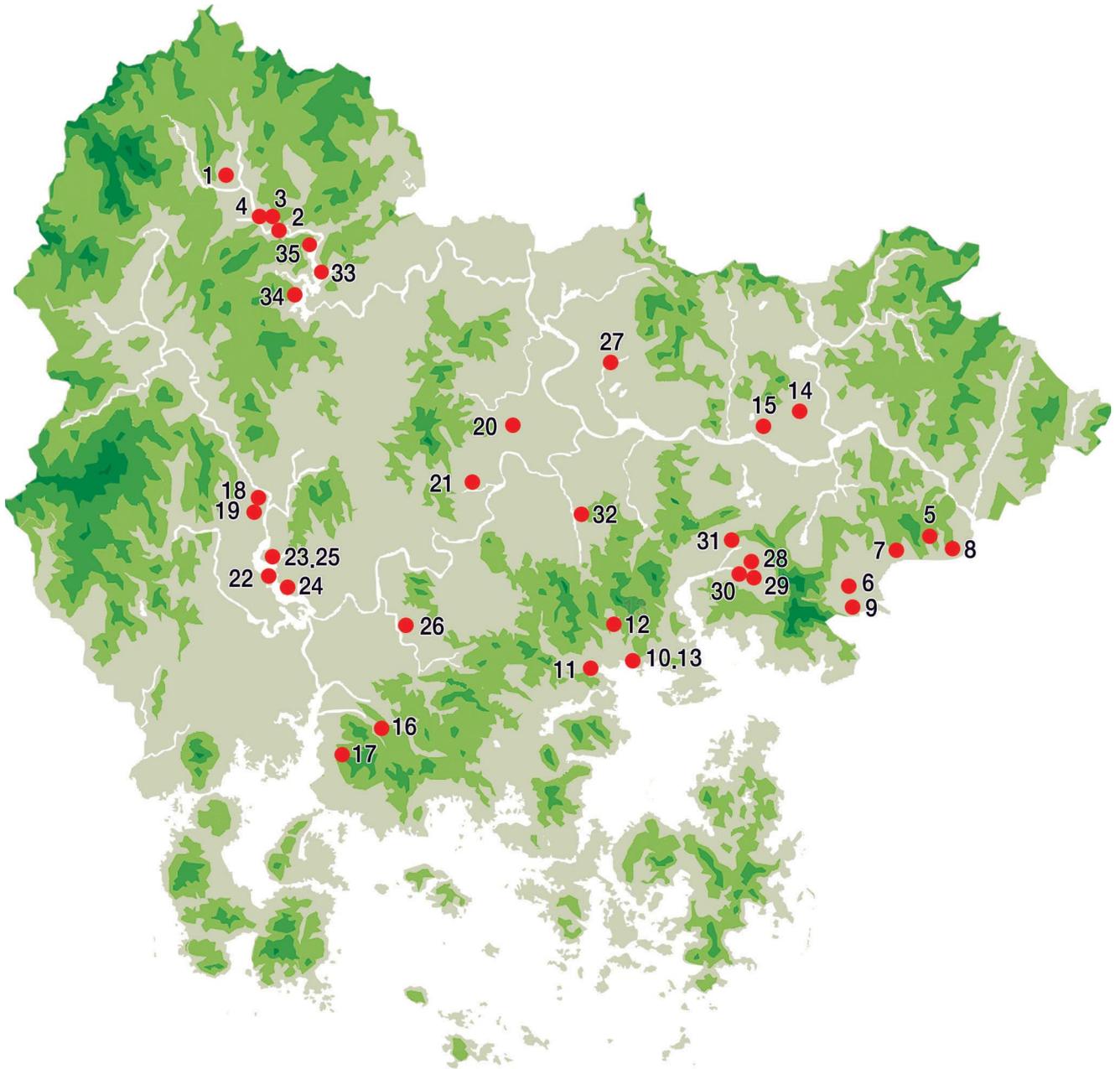
청동기시대 주거지(발굴조사) 분포도



2. 지식묘 발굴조사 목록

연 번	지역 명	유적명	조사기관(조사자)	조사연도	주거지수
1	거창	내오리	하인수	1989	1
2		대야리	동의대학교박물관	1986~1987	4
3		산포	동의대학교박물관	1986~1987	33
4		평촌	동의대학교박물관	1986~1987	3
5	김해	회현리	조선총독부	1920, 1934	
6		무계리	김원룡	1963	1
7		내동	김정학(부산대학교박물관)	1976	3
8		부원동	동아대학교박물관	1981	1
9		울하리	경남발전연구원	2005~2006	(90)
10	마산	진동리	심봉근	1980	1
11		곡안동	국립박물관	1967	1
12		신촌리	국립중앙박물관	1983	3
13		진동	경남발전연구원	2005~2006	
14	밀양	남전리	심봉근	1979	1
15		부곡-수산간 4차선 도로 확 · 포장공사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5	4
16	사천	소곡리	단국대학교박물관	1969	5
17		이금동	경남고고학연구소	1998~1999	66
18	산청	강루리	국립문화재연구소	1981	6
19		사월리	동의대학교박물관	1966	9
20	의령	석곡리	동아대학교박물관	1989	9
21		서동리	국립장원문화재연구소	2004	1
22	진주	상촌리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박물관	1996~1998	2
23		옥방1지구	경남고고학연구소	1997~1999	1
24		귀곡동	세종대학교박물관, 부산북천박물관	1996~1997	3
25		대평리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75~1980	16
26		이곡리유적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5~2006	14
27	창녕	유리	국립박물관	1967	2
28	창원	상남동	국립장원문화재연구소	1998	8
29		가음정동	국립장원문화재연구소	1993	1
30		외동	有光教一	1929	1
31		덕천리	경남대학교박물관	1992~1993	3
32	합안	도항리	국립장원문화재연구소	1991	8
33	합천	저포E지구	부산대학교박물관	1986~1987	8
34		역평	동의대학교박물관	1986~1987	14
35		봉계리	동아대학교박물관	1987~1988	1

청동기시대 지식묘 발굴조사 분포도



IV

Prehistoric Culture of Gyeongnam

Changw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경남지역 선사유적 현황



거제시 · 거창군 · 고성군 · 김해시 · 남해군 · 마산시 · 밀양시 · 사천시 · 산청군 · 양산시
의령군 · 진주시 · 진해시 · 창녕군 · 창원시 · 통영시 · 하동군 · 함안군 · 함양군 · 합천군



1) 거제시

연번	소재지(읍면)	시 대	유 적 명 조 사	성 격	유 적 종 류	유 구 수
1	거제	신석기	산달도 전등패총	지표조사	패총	
2	거제	신석기	산달도 후등패총	지표조사	패총	
3	거제	청동기	골말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4	거제	청동기	동림리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12
5	거제	청동기	외간리지석묘군 I	지표조사	지석묘	12
6	거제	청동기	외간리지석묘군 II	지표조사	지석묘	4
7	거제	청동기	명진리 유적	지표조사	주거지	
8	거제	청동기	서상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4
9	거제	청동기	동산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0	거제	청동기	소량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2
11	거제	청동기	옷바위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4
12	남부	신석기	근포유물산포지	지표조사	패총	
13	남부	신석기	대포패총	지표조사	패총	
14	남부	청동기	함목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2
15	남부	청동기	다대리지석묘 I	지표조사	지석묘	9
16	남부	청동기	다대리지석묘 II	지표조사	지석묘	6
17	남부	청동기	다포리지석묘 I	지표조사	지석묘	6
18	남부	청동기	다포리지석묘 II	지표조사	지석묘	36
19	남부	청동기	여차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12
20	남부	청동기	저구리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5
21	남부	청동기	대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22	남부	청동기	명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23	남부	청동기	탑포리지석묘군 I	지표조사	지석묘	3
24	남부	청동기	탑포리지석묘군 II	지표조사	지석묘	3
25	능포	청동기	능포동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2
26	덕포	청동기	덕포동유적	시굴조사	주거유적	
27	동부	청동기	산양리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3
28	동부	청동기	영복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2
29	동부	청동기	학동리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12
30	둔덕	청동기	술역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2

31	둔덕	청동기	술역리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32	둔덕	청동기	학산리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5
33	둔덕	청동기	영등포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34	마전	청동기	마전동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35	사등	청동기	광리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36	사등	청동기	광리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37	사등	청동기	두동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20
38	사등	청동기	성내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14
39	사등	청동기	오량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2
40	사등	청동기	가조도 실전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14
41	사등	청동기	가조도 신교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4
42	사등	청동기	가조도 신교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43	사등	청동기	청곡리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5
44	신현	선 사	수월리 석기재료산지	지표조사	기타	
45	신현	청동기	수월리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7
46	신현	청동기	수양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19
47	아주	청동기	아주동지석묘군	발굴조사	지석묘	16
48	아주	청동기	내곡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6
49	연초	청동기	도론골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50	연초	청동기	대촌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3
51	연초	청동기	중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5
52	연초	청동기	중리 무문토기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53	연초	청동기	덕치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2
54	연초	청동기	문암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55	연초	청동기	명하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2
56	연초	청동기	죽동 지석묘 상석산지	지표조사	지석묘	
57	연초	청동기	죽도삼거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2
58	연초	청동기	야부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7
59	연초	청동기	송정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2
60	연초	청동기	중촌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4
61	연초	청동기	이목리 유적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62	연초	청동기	이목리 석관묘 유적	지표조사	석관묘	
63	연초	청동기	이남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18
64	연초	청동기	한내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6
65	연초	청동기	한곡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2
66	일운	신석기	내도유적	지표조사	패총	
67	일운	청동기	구조라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12
68	일운	청동기	망치리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13

69	일운	청동기	양화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6
70	일운	청동기	소동리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10
71	일운	청동기	옥림리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35
72	일운	청동기	내도유적	지표조사	지석묘	6
73	일운	청동기	공고지유적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74	일운	청동기	와현리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3
75	일운	청동기	신촌석곽묘유적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76	일운	청동기	지심도유적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77	일운	청동기	지세포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4
78	장목	신석기	이수도패총	지표조사	패총	
79	장목	청동기	황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8
80	장목	청동기	관포리 토기산포지	시굴조사	유물산포지	
81	장목	청동기	간곡 유적	시굴조사	지석묘	3
82	장목	청동기	대금리 토기산포지	시굴조사	유물산포지	
83	장목	청동기	농소리 유적	발굴조사중	지석묘	
84	장목	청동기	대금리 지석묘군 I	지표조사	지석묘	3
85	장목	청동기	대금리 지석묘군 II	지표조사	지석묘	9
86	장목	청동기	궁농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87	장목	청동기	궁농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88	장목	청동기	신촌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89	장목	청동기	답답고개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90	장목	청동기	송진포 아랫마을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6
91	장목	청동기	송진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26
92	장목	청동기	상포 무문토기산포지	시굴조사	유물산포지	
93	장목	청동기	울천리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6
94	하청	신석기	칠천도 연구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95	하청	신석기	칠천도 장곶 토기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96	하청	신석기	칠천도 옥계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4
97	하청	청동기	사환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98	하청	청동기	와항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99	하청	청동기	창동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00	하청	청동기	하청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2
101	하청	청동기	하청리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02	하청	청동기	성동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3

2) 거창군

연번	소재지(읍면)	시 대	유 적 명 조 사	성 격	유 적 종 류	유 구 수
1	가조	청동기	장기리 창촌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4
2	거창	청동기	동변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4
3	남상	청동기	무촌리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2
4	남상	구석기~청동기	임불리유적	발굴조사	생활유적	14
5	남하	청동기	대야리유적	발굴조사	생활유적	25
6	남하	청동기	무릉리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11
7	남하	청동기	둔마리 신촌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4
8	남하	청동기	지산리 금천원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11
9	남하	청동기	지산리 신기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6
10	남하	청동기	지산리 봉구정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4
11	북상	청동기	농산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12	웅양	청동기	석정리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4
13	주상	청동기	내오리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3

3) 고성군

연번	소재지(읍면)	시 대	유 적 명 조 사	성 격	유 적 종 류	유 구 수
1	개천	청동기	예성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2	개천	청동기	청광리입석	지표조사	입석	1
3	거류	청동기	가려리지석묘 I	지표조사	지석묘	1
4	거류	청동기	가려리지석묘 II	지표조사	지석묘	1
5	거류	청동기	감서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6	거류	청동기	거산리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7	거류	청동기	거산리지석묘 I	지표조사	지석묘	1
8	거류	청동기	거산리지석묘 II	지표조사	지석묘	1
9	거류	청동기	거산리지석묘 III	지표조사	지석묘	1
10	거류	청동기	거산리지석묘 IV	지표조사	지석묘	1
11	거류	청동기	거산리석관묘 I	지표조사	석관묘	1
12	거류	청동기	거산리석관묘 II	지표조사	석관묘	1
13	거류	청동기	송산리철성바위	지표조사	지석묘	7
14	거류	청동기	용산리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2
15	거류	청동기	은월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16	거류	청동기	은월리지석묘군 I	지표조사	지석묘	3
17	거류	청동기	은월리지석묘군 II	지표조사	지석묘	7
18	고성	청동기	교사리 선사시대분묘	발굴조사	석관묘	2
19	고성	청동기	교사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20	고성	청동기	교사리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5
21	고성	청동기	대독리만립산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22	고성	청동기	덕선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23	고성	청동기	무량리유물산포지 I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24	고성	청동기	신월리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25	고성	청동기	월평리유물산포지 I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26	고성	청동기	월평리 철성바위	지표조사	지석묘	4
27	고성	청동기	수남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28	구만	청동기	광덕리지석묘군 I	지표조사	지석묘	3
29	구만	청동기	광덕리지석묘군 II	지표조사	지석묘	7
30	구만	청동기	용와리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4

31	구만	청동기	효락리주거지	지표조사	주거지	
32	구만	청동기	효락리지석묘군 I	지표조사	지석묘	8
33	구만	청동기	효락리지석묘군 II	지표조사	지석묘	2
34	구만	청동기	효락리지석묘군 III	지표조사	지석묘	2
35	구만	청동기	효락리지석묘 I	지표조사	지석묘	1
36	구만	청동기	효락리지석묘 II	지표조사	지석묘	1
37	대가	청동기	금산리지석묘군 I	지표조사	지석묘	2
38	대가	청동기	금산리지석묘군 II	발굴조사	지석묘	2
39	대가	청동기	금산리지석묘군 III	발굴조사	지석묘	6
40	대가	청동기	금산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41	대가	청동기	암전리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3
42	대가	청동기	유흥리지석묘 I	지표조사	지석묘	1
43	대가	청동기	유흥리지석묘 II	지표조사	지석묘	1
44	대가	청동기	유흥리지석묘 III	지표조사	지석묘	1
45	대가	청동기	유흥리지석묘 IV	지표조사	지석묘	1
46	대가	청동기	유흥리지석묘 V	지표조사	지석묘	1
47	대가	청동기	유흥리지석묘군 I	지표조사	지석묘	2
48	대가	청동기	유흥리지석묘군 II	지표조사	지석묘	3
49	동해	청동기	내산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50	동해	청동기	양촌리지석묘군 I	지표조사	지석묘	2
51	동해	청동기	양촌리지석묘군 II	지표조사	지석묘	2
52	동해	청동기	양촌리지석묘군 III	지표조사	지석묘	4
53	동해	청동기	양촌리지석묘군 IV	지표조사	지석묘	3
54	마암	청동기	보전리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2
55	마암	청동기	석마리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10
56	마암	청동기	신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57	삼산	청동기	미룡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3
58	삼산	청동기	장치리지석묘 I	지표조사	지석묘	1
59	삼산	청동기	장치리지석묘 II	지표조사	지석묘	1
60	상리	청동기	척변정리지석묘군	시굴조사	지석묘	5
61	상리	청동기	무선리주거지	발굴조사	주거지	4
62	상리	청동기	무선리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9
63	상리	청동기	척변정리지석묘군	발굴조사	지석묘	5
64	영오	청동기	오서리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65	영현	청동기	신분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66	영현	청동기	신분리유물산포지 V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67	영현	청동기	신분리 입석	지표조사	입석	
68	하이	청동기	덕호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69	하이	청동기	사곡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70	하이	청동기	석지리주거지	지표조사	주거지	1
71	하이	청동기	석지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4
72	하이	청동기	석지리지석묘 I	지표조사	지석묘	1
73	하이	청동기	석지리지석묘 II	지표조사	지석묘	1
74	하이	청동기	석지리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2
75	하이	청동기	월흥리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4
76	하이	청동기	월흥리유물산포지 I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77	하이	청동기	월흥리유물산포지 II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78	하일	청동기	송천리술섬석관묘	발굴조사	석관묘	11
79	하일	청동기	송천리술섬석관묘	발굴조사	석관묘	1
80	하일	청동기	오방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3
81	하일	청동기	오방리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5
82	하일	청동기	학림리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7
83	하일	청동기	학림리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84	회화	청동기	녹명리주거지	지표조사	주거지	1
85	회화	청동기	봉동리선사유적 I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86	회화	청동기	봉동리선사유적 II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87	회화	청동기	어신리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5.

4) 김해시

연번	소재지(읍면)	시 대	유적명 조사	성 격	유적종류	유구수
1	구산	청동기	구산동 무문토기 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2	구산	청동기	구지봉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3	내동	청동기	내동 지석묘	발굴조사	지석묘	3
4	대동	청동기	지라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6
5	대동	청동기	감내리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6	대성	청동기	대성동고분군	지표조사	지석묘 및 생활유적	
7	명법	청동기	명법1동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2~3
8	명법	청동기	명법2동 지석묘1	지표조사	지석묘	4~5
9	명법	청동기	명법2동 지석묘2	지표조사	지석묘	5
10	명법	청동기	명법2동 무문토기 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1	봉황	청동기	회현리 지석묘	발굴조사	지석묘	5
12	삼계	청동기	신명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3	상동	청동기	감로리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14	서상	청동기	서상동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15	서상	청동기	수로왕릉내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2
16	장유	신석기	수가리 본동 패총	지표조사	패총	
17	장유	신석기	수가리 패총	발굴조사	패총	
18	장유	청동기	광석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19	장유	청동기	무계리 지석묘	발굴조사	지석묘	1
20	장유	청동기	유하리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21	장유	청동기	대청유적	발굴조사	생활유적	
22	장유	청동기	율하리지석묘	발굴조사	지석묘, 석관묘, 생활유적 등	
23	주촌	신석기	용덕 패총	지표조사	패총	
24	주촌	신석기	양동리 패총	지표조사	패총	
25	주촌	신석기	농소리 패총	발굴조사	패총	
26	주촌	청동기	내연 지석묘1	지표조사	지석묘	2
27	주촌	청동기	내연 지석묘2	지표조사	지석묘	1
28	주촌	청동기	연지 무문토기 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29	주촌	청동기	연지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30	주촌	청동기	원지리 국제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8
31	주촌	청동기	용곡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32	주촌	청동기	양동리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33	주촌	청동기	망덕리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34	진영	청동기	진영리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35	진영	청동기	용성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5) 남해군

연번	소재지(읍면)	시 대	유 적 명 조 사	성 격	유 적 종 류	유 구 수
1	고현	청동기	대사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4
2	고현	청동기	탑동 추정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3	고현	청동기	날끝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6
4	고현	청동기	칠성당끝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5	남면	구석기	평산리 구석기채집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6	남면	청동기	배들이들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15
7	남면	청동기	우지막골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6
8	남면	청동기	차양골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4
9	남면	청동기	오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3
10	남면	청동기	오독산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2
11	남해	청동기	심천리 마제석검 출토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2	남해	청동기	심천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3
13	남해	청동기	평현리 마제석검 출토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4	남해	청동기	평현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7
15	남해	청동기	외금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5
16	남해	청동기	봉성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5
17	삼동	청동기	골고랑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8	상주	청동기	양아리 암각화Ⅱ	지표조사	암각	
19	서면	청동기	대정리 무문토기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20	서면	청동기	서호리 지석묘2	지표조사	지석묘	3
21	서면	청동기	서호리 지석묘1	지표조사	지석묘	1
22	이동	청동기	남해 다정리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6
23	이동	청동기	석평 추정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24	창선	청동기	당항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13
25	창선	청동기	서대리 지석묘군2	지표조사	지석묘	
26	창선	청동기	서대리 지석묘군1	발굴조사	지석묘	2
27	창선	청동기	연곡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28	창선	청동기	토성 마제석촉 채집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29	창선	청동기	부윤리 물뚝 마제석부 채집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30	창선	청동기	상신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31	창선	청동기	탁촌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2
32	창선	청동기	독망골 마제석부 출토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6) 마산시

연번	소재지(읍면)	시 대	유 적 명 조 사	성 격	유 적 종 류	유 구 수
1	가포	청동기	가포동유적	발굴조사	제사유적	2
2	구산	청동기	반동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7
3	내서	청동기	안성리 마제석검 출토지	지표조사	석관묘	
4	진동	청동기	진동리 청동기시대 유물출토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5	진동	청동기	사동리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6	진동	청동기	진동유적	발굴조사	지석묘, 석관묘, 생활유적 등	
7	진동	청동기	다구리 마제석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8	진동	청동기	고현리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9	진동	청동기	송도 마제석검 출토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0	진북	청동기	신촌리 유적	발굴조사	분묘및 생활유적	30
11	진북	청동기	진북면 일반산업단지내 유적	지표조사	생활유적	
12	진북	청동기	망곡리 연동유적	지표조사	지석묘	
13	진전	청동기	고사리 큰다물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14	진전	청동기	고사리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15	진전	청동기	금암리 마제석검 출토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6	진전	청동기	곡안리 지석묘군	발굴조사	지석묘	9
17	진전	청동기	봉곡리 유물산포지2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8	진전	청동기	곡안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9
19	진전	청동기	오서리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20	진전	청동기	이명리 입석	지표조사	입석	3

7) 밀양시

연번	소재지(읍면)	시 대	유 적 명 조 사	성 격	유 적 종 류	유 구 수
1	내동	청동기	내2동 신촌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2	내동	청동기	노룡암	지표조사	지석묘	1
3	단장	구석기	고례리 구석기유적	발굴조사	한테유적	
4	단장	청동기	태룡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2
5	단장	청동기	태룡리 무문토기 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6	무안	청동기	신법리석관묘	지표조사	석관묘	1
7	무안	청동기	삼태리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8	무안	청동기	내진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29
9	무안	청동기	판곡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4
10	무안	청동기	판곡리석관묘군	지표조사	석관묘	1
11	무안	청동기	연상리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13
12	무안	청동기	연상리 무문토기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3	부북	청동기	전사포리 선사유적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4	부북	청동기	후사포리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11
15	부북	청동기	제대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3
16	부북	청동기	덕곡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2
17	부북	청동기	덕곡리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8	부북	청동기	청운리 도촌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11
19	부북	청동기	춘화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20	부북	청동기	춘화리 추정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21	부북	청동기	월산리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4
22	산내	청동기	송백리지석묘1	지표조사	지석묘	4
23	산내	청동기	송백리지석묘2	지표조사	지석묘	7
24	산내	청동기	송백리지석묘3	지표조사	지석묘	3
25	산내	청동기	임고리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8
26	산내	청동기	가인리지석묘군1	지표조사	지석묘	5
27	산내	청동기	가인리지석묘군2	지표조사	지석묘	3
28	산내	청동기	원서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2
29	산외	청동기	금천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3
30	산외	청동기	남기리 정문마을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2

31	삼랑진	청동기	검세리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7
32	삼랑진	청동기	임천리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9
33	삼랑진	청동기	용성리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3
34	삼랑진	청동기	용성리 칠성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9
35	삼랑진	청동기	올동리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36	삼랑진	청동기	청룡리 학동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37	상남	청동기	기산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38	상남	청동기	예림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2
39	상남	청동기	마산리고분군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40	상남	청동기	조음리 서당날 무문토기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41	상동	청동기	금산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2
42	청도	청동기	두곡리 선사유적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43	청도	청동기	인산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3
44	초동	청동기	범평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45	초동	청동기	신호리지석묘군1	지표조사	지석묘	2
46	초동	청동기	신호리지석묘군2	지표조사	지석묘	4
47	초동	청동기	봉황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7
48	초동	청동기	부곡-수산간 4차선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유적	발굴조사	지석묘	4
49	하남	청동기	수산리 동촌패총	지표조사	패총	
50	하남	청동기	남전리지석묘1	지표조사	지석묘	8
51	하남	청동기	남전리지석묘2	지표조사	지석묘	10
52	하남	청동기	남전리지석묘3	지표조사	지석묘	6
53	하남	청동기	양동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2
54	하남	청동기	수산리 동촌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3
55	활성	청동기	살내유적	발굴조사	생활유적	19
56	활성	청동기	활성동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3

8) 사천시

연번	소재지(읍면)	시 대	유 적 명 조 사	성 격	유 적 종 류	유 구 수
1	곤명	청동기	초량리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2
2	곤명	청동기	송림리 선사유적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3	곤명	청동기	본초리유적	발굴조사	생활유적	17
4	늑도	청동기	삼천포늑도패총	발굴조사	패총	
5	대방	청동기	대방동유물산포지 I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6	동림	청동기	아랫동림무문토기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7	봉남	청동기	봉남동토기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8	사남	청동기	방지리 선사유적	발굴조사	패총	
9	사남	청동기	화전리 병둔마을 선돌	지표조사	입석	
10	사남	청동기	화전리 병둔마을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2
11	사남	청동기	가천리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12	사등	청동기	무문토기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3	사천	청동기	구암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14	사천	청동기	구암리백산골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15	사천	청동기	두량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16	늑도	청동기	초량도토기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7	서포	청동기	비토리 무문토기산포지 I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8	서포	청동기	비토리 무문토기산포지 II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9	신벽	청동기	신벽동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5
20	신벽	청동기	신벽동지석묘 I	지표조사	지석묘	2
21	신벽	청동기	신벽동지석묘 II	지표조사	지석묘	3
22	신벽	청동기	신벽동토기산포지 III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23	용강	청동기	용강동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24	용현	청동기	통양리 토기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25	용현	청동기	신복리지석묘군 I	지표조사	지석묘	3
26	용현	청동기	신복리지석묘군 II	지표조사	지석묘	4
27	용현	청동기	신복리 선사유적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28	용현	청동기	구월리 금구마을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3
29	용현	청동기	구월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3
30	용현	청동기	송지리지석묘 I	지표조사	지석묘	1

31	용현	청동기	송지리지석묘군Ⅱ	지표조사	지석묘	3
32	용현	청동기	덕곡리 선사유적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33	용현	청동기	덕곡리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15
34	이금	청동기	이금동지석묘군Ⅰ	지표조사	지석묘	6
35	이금	청동기	이금동유적	발굴조사	지석묘 및 생활유적 등	
36	이금	청동기	이금동지석묘군Ⅱ	지표조사	지석묘	6
37	이금	구석기	이금동구석기유적	발굴조사		
38	정동	청동기	예수리 선사유적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39	정동	청동기	수청리 선사유적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40	정동	청동기	감곡리 선사유적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41	정동	청동기	소곡리 선사유적	발굴조사	지석묘	5
42	좌룡	청동기	좌룡동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2
43	죽림	청동기	죽림동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3
44	죽림	청동기	죽림동무문토기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45	죽림	청동기	죽림동 토기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9) 산청군

연번	소재지(읍면)	시 대	유적명 조사	성 격	유적종류	유구수
1	금서	신석기	매촌 즐문토기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2	금서	청동기	사평 무문토기유적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3	금서	청동기	주상 무문토기유적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4	금서	청동기	매촌 지식묘	지표조사	지식묘	2
5	금서	청동기	평촌 지식묘	지표조사	지식묘	2
6	금서	청동기	사평 지식묘군	지표조사	지식묘	
7	금서	청동기	창주 지식묘	지표조사	지식묘	1
8	단성	신석기	상촌 즐문토기유적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9	단성	청동기	강루리 무문토기유적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0	단성	청동기	배양 무문토기유적(1)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1	단성	청동기	배양 무문토기유적(2)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2	단성	청동기	강루리 지식묘	발굴조사	지식묘	2
13	단성	청동기	남산 지식묘	지표조사	지식묘	1
14	단성	청동기	배양 지식묘	지표조사	지식묘	8
15	단성	청동기	상촌 지식묘	지표조사	지식묘	2
16	단성	청동기	방목 지식묘	지표조사	지식묘	1
17	단성	청동기	입석리 입석	지표조사	입석	2
18	단성	청동기	시월리유적	발굴조사	지식묘 및 생활유적	28
19	단성	청동기	시월리환호유적	발굴조사		
20	단성	청동기	소남리유적	발굴조사	생활유적	27
21	산청	구석기~조선	옥산리유적	발굴조사	생활유적	117
22	산청	선사시대	묵곡리 선사유적	발굴조사	생활유적	
23	산청	선사시대	장재동 선사유적	지표조사	선사유적	
24	산청	청동기	한밭 무문토기유적	지표조사	생활유적	
25	산청	청동기	내리 지식묘	지표조사	지식묘	2
26	산청	청동기	구생기 지식묘	지표조사	지식묘	1
27	산청	청동기	묵곡리 지식묘	지표조사	지식묘	1
28	산청	청동기	모고리 지식묘	지표조사	지식묘	1
29	산청	청동기	범학리 지식묘	지표조사	지식묘	3
30	산청	청동기	병정 지식묘군	지표조사	지식묘	7

31	산청	청동기	한밭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2
32	산청	청동기	묵곡리 입석	지표조사	입석	1
33	생비량	청동기	독피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34	생비량	청동기	화현 토기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35	생초	선사시대	대포리 선사유적	지표조사	선사유적	
36	생초	청동기	갈전리 무문토기유적	지표조사	생활유적	
37	생초	청동기	강정 무문토기유적	지표조사	생활유적	
38	생초	청동기	생림 무문토기유적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39	생초	청동기	하촌 무문토기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40	생초	청동기	생림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41	생초	청동기	월곡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42	신등	청동기	거동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43	신등	청동기	법서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6
44	신등	청동기	물산 입석	지표조사	입석	2
45	신등	청동기	법서 입석	지표조사	입석	2
46	신안	청동기	명동 무문토기유적	지표조사	생활유적	
47	신안	청동기	후천 무문토기유적	지표조사	생활유적	
48	신안	청동기	신안리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49	신안	청동기	후천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50	오부	청동기	신기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5
51	오부	청동기	중촌리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52	오부	청동기	중촌리 입석	지표조사	입석	2
53	차황	청동기	양촌 무문토기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54	차황	청동기	궁소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55	차황	청동기	매곡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56	차황	청동기	상중리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57	차황	청동기	양촌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58	차황	청동기	장실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4
59	차황	청동기	상중리 입석	지표조사	입석	1

10) 양산시

연번	소재지(읍면)	시 대	유적명 조사	성 격	유적종류	유구수
1	교동	청동기	교동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2	남부	청동기	남부동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3	다방	청동기~삼국	다방동 패총 I	발굴조사	패총	
4	다방	청동기~삼국	다방동 패총 II	발굴조사	패총	
5	다방	청동기~삼국	다방동 패총 III	발굴조사	패총	
6	다방	청동기~삼국	다방동 패총 IV	발굴조사	패총	
7	다방	청동기	다방동 외다방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8	다방	청동기	다방동 유물산포지2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9	동면	청동기	내송리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0	북부	청동기	북부동 유물산포지1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1	북정	청동기	하북정유적	발굴조사	유물산포지	
12	산막	청동기	산막 유물산포지1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3	상북	구석기	외석리 외석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4	상북	구석기	내석리 내석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5	상북	청동기	소석리 장제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6	상북	청동기	소토리 효총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7
17	상북	청동기	소토리 감결 유물산포지2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8	상북	청동기	소토리 소로 청동기 주거지	발굴조사	생활유적	
19	상북	청동기	소토리 소로 지석묘	발굴조사	지석묘	
20	상북	청동기	대석리 대석 유물산포지1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21	상북	청동기	대석리 대석 유물산포지2	발굴조사	유물산포지	
22	신기	청동기	신기동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23	웅상	청동기	용당리 당촌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24	웅상	청동기	용당리 용당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25	웅상	청동기	용당리 우불산 고분군	지표조사	생활유적	
26	웅상	청동기	소주리 사평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27	웅상	청동기	주진리 신명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28	웅상	청동기	주진리 진등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29	웅상	청동기	평산리 유적	발굴조사	생활유적	7
30	원동	구석기	화제리 화제 유물산포지2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31	유산	청동기	유산동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32	하북	청동기	순지리 지내 유물산포지2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33	하북	청동기	순지리 지내 유물산포지3	발굴조사	유물산포지	
34	하북	청동기	순지리 신평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35	하북	청동기	초산리 유물산포지1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36	하북	청동기	초산리 유물산포지2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37	하북	청동기	삼사리 유물산포지2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38	하북	청동기	백록리 백학 유물산포지1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39	하북	청동기	백록리 백학 유물산포지2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40	하북	청동기	삼감리 삼감 유물산포지2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41	하북	청동기	신평 유적	발굴조사	생활유적	21

11) 의령군

연번	소재지(읍면)	시 대	유 적 명 조 사	성 격	유적종류	유구수
1	가례	청동기	가례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7
2	가례	청동기	수성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4
3	부림	청동기	경산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4	의령	청동기	무진리 유적	지표조사	생활유적	
5	의령	청동기	중동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6	의령	청동기	서동리지석묘	시굴조사	지석묘	1
7	정곡	청동기	석곡리지석묘	발굴조사	지석묘	9
8	정곡	청동기	오방리지석묘	발굴조사	지석묘	4
9	철곡	청동기	신포리입석	지표조사	입석	7
10	화정	선사(?)	상정리 토기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1	화정	청동기	상정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7
12	화정	청동기	가수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12) 진주시

연번	소재지(읍면)	시 대	유적명 조사	성 격	유적종류	유구수
1	귀곡	청동기	귀곡동 유적	발굴조사	지석묘	3
2	금곡	청동기	홍정동 유적	지표조사	생활유적	
3	금곡	청동기	죽곡리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3
4	금산	청동기	남성 유적1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5	금산	청동기	하덕의 유적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6	금산	청동기	윗덕의 유적	지표조사	석관묘	2
7	금산	청동기	청천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8	금산	청동기	갈전리 선사유적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9	대곡	구석기	마진리 유적5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0	대곡	신석기	마진리 유적6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1	대곡	청동기	곰실 유적	지표조사	석관묘	
12	대곡	청동기	유곡리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2
13	대곡	청동기	쇠코바위 유적	지표조사	지석묘	
14	대곡	청동기	월아리 유적2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5	대곡	청동기	월아리 유적3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6	대곡	청동기	월아리 유적4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7	대곡	청동기	간동 유적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8	대곡	청동기	마진리 유적1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9	대곡	청동기	마진리 유적2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20	대곡	청동기	마진리 지석묘1	지표조사	지석묘	2
21	대곡	청동기	마진리 지석묘2	지표조사	지석묘	3
22	대평	구석기	내촌리 유적	발굴조사	유물포함층	
23	대평	청동기	대평리 유적	발굴조사	분묘 및 생활유적 등	
24	명석	청동기	외율리 유적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25	문산	청동기	원촌 지석묘1	지표조사	지석묘	1
26	문산	청동기	원촌 지석묘2	지표조사	지석묘	1
27	문산	청동기	소문리 유적2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28	문산	청동기	이곡리 유적	발굴조사	분묘 및 취락유적	69
29	수곡	청동기	직기미 유적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30	수곡	청동기	찬새미 유적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31	수곡	청동기	원내리 유적4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32	유곡	청동기	나불이 유적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33	이반성	청동기	장안리 선사유적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34	지수	청동기	압사리 지석묘1	지표조사	지석묘	1
35	지수	청동기	압사리 지석묘2	지표조사	지석묘	1
36	진성	청동기	진동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37	진성	청동기	온수리 유적1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38	진성	청동기	상촌리유적	발굴조사	분묘 및 생활유적	62
39	집현	구석기	월평 유적1	발굴조사	유물포함층	
40	집현	청동기	덕오리 유적1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41	집현	청동기	덕오리 유적2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42	집현	청동기	덕오리 유적3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43	집현	청동기	덕오리 유적4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44	집현	청동기	월평 유적3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45	집현	청동기	죽산 유적1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46	집현	청동기	죽산 유적2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47	판문	청동기	평거동 유적	발굴조사	분묘 및 생활유적 등	
48	판문	청동기	판문동 유적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49	하대	청동기	하대동 유적2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50	호탄	청동기	소호동 유적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3) 진해시

연번	소재지(읍면)	시 대	유적명 조사	성 격	유적종류	유구수
1	석동	청동기	석동 무문토기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2	수도	신석기	수도패총 I	지표조사	패총	
3	수도	신석기	수도패총 II	지표조사	패총	
4	안골	신석기	안골포패총 I	지표조사	패총	
5	웅천	청동기	영길무문토기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6	자은	청동기	자은동 무문토기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7	자은	청동기	자은동유적 I	지표조사	선사유적	
8	죽곡	청동기	죽곡동수혈주거지	지표조사	생활유적장	
9	태평	청동기	잠도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0	현동	청동기	세형동검출토지	지표조사	선사유적	

14) 창녕군

연번	소재지(읍면)	시 대	유적명 조사	성 격	유적종류	유구수
1	계성	청동기	신씨재실 내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2
2	고암	청동기	중대리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3	도천	청동기	도천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2
4	도천	청동기	우강리 고분군	발굴조사	석관묘	
5	부곡	신석기	비봉리 패총	발굴조사	패총	
6	부곡	청동기	청암리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4~5
7	부곡	청동기	추정 구산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5
8	부곡	청동기	부곡리 가쟁골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2
9	부곡	청동기	비봉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3
10	부곡	청동기	학포리 신포마을 무문토기 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1	송현	청동기	창녕 송현동 선사유적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2	송현	청동기	만옥정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3
13	영산	선사시대	영산 성내리 선사유적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4	영산	청동기	죽사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3
15	장마	청동기	유리 지석묘	발굴조사	지석묘	1
16	창녕	청동기	말흘리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5) 창원시

연번	소재지(읍면)	시 대	유적명 조사	성 격	유적종류	유구수
1	가음정	청동기	가음정동 유적군	발굴조사	지석묘	
2	가음정	청동기	가음정동 당산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3	가음정	청동기	가음정동 유물산포지1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4	대산	청동기	우암리 유물산포지1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5	대산	청동기	우암리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6	대산	청동기	낙동강변 선사유적지2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7	대산	청동기	낙동강변 선사유적지3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8	동읍	신석기	산남리 합산패총	지표조사	패총	
9	동읍	청동기	노연리 유물산포지2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0	동읍	청동기	봉곡리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11	동읍	청동기	산남리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4
12	동읍	청동기	금산리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13	동읍	청동기	월잠리 유물산포지2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4	동읍	청동기	월잠리 유물산포지3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5	동읍	청동기	화양리 유물산포지3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6	동읍	청동기	화양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4
17	동읍	청동기	화양리 마제석검, 석촉 출토지	지표조사	지석묘	
18	동읍	청동기	남산리 유물산포지2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9	동읍	청동기	덕천리 유적	발굴조사	지석묘	20
20	동읍	청동기	신방리 유물산포지1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21	동읍	청동기	신방리 유물산포지2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22	동읍	청동기	신방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3
23	동읍	청동기	용잠리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24	동읍	청동기	용잠1구 지석묘1	지표조사	지석묘	1
25	동읍	청동기	용잠2구 지석묘2	지표조사	지석묘	1
26	동읍	청동기	봉산리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27	동읍	청동기	봉산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8
28	동읍	청동기	용잠6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3
29	동읍	청동기	용정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30	동읍	청동기	용전리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31	동읍	청동기	용잠3구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32	동읍	청동기	용잠리 석관묘	지표조사	석관묘	1
33	두대	청동기	두대동 유물산포지1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34	반계	청동기	반계동 유물산포지1	시굴조사	유물산포지	
35	반계	청동기	반계동지석묘	발굴조사	지석묘	1
36	북면	청동기	낙동강변 선사유적지1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37	북면	청동기	월백리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38	북면	청동기	외감리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39	사림	청동기	사림동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40	상남	청동기	상남동 선사유적	발굴조사	제사유적, 환호	2
41	상남	청동기	상남동 지석묘군	발굴조사	지석묘	6
42	서상	청동기	남산유적	발굴조사	생활유적	
43	외동	청동기	외동 성산패총	발굴조사	패총	

16) 통영시

연번	소재지(읍면)	시 대	유적명 조사	성 격	유적종류	유구수
1	광도	청동기	황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1
2	광도	청동기	마계석부 출토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3	광도	청동기	노산리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4	광도	청동기	죽림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1
5	도남	청동기	도남동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6	도산	청동기	오산 지석묘군지	지표조사	지석묘	3
7	도산	청동기	원산리 유적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8	도산	청동기	원산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2
9	도산	청동기	한퇴골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10	도산	청동기	상촌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2
11	도산	청동기	덕치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3
12	도산	청동기	관덕리 선사유물 출토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3	봉평	청동기	봉평동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3
14	사랑	신석기	금평리 패총	지표조사	패총	
15	사랑	청동기	읍덕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5
16	산양	신석기	추도 패총	지표조사	패총	
17	산양	신석기	신전리 패총	지표조사	패총	
18	산양	신석기	미남리 패총	지표조사	패총	
19	산양	신석기	송도 패총1	지표조사	패총	
20	산양	신석기	연대도 패총	발굴조사	패총	
21	산양	청동기	남평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4
22	산양	청동기	남평리 추정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2
23	산양	청동기	전 신전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2
24	욕지	신석기	학리 패총	지표조사	패총	
25	욕지	신석기	산등 패총1	발굴조사	패총	
26	욕지	신석기	산등 패총2	지표조사	패총	
27	욕지	신석기	상노대도 패총	발굴조사	패총	
28	욕지	신석기	하노대도 패총	지표조사	패총	
29	욕지	신석기	우도 울막개 패총	지표조사	패총	
30	욕지	신석기	욕지 패총2	지표조사	패총	

31	욕지	신석기	욕지 패총1	발굴조사	패총
32	욕지	신석기	본촌 패총	지표조사	패총
33	욕지	신석기	동두 패총1	지표조사	패총
34	욕지	신석기	갈도 패총	지표조사	패총
35	욕지	신석기	좌도 패총	지표조사	패총
36	욕지	청동기	청석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37	욕지	청동기	납도패총	지표조사	패총
38	욕지	청동기	국도 패총1	지표조사	패총
39	용남	청동기	장평리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40	한산	신석기	의항 패총	지표조사	패총
41	한산	신석기	장곡 유물산포지1	지표조사	패총
42	한산	신석기	동좌 패총1	지표조사	패총
43	한산	신석기	서좌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패총
44	한산	신석기	봉암 패총1	지표조사	패총
45	한산	신석기	추원 패총	지표조사	패총
46	한산	신석기	예곡 패총	지표조사	패총
47	한산	신석기	용초 작은마을 패총1	지표조사	패총
48	한산	신석기	용초 큰마을 패총	지표조사	패총
49	한산	신석기	호두 패총	지표조사	패총
50	한산	신석기	죽도 패총1	지표조사	패총
51	한산	신석기	죽도 패총2	지표조사	패총
52	한산	신석기	곡룡포 패총	지표조사	패총
53	한산	신석기	선유도 패총1	지표조사	패총
54	한산	신석기	소매물도 패총	지표조사	패총
55	한산	신석기	대매물도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56	한산	신석기	대매물도 패총	지표조사	패총

17) 하동군

연번	소재지(읍면)	시 대	유적명 조사	성 격	유적종류	유구수
1	횡천	청동기	남산리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12
2	횡천	청동기	월평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3	하동	신석기	목도리패총	지표조사	패총	
4	하동	신석기	전도리패총	지표조사	패총	

18) 함안군

연번	소재지(읍면)	시 대	유적명 조사	성 격	유적종류	유구수
1	가야	청동기	도항리 충의공원조성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생활유적	
2	가야	청동기	도항리 택지개발지역내 유적	발굴조사	유물산포지	
3	가야	청동기	검암리 유적군	지표조사	생활유적	
4	가야	청동기	도항리 고분군 I	발굴조사	생활유적	
5	가야	청동기	명덕고등학교 다목적교실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생활유적	
6	가야	청동기	함안 암각화고분	발굴조사	생활유적	
7	가야	청동기	고인돌공원 조성부지내유적	시굴조사	경작지	
8	가야	청동기	도항리 윗삼기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9	가야	청동기	도항리 도동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3
10	가야	청동기	광정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1
11	가야	청동기	도항리 구릉실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5
12	군북	청동기	영운리 지곡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13	군북	청동기	중암리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4	군북	청동기	모로리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5	군북	청동기	덕대리 오장골석관묘군	지표조사	석관묘	2
16	군북	청동기	중암리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17	군북	청동기	덕대리 청동기시대주거지	지표조사	생활유적	
18	군북	청동기	덕대리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9	군북	청동기	덕대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6
20	군북	청동기	동촌리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21	군북	청동기	소포리 독립기념체육관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생활유적	
22	군북	청동기	군북지석묘군	발굴조사	지석묘	26
23	군북	청동기	동촌리 유물산포지 II	발굴조사	유물산포지	
24	군북	청동기	명관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7
25	군북	청동기	동촌리 서촌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26	대산	청동기	구혜리 유물산포지 I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27	대산	청동기	하기리 무덤실유적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28	대산	청동기	서촌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3
29	대산	청동기	구혜리 유물산포지 II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30	대산	청동기	평림리 유물산포지 II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31	대산	청동기	대사리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32	법수	신석기	우거리 보습채집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33	법수	청동기	황사리 유적군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34	법수	청동기	윤외리 추정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35	산인	청동기	부봉리 유적군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36	산인	청동기	내인리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37	산인	청동기	내인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2
38	산인	청동기	송정리 지석묘군	발굴조사	지석묘	4
39	송정	청동기	송정리 하송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40	여항	청동기	외암리추정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41	칠북	청동기	이령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1
42	칠북	청동기	이령리 유적군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43	칠북	청동기	구포리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44	칠북	청동기	구포리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45	칠서	청동기	회산리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46	칠서	청동기	회산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47	칠원	구석기	용산리 구석기채집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48	칠원	청동기	유원리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49	칠원	청동기	무릉리 추정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50	칠원	청동기	용산리 쇠망이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3
51	칠원	청동기	오곡리 유물산포지 I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52	칠원	청동기	오곡리 가마실지석묘군	발굴조사	지석묘	2
53	칠원	청동기	함안 가마실유적	발굴조사	지석묘, 생활유적	3, 5
54	칠원	청동기	용정리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55	칠원	청동기	예곡리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56	칠원	청동기	예곡리 야촌석관묘군	지표조사	석관묘	2
57	칠원	청동기	용정리 석전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9
58	칠원	청동기	예곡리 야촌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9
59	칠원	청동기	오곡리 유적	발굴조사	생활유적, 지석묘	
60	칠원	청동기	오곡리 여우실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5
61	칠원	청동기	오곡리 LNP아파트 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생활유적, 지석묘	
62	함안	청동기	괴산리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63	함안	청동기	괴산리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64	함안	청동기	봉성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3
65	함안	청동기	봉성리 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66	함안	청동기	북촌리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
67	함안	청동기	봉성리유적	발굴조사	석관묘, 생활유적	

19) 함양군

연번	소재지(읍면)	시 대	유 적 명 조 사	성 격	유 적 종 류	유 구 수
1	수동	청동기	죽산리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2	수동	청동기	화산리유물산포지Ⅱ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3	수동	청동기	화산리유적	시굴조사	지석묘	
4	수동	청동기	화산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5	안의	청동기	당본리유물산포지Ⅱ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6	안의	청동기	안의농공단지조성부지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유물산포지	
7	안의	청동기	이전리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8	안의	청동기	황곡리유물산포지Ⅱ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9	안의	청동기	황곡리유물산포지Ⅲ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0	유림	신석기	손곡리지곡유적	시굴조사	유물산포지	
11	유림	청동기	옥매리 옥동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2	유림	청동기	장항리유물산포지Ⅰ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3	유림	청동기	장항리유물산포지Ⅱ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4	유림	청동기	유평리유물산포지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15	유림	청동기	손곡리지곡유적	시굴조사	지석묘	
16	함양	청동기	백천리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17	함양	청동기	백천리유물산포지Ⅳ	지표조사	유물산포지	

20) 합천군

연번	소재지(읍면)	시 대	유 적 명 조 사	성 격	유 적 종 류	유 구 수
1	합천	청동기	영창리 청동기시대 유적	지표조사	선사유적	
2	묘산	청동기	광산리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3	묘산	청동기	관기리 입석군	지표조사	입석	
4	가야	청동기	매안리 송산마을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5	가야	청동기	매안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6	적중	청동기	부수리 지석묘	지표조사	지석묘	
7	대병	청동기	성리 지석묘군	지표조사	지석묘	
8	대병	청동기	역평 유적	발굴조사	지석묘	14
9	봉산면	청동기	저포리 E지구	발굴조사	분묘 및 생활유적	15
10	봉산	신석기	봉계리 유적	발굴조사	생활유적	13

V

Prehistoric Culture of Gyeongnam

Changw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관련논저 목록



Chapter 1.

보고서

Chapter 2.

논문

Chapter 3.

도록

1. 보고서 · 보고문

1) 구석기시대 Paleolithic Age

- 부산대학교박물관, 2001, 「진주-집현간 4차선 도로건설 구간내 장흥리구석기유적」(현장지도위원회 자료)
- 배기동 · 임영옥, 1999, 「진주 내촌리 주거지 및 구석기유적」, 한양대학교박물관
- 경남고고학연구소, 2002, 「사천 이금동 구석기유적」
- 서영남, 1998, 「밀양 고례리 구석기유적 발굴조사개요」, 『통일과 역사교육』
- 서영남 외, 1999, 「경남 밀양시 고례리유적 후기구석기문화」, 『영남지방의 구석기문화』, 영남고고학회
- 서영남, 2004, 「밀양 고례리 및 진주 집현 장흥리 유적」, 『창립20주년 기념 학술대회(제13회 정기학술발표회) 영남고고학 20년 발자취』, 영남고고학회
- 윤호필, 1999, 「사천 이금동유적 발굴조사 개요」, 『20세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 제42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
- 한양대학교박물관 · 문화인류학과, 1999, 「진주 내촌리 주거지 및 구석기유적」

2) 신석기시대 Neolithic Age

- 경남발전연구원, 2005, 「살내유적」
- 경상남도, 1992, 「남강댐수몰지역지표조사보고서」
- 경성대박물관, 2000, 「김해 화목동유적」
- 국립김해박물관, 2005, 「창녕비봉리유적 현장설명회자료」
- 국립문화재연구소, 1995, 「선사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국립진주박물관, 1999, 「목도패총」
- 국립진주박물관, 1993, 「연대도 I」
- 국립진주박물관, 1989, 「육지도」
- 단국대학교박물관, 1993, 「사천 구평리유적」
- 동아대학교박물관, 1984, 「상노대도 패총」
- 동아대학교박물관, 1989, 「합천 봉계리 선사유적」
- 동아대학교박물관, 1997, 「상촌리 신석기유적」, 『영남고고학』20, 영남고고학회
- 동아대학교박물관, 1997, 「우봉리유적」
- 동아대학교박물관, 1984, 「상노대도 부:동래 복천동고분 · 고성 동외동패총」
- 동아대학교박물관, 1981, 「김해 부원동유적」
- 동아대학교박물관, 1995, 「거제시문화유적정밀지표조사보고서」
- 동아대학교박물관, 1993, 「금관가야 관련유적 정밀지표조사보고」
- 동의대학교박물관, 1988 · 9, 「대야리유적 I · II」
- 동의대학교박물관, 1997, 「상촌리(上村里) 제1호 지석묘 및 토기 산포지 제1유적」, 『영남고고학』20, 영남고고학회
- 동의대학교박물관, 2002, 「진주 상촌리유적」
- 부산대학교박물관, 1981, 「김해 수가리 패총」
- 부산수산대학교박물관, 1989, 「상등패총」
- 부산수산대학교박물관, 1992, 「북정패총」
- 신라대학교 가야문화재연구소, 1997, 「산청 소남리유적 1, 2차」, 『영남고고학』20,
- 안춘배, 1977, 「남강하류의 선사문화」, 『백산학보』23, 백산학회
- 안춘배, 1989, 「거창 임블리선사주거지 조사개보」, 『영남고고학』6

안춘배, 1998, 「산청 소남리 취락유적」, 『환호취락과 농경사회의 형성』,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제3회 합동고고학대회
 이상길·김미영, 2003, 「밀양 금천리유적」, 『고구려고고학의 제문제』, 한국고고학회
 입학중, 1989, 「연대도폐총발굴조사」, 『가야』3, 가야문화사
 입학중, 2004, 「창녕 비봉리유적 발굴조사」, 『제주도 신석기문화의 형성과 전개』, 한국신석기학회
 조영제, 1983, 「서부경남 선사문화 지표조사보고(Ⅰ)」, 『부대사학』7
 창원대학교박물관, 1999, 「신항만부지 안골일대유적시굴조사보고」
 한양대학교박물관, 1999, 「진주 상촌리 2호 지석묘 및 선사유적」
 한영희·입학중, 1991, 「연대도 조개더미 단애부Ⅱ」, 『한국고고학보』26

3) 청동기시대 Bronze Age

건국대학교박물관, 2001, 「진주 상촌리 3-8호 지석묘 및 선사유적」
 경남고고학연구소, 2002, 「진주 대평 옥방19지구 무문시대 집락」
 경남고고학연구소, 2003, 「사천 이금동 유적」
 경남대학교박물관, 1996, 「산청 목곡리유적」, 『대학과 발굴Ⅰ』, 한국대학박물관협회
 경남문화재연구원, 2006, 「진주 평거3택지 개발사업지구내 유적 발굴조사(Ⅱ지구)현장설명회 자료」
 경남발전연구원, 2001,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제7공구내 금천리유적 시굴조사 약보고서」
 경남발전연구원, 2001,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제7공구내 살내유적 시굴조사 약보고서」
 경남발전연구원, 2002, 「밀양 살내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자료」
 경남발전연구원, 2003, 「함안-가야간 도로확장구간내 유적발굴조사 약보고서」
 경남발전연구원, 2003, 「함안 명덕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예정지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경남발전연구원, 2004, 「함안 고인돌공원 조성부지내 유적 시굴조사 약보고서」
 경남발전연구원, 2004, 「함안박물관 주변 공원조성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경남발전연구원, 2006, 「진주 평거동 유적」, 진주 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및 현장설명회 자료
 경남발전연구원, 2006, 「마산 진동 토지구획 정리사업부지(1지구)내 유적 추가발굴조사 약보고서」
 경상대학교박물관, 1996, 「산청 목곡리유적 지도위원회의 및 현장설명회자료」
 경남대학교박물관, 1997, 「대평리 어은1지구 유적 발굴조사개요」, 『영남고고학』제20집
 경상대학교박물관, 2001, 「진주 대평리 옥방 3지구 선사유적」
 경상대학교박물관, 1999, 「진주 대평리 옥방 2지구 선사유적」
 경상대학교박물관, 2002, 「산청 옥산리유적」
 국립문화재연구소, 1994, 「진양 대평리 유적」
 국립진주박물관, 2001, 「진주 대평리 옥방1지구 유적Ⅰ·Ⅱ」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997, 「함안 도항리 암각화 고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1, 「진주 대평리 어은2지구 선사유적Ⅰ-주거지, 석관묘 편-」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1, 「창원 상남선사유적」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2, 「진주 남강 어은2지구 선사유적Ⅱ-집석 야외노지 수혈기타 편-」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5, 「의령 서동리지석묘」
 김동원, 1998, 「진주 대평리 옥방4지구 발굴조사」, 『남강댐 수몰지구의 발굴성과』, 제7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영남고고학회
 김병섭, 2002, 「밀양 살내유적 발굴조사 성과」, 『한일 초기농경 비교연구』, 大阪市學藝員共同研究 韓半島綜合學術調査團

- 김병섭, 2003, 「밀양 살내유적 발굴조사 성과」, 『경상고고학』제2집, 경상고고학연구회
- 김양미, 1998, 「진주 대평리 옥방1지구 무문토기시대 환호취락」, 『남강댐 수몰지구의 발굴성과』, 제7회 영남고고학회 학술 발표회, 영남고고학회
- 김정학, 1983, 「김해 내동 지석묘 조사개보」, 『부산 당감동 고분군』, 부산대박물관
- 김용기, 1965, 「김해 농소리패총 발굴조사보고」, 『논문집』6, 부산대학교
- 김용기 · 정징원, 1971, 「성산패총 발굴조사보고」, 『부산사학』2
- 김지태, 2004, 「새로 찾은 함안의 선사유적」, 『함안의 선사문화』, 2004년 함안박물관 특별기획전 도록
- 김 현, 2004, 「사천 이금동 유적 발굴조사 성과」, 『창립20주년 기념 학술대회(제13회 정기학술발표회) 영남고고학 20년 발자취』, 영남고고학회
- 김현식, 2000, 「합천 영창리유적 개보」, 『고고학으로 본 변 · 진한과 왜』, 영남고고학회 · 구주고고학회 제4회 합동고고학회 동아대학교박물관, 2001, 『진주 내촌리유적』
- 동아대학교박물관, 1981, 『김해 부원동유적』
- 동아대학교박물관, 1990, 『의령 석곡리지석묘 발굴보고서』
- 동아대학교박물관, 1998b, 『양산 평산리유적』
- 동아대학교박물관, 2001, 『진주 내촌리유적』
- 동아대학교박물관, 2002, 『진주 옥방유적』
- 동의대학교박물관, 1988, 『대야리주거지 I』
- 동의대학교박물관, 1989, 『대야리주거지 II』
- 동의대학교박물관, 1987, 『거창 · 합천 큰돌무덤』
- 동의대학교박물관, 1999, 『산청 사월리유적』
- 문화재관리국, 1976, 「마산 외동성산」, 『패총발굴조사보고』
- 부산시립박물관 복천분관, 1998, 『진주 귀곡동 대촌유적』
- 부산대학교박물관, 1987, 『합천 저포리E지구유적』
- 선문대학교 역사학과, 2001, 『진주 대평리 옥방 5지구 선사유적』
- 양산대학교박물관, 1998, 『양산 평산리유적』
- 이상길, 1993, 「창원 덕천리유적 발굴조사개보」, 『삼한사회와 고고학』, 제17회한국고고학전국대회발표요지
- 이상길 · 김미영, 2004, 「진주 대평 어은 1지구 유적」, 『창립20주년 기념 학술대회(제13회 정기학술발표회) 영남고고학 20년 발자취』, 영남고고학회
- 임효택 · 하인수, 1991, 「김해 내동 제2호 큰돌무덤」, 『연보』13, 부산시립박물관.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6, 「진주 생물산업전농공단지 예정부지내 문화유적 추가 시 · 발굴조사 2차 현장설명회」,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현장설명회자료집51
- 조영제, 1998, 「사천 본촌리유적」, 『남강댐 수몰지구의 발굴성과』, 제7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영남고고학회
- 조유전, 1979, 「경남지방의 선사문화 연구」, 『고고학』5 · 6합
- 조유전, 1987, 「남강유역의 선사문화 연구(1)」, 『한국고고학보』20
- 창원대학교박물관, 1995, 『함안 오곡리유적』
- 창원대학교박물관, 1990, 『마산 현동유적』
- 창원대학교박물관, 2000, 『함안 가마실유적』

2. 논문

1) 구석기시대

- 박영철, 1999, 「영남지역 후기구석기의 문화상과 편년」, 『영남지방의 구석기문화』, 영남고고학회
배기동, 1999, 「진주 내촌리 구석기유적과 석기공작」, 『영남지방의 구석기문화』, 제8회 영남고고학회발표요지
이기길, 1999, 「슴베찌르개와 공반유물에 대하여」, 『영남지방의 구석기문화』, 제8회 영남고고학회발표요지
이용조 · 윤용현, 1994, 「한국 좁돌날몸들의 연구」, 『선사문화』2, 충북대학교 선사문화연구소
서영남 외, 1999, 「경남 밀양시 고례리유적 후기구석기문화」, 『영남지방의 구석기문화』, 영남고고학회
이현중, 1999, 「우리나라 세형돌날몸문화의 편년, 그 상한과 하한」, 『영남지방의 구석기문화』, 제8회 영남고고학회발표요지
中山淸隆, 1989, 「韓國居昌任佛里遺蹟の晩期舊石器について」, 『舊石器考古學』39

2) 신석기시대

국내

- 곽종철, 1990, 「낙동강 하구역에 있어서 선사 고대의 어로활동」, 『가야문화』3
권상렬, 1989, 「경남 통영군 연곡리 패총 발굴조사개보」, 『박물관신문』211호
김동호, 1984, 「상노대도의 선사문화 연구서설」, 『동아대학교 대학원 논문집』VIII
金子浩昌, 2002, 「한국신석기시대 패총과 어로활동」, 『한국 신석기시대의 환경과 생업』, 동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김장석, 2002, 「남한지역 후기신석기-전기청동기 전환」, 『한국고고학보』48
박상현, 1965, 「낙동강구 동안의 패총」, 『考古美術』6-6
송은숙, 1991, 「한국남해안지역 신석기문화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봉근, 1998, 「진주 상촌리유적 출토 신석기시대 옹관」, 『문물연구』
심봉근, 1987, 「합천 봉계리 선사유적 新例」, 『삼불김원룡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I, 일지사
심용부 · 곽종철, 1991, 「낙동강하구 김해지역의 환경과 어업문화」, 『가야문화연구』2
신숙정, 1982, 「상노대도 조개더미 유적의 토기 연구」, 『백산학보』28
신숙정, 1982, 「상노대도 조개더미 유적의 질그릇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승모, 1997, 「신석기시대의 생업과 사회」, 『한국사』2, 국사편찬위원회
안승모, 1996, 「한국 선사농경연구의 성과와 과제」, 『선사와 고대』7
안춘배, 1981, 「산청 강루리 선사유적」, 『부산직할시립박물관연보』4
안춘배, 1989, 「임블리 신석기시대 주거지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23
윤선외, 1985, 「수가리패총의 연체동물화석군집과 해수면변동」, 『한국고생물학회지』1
이동주, 1991, 「한국 남부내륙지역의 신석기시대 유문토기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동주, 1991, 「한국내륙지역의 신석기시대 유문토기 연구」, 『한국상고사학보』7
이동주, 1992, 「남해 도서지방의 선사문화 자료(I)-육지도와 주변도서」, 『고고역사학지』제8집
이동주, 1996, 「한국 선사시대 남해안 유문토기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동주, 1997, 「전면시문 침선문토기문화의 전개와 편년」, 『고문화』50
이동주, 2002, 「상노대도유적 지표채집 석기에 대하여」, 『고고역사학지』제16집
이동주, 2003, 「남강유역의 신석기문화와 일본열도」, 『진주 남강유적과 고대일본』, 신서원
이동주, 1999, 「빛살문토기 문화의 성격」, 『신석기문화의 새로운 연구』, 고대학회
이동주, 2000, 「빛살문토기 문화의 성격」, 『선사와 고대』, 한국고고학회
이현중 · 하인수 외, 2004, 「거제도출토 신석기시대 신자료」, 『한국신석기연구』7

- 임학중, 1993, 「남해안 신석기시대 초기의 토기문화에 대한 고찰」,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명수, 1989, 「경호강 유역 출토 선사 유물 신례에 대한 소고」, 『박물관기요』5
- 장명수, 1989, 「섬진강 하류의 패총문화」, 『고문화』34
- 정징원, 1974, 「김해지방의 즐문토기문화」, 『于軒丁仲煥博士還曆紀念論文集』
- 정징원, 1982, 「남해안지방의 즐문토기연구(1)-부산·경남지방 만기즐문토기의 검토」, 『부대사학』6
- 정징원, 1985, 「남해안지방 용기문토기에 대한 연구」, 『부대사학』9
- 정징원, 1990, 「남해안지방 초기즐문토기의 일검토」, 『영남고고학』7
- 정한덕, 1994, 「영남지방 신석기시대 말기의 이중구연토기에 대하여」, 『The Second Pacific Bas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동북아세아고고학연구회
- 조현복, 1993, 「영남내륙지방 즐문토기에 대한 고찰」, 동의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삼룡·한창균, 1986,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짐승잡이의 예」, 『박물관기요』2
- 최삼룡, 1988, 「상노대도의 동물뼈 화석에 나타난 자른 자국」, 『손보기박사정년기념 고고인류학논총』
- 최종혁, 2004, 「사천 선진성공원 주차장부지 유적」, 『한국신석기연구』8
- 하인수, 2002, 「용기문토기의 성립과 전개」, 『한국신석기시대의 환경과 생업』, 동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편
- 하인수, 2004b, 「신석기시대의 한일문화교류와 흑요석」, 『한일교류의 고고학』, 영남·구주고고학회
- 하인수, 2006, 「영남해안지역의 신석기문화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영희, 1993, 「신석기시대 패총」, 『한국고고학보』29
- 한영희, 1994, 「신석기시대의 사회와 문화」, 『한국사』1
- 한영희, 1995, 「신석기시대」, 『한국고고학의 반세기』, 제1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일본

- 江坂輝彌, 1976, 「朝鮮半島櫛目文土器文化と西九州地方櫛文文化期の會畑式土器文化との關聯性について」, 『考古學ヅヤール』128
- 江坂輝彌, 1976, 「最近の考古學的發見と成果」, 『韓國の古代文化』, 學生社
- 江坂輝彌, 1985, 「櫛文土器文化の起源を探る」, 『日本史の黎明』, 一八播一郎先生頌壽記念考古學論集
- 古澤義久, 2006, 「韓半島新石器時代 後晩期二重口緣土器の生成と展開」, 『韓日新時代の考古學』, 嶺南考古學會·九州考古學會 第7會 合同考古學大會 發表文
- 廣瀨雄一, 1984, 「韓國隆起文土器論-編年を中心として」, 『異貌』12
- 廣瀨雄一, 1984, 「韓國南岸地域の櫛目文土器の研究」, 『考古學の世界』3
- 廣瀨雄一, 1985, 「櫛目文土器前期の研究-韓國南海岸地域における編年中心として」, 『伽倻通信』
- 廣瀨雄一, 1986, 「隆起文土器の系譜と年代」, 『異貌』12
- 廣瀨雄一, 1986, 「韓國上老島出土の剝片石器」, 『考古學の世界』4
- 廣瀨雄一, 1989, 「韓國南部地方櫛目文後期の變遷」, 『九州考古學』64
- 廣瀨雄一, 1989, 「韓國嶺南地方櫛目文前期の土器變遷」, 『考古學の世界』
- 宮本一夫, 1986, 「朝鮮有文土器の編年と地域性」, 『朝鮮學報』201
- 金東鎬, 1980, 「韓國東南海岸島嶼の先史土器とその文化」, 『考古學シヤナル』183
- 今西龍, 1906, 「朝鮮にて發見せる貝塚就て」, 『東京人類學會雜誌』23-262
- 金子浩昌·牛澤百合子, 1981, 「수가리 패총 출토 골각패 제품 및 動物遺存體」, 『金海水佳里貝塚』, 부산대학교박물관
- 藤田亮策, 1942, 「朝鮮の石器時代」, 『東洋史講座』18

- 藤田亮策, 1959, 「彌生土器と朝鮮の土器」, 『史學』24-1
- 樞本杜人, 1980, 『朝鮮の考古學』, 同月社
- 濱田耕作・梅原末治, 1922, 「金海貝塚發掘調査報告」, 『大正九年度古蹟調査報告』第1冊, 朝鮮總督府
- 濱田耕作, 1936, 「朝鮮に於ける考古學的調査研究と日本考古學」, 『日本民族』, 東京人類學會
- 三上次男, 1952, 「朝鮮に於ける櫛目文系土器社會と穢人」, 『朝鮮學報』3
- 三上次男, 1959, 「朝鮮における櫛目土器の分布とそのがいりにいて」, 『朝鮮學報』14
- 西谷正, 1982, 「朝鮮半島の黑曜石について」, 『賀川光夫先生還曆紀念論集』
- 小原哲, 1985, 「韓國隆起文土器の檢討」, 『伽倻通信』13・14
- 小原哲, 1987, 「韓國櫛目文土器の變遷」, 『東アジの考古と歴史』上
- 有光教一, 1962, 『朝鮮櫛目文土器の研究』, 京都大學校學部考古學叢書 3
- 李相均, 1995, 「新石器時代における韓國南岸と九州地方の文化交流」, 東京大博士論文
- 左藤達夫, 1963, 「朝鮮有紋土器の變遷」, 『考古學雜誌』48-3
- 中山滿隆, 1989, 「韓國南部の新石器文化と北部九州の繩文文化-嶺南地方南部海岸・島嶼部への關心」, 『考古學の世界』
- 坂田邦洋, 1978, 「韓國隆起文土器」, 『韓國隆起文土器研究』, 昭和堂

3) 청동기시대

① 시대일반

- 김구근, 2005, 「청동기시대 영남지역의 문화변천과 지역성」, 『영남의 청동기시대 문화』, 제14회 정기학술발표회, 영남고고학회
- 김권구, 2005, 「청동기시대 영남지역의 상징과 사회발전」, 『영남의 청동기시대 문화』, 제14회 정기학술발표회, 영남고고학회
- 안재호, 2000, 「한국 농경사회의 성립」, 『한국고고학보』43
- 이청규, 1988, 「남한지방 무문토기문화의 전개와 공렬토기문화의 위치」, 『한국상고사학보』창간호
- 정한덕, 2001, 「한반도 무문토기(청동기)시대의 고고학」, 專修大學 文學部 一般講座
- 조수현, 2004, 「함안지역 선사유적의 발굴성과와 의의」, 『함안의 선사문화』2004년 함안박물관 특별기획전 도록
- 조유전, 1992, 「청동기시대」, 『한국선사고고학사』, 까치

② 생업경제 및 취락

- 김권구, 2001, 「영남지방 청동기시대 마을의 특성과 지역별 전개양상」, 『한국 청동기시대 연구의 새로운 성과와 과제』(충남대학교 박물관 학술회의), 충남대학교박물관
- 김도현, 2005, 「청동기시대 영남지역의 환경과 생업」, 『영남의 청동기시대 문화』 제14회 정기학술발표회, 영남고고학회
- 김지태, 2004, 「함안의 송국리형주거지」, 『함안의 선사문화』2004년 함안박물관 특별기획전 도록
- 배덕환, 2005, 「청동기시대 영남지역의 주거와 마을」, 『영남의 청동기시대 문화』 제14회 정기학술발표회, 영남고고학회
- 송만영, 2001, 「남한지방 농경문화형성기 취락의 구조와 변화」, 『한국 농경문화의 형성』, 제25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 안재호, 2001, 「중기 무문토기시대의 취락과 구조의 전이-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영남고고학』제29집
- 이상길, 1997, 「진주 대평리 전작지의 구조와 의의-어은1지구를 중심으로」, 『호남고고학의 제문제』, 제2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 이상길, 2002, 「남부지방의 초기농경의 현단계」, 『한일초기농경비교연구』
- 이상길, 2003, 「남강유역의 선사농경과 취락」, 『진주 남강유적과 고대일본』, 신서원
- 이성주, 1998, 「한국의 환호취락」, 『환호취락과 농경사회의 형성』, 영남고고학회 구주고고학회 제3회 합동고고학회발표요지문
- 정의도, 2000, 「남강지역의 환호유적」, 『국제학술회의 진주남강유적과 고대일본-고대 한일문화교류의 제양상-』, 경상남도·인

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 정의도, 2003, 「남강유역의 환호유적」, 『진주 남강유적과 고대일본』, 신서원
조현정, 2003, 「이금동유적의 지상식건물에 관해서」, 『사천 이금동 유적』, 경남고고학연구소
최종규, 2003, 「이금동 집락의 구조」, 『사천 이금동 유적』, 경남고고학연구소
최현섭, 1998, 「한반도 중·남부지역 선사취락의 입지유형」, 경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③ 무덤

- 김광명, 2005, 「청동기시대 영남지역의 무덤과 제사」, 『영남의 청동기시대 문화』 제14회 정기학술발표회, 영남고고학회
김원룡, 1960, 「慶南地方의 支石墓 數例」, 『考古美術』1-1(1), 고고미술동인회
김원룡, 1963, 「金海 茂溪里 支石墓의 出土品-靑銅器를 半出하는 新例」, 『東亞文化』1,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동아문화연구소
김정기, 1961, 「慶南 桂城面 所在 支石墓」, 『考古美術』2-2(7), 고고미술동인회
도동열·하인수, 1990, 「경남지방의 지석묘에 대한 일고찰」, 『논문집』16, 동의공업전문대학교
도동열·하인수, 1992, 「영남지방 지석묘의 분류와 편년」, 『동의공전논문집』18
도동열·하인수, 1992, 「영남지방 지석묘의 형식과 구조」, 『가야고고학논총』1, 가야문화연구소
박경원, 1958, 「창원군 진동면 성문리 지석묘조사 약보고」, 『역사학보』10, 역사학회
박성조, 2003, 「서부경남 지석묘 집성」, 『경상고고학』제3집, 경상고고학연구회
심봉근, 1979, 「일본 지석묘의 일고찰」, 『부산사학』3, 부산사학회
심봉근, 1981, 「한·일 지석묘의 관계-형식 및 연대론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10·11합
이상길, 1994, 「지석묘의 장송의례」, 『고문화』제45집
이상길, 1996, 「청동기시대 무덤에 대한 일시각」, 『碩晤尹容鎮教授停年退任記念論叢』
이상길, 2001, 「매장과 의례에 관한 새로운 시도-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청동기시대 연구의 새로운 성과와 과제』
충남대학교박물관 학술회의요지문
이상길, 1998, 「無文土器時代の 生活儀禮」, 『環濠聚落과 農耕社會의 形成』,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제3회 합동고고학대회
이성주, 1999, 「한국의 지석묘-경상남도」, 『한국 지석묘(고인돌)유적 종합조사·연구(Ⅱ)-분포, 형식, 기원, 전파 및 사회복원』
이성주, 2000, 「지석묘 : 농경사회의 기념물」, 『한국 지석묘 연구의 이론과 방법』, 주류성
임세권, 1976, 「한반도 고인돌의 종합적 검토」, 『백산학보』20, 백산학회
임효택·하인수, 1993, 「김해 내동 제3호 큰돌무덤」, 『박물관연구논집』1, 부산시립박물관
지건길, 1978, 「동북아시아 지석묘의 형식학적 고찰」, 『한국고고학보』12, 한국고고학회
하인수, 1988, 「거창 내오리 지석묘 지표조사보고」, 『伽倻通信』18, 伽倻通信編輯部
하인수, 2003, 「남강유역 무문토기시대의 묘제」, 『진주 남강유적과 고대일본』, 신서원

⑤ 유물

- 김병섭, 2003, 「한반도 중남부지역 전기 무문토기에 대한 일고찰」, 『경상고고학』제3집, 경상고고학연구회
김정학, 1967, 「한국 무문토기의 연구」, 『백산학보』3
김재운, 2003, 「한반도 각목돌대문토기의 편년과 계보」,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진성, 2005, 「무문토기시대 석기의 지역색과 조성변화」, 『사람과 돌』, 2005년 국립대구박물관 특별전 도록
안재호, 1990, 「남한전기무문토기편년」,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재호, 2001, 「무문토기시대의 대외교류」, 『항도부산』제17호
안재호, 2002, 「적색마연토기의 출현과 송국리식토기」, 『한국 농경문화의 형성』, 학연문화사
안재호·천선행, 2004, 「前期無文土器時代の 文樣編年と地域相」, 『福岡大學考古學論集-小田富士雄先生退職記念』
이청규, 2002, 「영남지역의 청동기에 대한 논의와 해석」, 『영남고고학보』30

- 심봉근, 1980, 「경남지방 출토 청동유물의 新例」, 『부산사학』4
 심봉근, 1984, 「밀양 남전리와 의창 평성리유적 출토유물」, 『윤무병박사회갑기념논총』
 심봉근, 1987, 「본교 박물관의 청동기 數例에 대하여」, 『고고역사학지』3, 동아대학교박물관
 심봉근, 1999, 「진주 상촌리출토 무문토기 新例」, 『문물연구』제3호
 안춘배, 1983, 「산청 묵곡리 출토 마제석검에 대한 고찰」, 『고문화』22
 정성희, 1985, 「경남지방 출토 마제석검 연구」, 『고고역사학지』1, 동아대학교박물관
 정정원, 1982, 「경남지방의 청동기유적과 유물」, 『한국고고학보』12

일본

- 甲元眞之, 1973, 「朝鮮支石墓の編年」, 『朝鮮學報』66
 甲元眞之, 1996, 「東北アジアの支石墓」, 『福岡から東アジアへ4』-彌生文化のつ道-, 西日本文化史
 甲元眞之, 1997, 「朝鮮半島の支石墓」, 『東アジアにおける支石墓の綜合研究』, 九州大學 文學部 考古學研究室
 江坂輝彌, 1979, 「東北アジアの支石墓研究」, 『考古學ジャーナル』161, ニューサイエンス社
 江坂輝彌, 1982, 「韓國慶尙南道宜寧郡七谷面所在の支石墓」, 『考古學ジャーナル』207, ニューサイエンス社
 光岡雅彦, 1979, 「支石墓の謎」, 學生社
 金廷鶴, 1976, 「金海内洞支石墓調査豫報」, 『考古學ジャーナル』128, ニューサイエンス社
 童恩正, 1978, 「西川西南地區大石墓族屬試探」, 『考古』2
 梅原末治, 1947, 『朝鮮古代の墓制』
 三上次男, 1961, 「朝鮮半島における支石墓の存ら方について-支石墓の資料檢討・定理と 支石墓集成表の作成」, 『滿鮮原始墳墓の研究』, 吉川弘文館
 西谷正, 1997, 『東アジアにおける支石墓の綜合的研究』, 九州大學 文學部 考古學研究室
 岩村清, 1979, 「東北アジアの支石墓研究入門」, 『考古學ジャーナル』161, ニューサイエンス社
 鳥居龍藏, 1923, 「朝鮮慶尙南道金海に存すドルメン」, 『人類學雜誌』39-1, 東京帝大 人類學會
 有光教一, 1973, 「韓半島の支石墓」, 『東洋學』, 檀國大學校
 全榮來, 1991, 「韓半島支石墓の形式學的展開」, 『九州考古學』66, 九州考古學會
 沈奉謹, 1979, 「支石墓の形式分類と編年について」, 『社會科學輯刊』52
 太母山傳, 1975, 「韓國の支石墓紹介(1)(2)」, 『どるめん』5-6
 太母山傳, 1979, 「韓國支石墓踏査記(1)(2)(3)」, 『東アジアの古代文化』18・19・20, 大和書房
 藤口健二, 1986, 「朝鮮無文土器と彌生土器」, 『彌生文化の研究』3, 雄山閣
 藤尾慎一郎, 2002, 「朝鮮半島の突帶文土器」, 『韓半島考古學論叢』
 家根祥多, 1997, 「韓國無文土器から彌生土器へ」, 『立命館大學考古學論集』1
 庄田慎矢, 2004, 「韓國嶺南地方西南部の無文土器時代編年」, 『古文化談叢』第50集下

3. 도록 및 단행본

경상고고학회, 2000, 『서부경남의 선사·가야유적』, 경상고고연구회자료집1
경상남도·동아대학교박물관, 1999, 『남강유역문화유적발굴도록』
국립경상대학교박물관, 2004, 『발굴유적과 유물도록』, 국립경상대학교박물관 20주년 기념 도록
국립김해박물관, 2003, 『변진한의 여명-점토대토기의 등장』
국립김해박물관, 2005, 『전환기의 선사토기』
국립김해박물관·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2000, 『고고학이 찾은 선사와 가야』
국립대구박물관, 2005, 『사람과 돌』, 2005년 국립대구박물관 특별전 도록
국립중앙박물관, 2000, 『겨레와 함께 한 쌀』, 새천년 특별전 도자문화3000년
국립진주박물관, 2002, 『청동기시대의 대평·대평인』
김진수, 1999, 『한국 원시고대의 어로문화』, 학연문화사
김원룡, 1965, 『한국사전유적유물지명표』,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원룡, 1987, 『한국고고학연구』, 일지사
김원룡·임효재, 1968, 『남해도서고고학』,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김재원·윤무병, 『한국 지석묘 연구』, 국립중앙박물관 고적조사보고6
대성동고분박물관, 2004, 『김해의 고인돌』, 금관가야 학술총서 I
대성동고분박물관, 2005, 『금관가야의 대외교류』, 금관가야 학술총서 II
동삼동패총전시관, 2004, 『신석기시대의 토기문화』
동아대학교박물관, 2003, 『발굴유적과 유물』
동아대학교박물관, 2005, 『낙동강·남해안의 문화유적』
문화재관리국, 1996, 『동아시아의 청동기문화 : 묘제와 주거』
문화재관리국, 1998, 『지정문화재목록』
문화재청·서울대학교박물관, 1999, 『한국 지석묘(고인돌)유적 종합조사·연구-분포, 형식, 기원, 전파 및 사회복원』
복천박물관, 2003, 『기술의 발견』
부산대학교박물관, 1996, 『선사와 고대의 문화』, 부산대학교 개교50주년기념도록
신라대학교박물관, 2000, 『신라대학교박물관』
심봉근, 1990, 『한국 청동기시대 문화의 이해』, 동아대학교출판부
심봉근, 1990, 『韓國에서 본 日本彌生文化의 展開』, 학연문화사
안승모, 1996, 『한국 선사농경연구의 성과와 과제』, 『선사와 고대』7
안승모, 1998, 『동아시아 선사시대의 농경과 생업』, 학연출판사
영남고고학회, 1999, 『영남지방의 구석기문화』, 제8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이건무·조현중, 2005, 『선사유물과 유적』, 도서출판 솔
이기길, 1995,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의 질그릇과 살림』, 백산
이상균, 1998, 『신석기시대의 한일문화교류』, 학연문화사
이용조 외, 2002, 『우리의 선사문화(Ⅲ)』, 지식산업사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편저, 2003, 『진주 남강유적과 고대일본』, 신서원
최몽룡·김선우, 2000, 『한국 지석묘 여누이론과 방법-계층사회의 발생-』, 주류성
坂田邦洋, 1978, 『韓國隆起文土器の研究』, 昭和堂
하인수, 1997, 『부산의 선사유적과 유물』, 부산시립박물관 복천분관
한국고고학회, 1990, 『한국 지석묘의 제문제』, 제14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발표요지

VI

특별논고

경남지역의 신석기문화

경남지역 무문토기 문화의 형성과 전개

경남지역의 신석기문화

-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

하 인 수(북천박물관)

- I. 머리말
- II. 유적의 종류와 분포
- III. 즐문토기의 성립과 전개
- IV. 생업활동
- V. 대외교류
- VI. 맺음말

I. 머리말

경남지역의 신석기 연구는 1920~30년대 일인 학자들의 연구 활동과 암남동, 동삼동, 영선동, 다대포패총과 신암리유적 등 해안지역의 유적 조사를 계기로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일찍 시작되었다. 그 이후 1960년대에 이루어진 동삼동패총 발굴이 일제강점기 이후 불투명했던 신석기시대 변천과정과 문화 양상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였고, 한반도 신석기문화를 이해하는 표지적인 유적으로 자리 잡게 됨으로서 활발히 전개된다.

1980년대에 들어 수가리패총의 발굴 결과 남부지역 즐문토기 편년 체계가 어느 정도 마련되고, 연대도, 육지도, 상노대도, 산등패총, 범방패총, 대야리, 봉계리, 임불리유적의 발굴조사로 기존의 신석기문화상을 재조명할 수 있는 신자료가 확인되면서, 이 지역의 신석기연구는 보다 다양화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1990년대 이루어진 동삼동패총의 재조사와 범방유적, 하동 목도패총, 세죽유적, 우봉리유적의 발굴은 동남해안지역 신석기문화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진주 남강유역의 상촌리, 밀양 살내, 금천리, 청도 오진리유적과 최근 조사된 창

녕 비봉리유적의 조사는 내륙지역 신석기문화의 실상에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즐문토기문화 성립기의 문화양상, 계통, 연대문제 등을 포함하여, 즐문토기의 변천과정, 세부 편년체계, 농경문제, 시기별 생업형태와 구조, 해안지역과 내륙지역 즐문토기문화의 지역성 문제 등 풀어야할 숙제는 산적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고고 자료의 과학적인 분석과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경남지역 신석기문화의 전반적인 양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직 많은 한계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발굴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관련 자료가 풍부한 해안지역 자료를 중심으로 개략적인 문화상만 살펴보고자 한다.

II. 유적의 종류와 분포

경남지역은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인 자연·환경적 요인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신석기유적과 유물들이 남아 있다. 현재까지 발굴 조사된 유적과 지표조사 그리고 미발표된 자료를 포함하면 유적 수는 약

100 개소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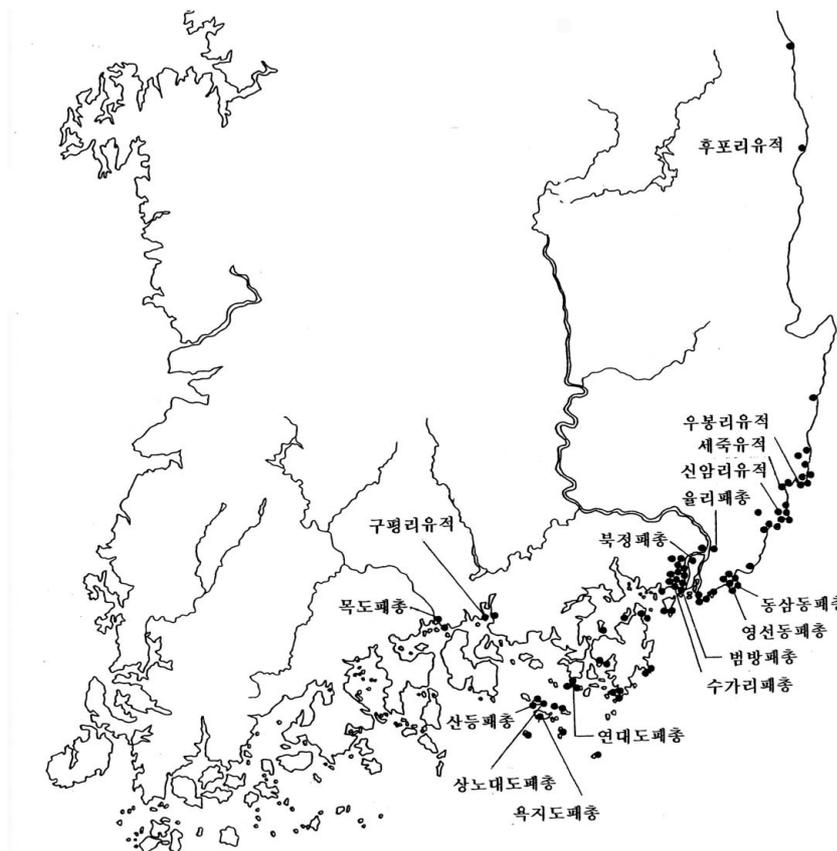
대부분의 유적은 생존과 생업활동에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갖춘 해안지대나 도서지역, 큰 하천의 내만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내륙의 하천변에도 많은 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해안선이 단조로운 동해안지역보다 해안선의 굴곡과 출입이 심하고 3000여개의 섬들로 다도해를 형성하고 있는 남해안지역에 많은 유적이 집중되어 있는데【도1】,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일차적으로는 타 지역에 비해 신석기인의 식량 자원 획득과 생업활동에 유리한 남해안지역의 자연

환경과 생태학적 조건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²⁾

다시 말하면 도시와 만이 발달한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과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기수역의 발달, 기온차가 적은 온대성 기후대는 신석기인의 정주생활과 생업활동에 적합한 환경일 뿐 만 아니라 연중 내내 안정적으로 식량자원을 공급해주기 때문이다.

【도1】은 현재까지 확인된 경남해안지역의 유적분포도인데, 분포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남해안지역의 유적은 남해안의 연안과 도서부, 그리고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해안지역, 울산만을 중심으로 하는



【도1】 경남해안지역 유적분포도

1) 논의의 편의상 경북 해안지역에 분포하는 유적도 포함시켰음을 밝혀 둔다.

2) 최근 동해안의 울산지역에서도 많은 신석기유적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 지역은 다른 곳에 비해 유적의 분포가 조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유병일 1999). 이러한 양상은 울산을 중심으로 하는 해안지역이 해안선 출입이 다소 복잡하고 만이 발달한 환경적 요인이 즐문토기인의 생업과 생존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해안지역의 3개 권역에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해안지역의 경우는 울산 해안지역을 제외하고는 유적의 분포 빈도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고 낙동강의 하구 변에 위치하는 부산 일대는 분포빈도가 매우 조밀한 상태를 보인다. 이와 같이 특정지역을 권역으로 하는 곳에 유적이 집중 분포하는 현상은 신석기인의 생업전략과 생존방식이 거주 환경과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남해안지역의 유적 분포형태는 시기별 혹은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는데, 외형상 간취되는 유적의 입지상 특징으로 본다면, 연대도, 옥지도, 상노대도, 산등패총과 같이 해안지역 근해에 형성되어 있는 대소 도서에 분포하는 유형(도서형유적)과 동남해안의 신암리, 세죽, 우봉리, 다대포 패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해를 조망하는 연안부에 입지하는 유형(연안형유적), 범방이나 수가리, 북정, 화목동, 울리, 목도패총과 같이 외해에 근접하는 하구부근의 내만지역에 분포하는 유형(내만형유적)으로 나눌 수 있다.³⁾

경남해안지역은 전술한 바와 같이 타 지역에 비해 유적의 분포상태가 조밀하고, 다양한 성격과 문화적 양상을 보여주는 여러 종류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최근까지 이 지역에서 조사된 유적을 그 성격별로 보면, 패총, 주거지, 분묘, 야외 생활지, 산상유적 등이 있다. 이 중에는 아직 정식 보고되지 않아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유적도 있으나 기보고 자료를 통해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적의 성격에 대해서는 본서의 주제별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상세한 기술은 생략하기로 한다.

패총유적은 이 지역에서 일찍부터 조사 연구되어 온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이고, 실제로 신석기문

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변천과정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문화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동삼동패총을 비롯한 조도, 울리, 수가리, 범방, 북정, 안골포, 연대도, 옥지도, 산등, 목도, 세죽, 상노대도패총이 있다. 물론 이들 유적 중에는 순수 패총도 있으나, 동삼동이나, 범방, 연대도, 목도 패총같이 주거지나, 분묘 등이 혼재해 있는 복합유적도 있다.

주거유적은 단독으로 조사된 것은 없고, 동삼동이나 목도패총의 예와 같이 패총의 문화층 속에 포함되어 있거나, 울리유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패총과 주거 공간이 함께 공존하기도 한다. 또한 목도패총과 오진리유적의 예와 같이, 패류 채집이나 어로를 위한 한시적인 생업공간으로 주거를 조성한 경우도 있다.(국립진주박물관 1999, 부산대 박물관 1994)

따라서 단순 주거유적의 조사 예는 적고, 일부 확인된 자료도 부분적으로 밖에 잔존하고 있지 않아 해안지역 주민의 주거 형태와 구조, 시기별 주거 형식의 변화 등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그러나 내륙지역의 상촌리나, 대야리, 임불리유적의 예로 보아 주거의 구조는 장방형 내지 방형의 수혈 주거지로 생각된다. 이 밖에 유물 포함층유적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패총을 남긴 주민의 주거유적도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분묘유적으로는 울진 후포리유적에서 40인 이상이 매장된 집단묘 성격의 분묘와 범방패총의 최하층과 산등패총에서 확인된 토광묘, 연대도와 옥지도패총에서 조사된 적석 토광묘, 동삼동패총의 최하층인 용기문토기 문화층에서 검출된 옹관묘 등이 있다.

이밖에 패총이나 주거지 주변에서 발견되는 원형집석 유구를 분묘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분묘라기보다 음식을 조리하기 위한 노지로 보는 것

3) 본고에서 언급한 유적의 분포유형에 따른 분류는 유적 입지 상에서 관찰되는 편이상 구분에 지나지 않으며, 유적의 입지와 분포 상에서 간취되는 유적의 성격과 문화적인 특징에 대한 고찰은 관련 유적의 종합적인 분석과 시기별 혹은 지역적인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타당하다. 야외 생활지는 거주에 필요한 주거나 기타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유적을 편의상 구분한 것인데, 대표적인 유적인 범방유적이다. 범방유적은 당시 해안가에 형성되어 있는데, 주거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음식물을 조리한 원형노지와 집석유구 57기가 검출되었으며, 집석노지 주위와 해안선에서는 다량의 석부류와 즐문토기가 출토되었다(하인수 2002b).

따라서 범방유적의 성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나, 각 문화층에서 출토된 유물의 조합상과 성격, 주변의 자연조건과 생업환경 등으로 보아 범방패총을 남긴 신석기인들의 야외생활 공간으로 추정된다.

산상유적은 유구가 확인되지 않고 지식과 석부류만 출토되어 성격이 명확하지 않는 면도 있으나, 주변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산상의 고지에 유적이 입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부산 다대포 봉화산유적(하인수 1991)과 이길봉수대 유적(부산박물관 2003), 서해안의 계화도유적(전영래 1979), 해안지역은 아니지만 청도 사촌리유적(김상면 1990) 등이 있다.

특히 다대포 봉화산(해발 233m)과 이길봉수대(해발 129m)유적, 계화도유적(해발 246m)은 조선시대 봉수대가 설치된 곳으로, 이곳은 전면의 바다를 바라보면 주변 지세를 조망할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산상유적 특징은 사촌리유적을 제외하고 주위의 지형, 지물을 잘 조망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너무 고지이고 산세가 험해 주거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부적당한 곳이다. 따라서 산상유적은 생활유적이기보다는 유물의 출토상황, 관련 유구의 부재, 유적의 입지환경 등을 통해 볼 때 제례 혹은 분묘유적으로 추정된다.

산상유적은 대부분이 조선시대 봉수시설을 축조할 때 파괴 유실되어, 관련 유구의 정확한 실상은 알 수 없으나, 다대포 봉화산유적에서 마제·타제석부, 지식, 찰절석기 등의 석기류가 일괄 수습되고, 사촌리

에서는 분묘의 부장품으로 매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결상이식이 출토된 점을 미루어 분묘유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아무튼 산상유적은 관련유구가 확인되지 않고, 유물들이 우연히 수습된 관계로 성격이 불투명한 점도 없지 않으나, 유사한 사례가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적어도 유적의 입지상 타유적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밖에 한시적인 생업활동의 흔적으로 생각되는 유적으로는 전술한 목도패총과 정식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부산 가덕도의 외양포패총(부산여자대학교박물관 1993)이 있다. 외양포패총은 섬의 육지부와 접해 바다 쪽으로 훅처럼 돌출한 바위섬에 입지하고 있는데, 패총의 규모가 매우 작고, 주위가 절벽에 가까운 급경사를 이루어, 생활공간으로 부적당하므로 계절적으로 어패류를 획득하기 위한 한시적인 캠프 같은 곳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경남해안지역에서 조사된 유적을 성격 별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이들 유적 모두가 동일한 성격과 문화상을 갖는 것은 아니다. 시기적으로 새로운 문화적 성격을 갖는 유적이 등장하고 또는 소멸하기도 하며, 혹은 유적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하면, 해안지역에 분포하는 개별 유적은 모두가 그 성격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유적을 형성한 집단의 규모나 사회·경제적 활동의 차별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별 유적이 갖는 문화적 성격과 그 특징에 대한 규명은 앞으로 충분한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와 연구 성과를 기초로 볼 때 경남해안지역의 동삼동패총, 범방유적, 연대도패총, 육지도패총, 신암리유적 등은 유적의 성격, 규모, 입지, 거주연속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당해 지역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거점적 성격을 갖는 유적으로 추정되며, 이들 거점 유적

의 역할은 특히 교역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하인수 2001).

Ⅲ. 즐문토기의 성립과 전개

1. 즐문토기문화의 성립

한반도의 신석기문화 성립기의 양상과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이웃한 일본과 동북아시아의 발굴조사와 연구 성과로 보아 적어도 지금부터 1만2천년 전 쯤에는 신석기문화가 시작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들어 아시아 동북 각지에서는 BC 1만년을 상회하는 토기와 구석기말기의 전통을 갖는 석기군을 출토하는 유적의 조사가 증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바이칼 동부의 우스티카흐타 I 유적에서는 B.P. 12,000년의 절대연대치를 갖는 무문양토기가 세석기군과 함께 발견되고, 아무르 중하류역의 가샤, 그로마투화, 우스티우리마, 후미, 콘차르카, 우스티카렌카 등의 유적지에서도 고식의 토기가 출토되고 있다.【도2】

한편 일본열도 내에서도 지금까지 최고의 토기형식으로 인식되어온 용기선문토기 보다 선행하는 神奈川縣 寺尾유적의 자돌문토기와 이 보다 앞서는 것으로 추정되는 大平山元 I, 後野유적에서 무문토기군이 조사됨에 따라 승문토기의 기원론에 대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변지역의 이러한 조사 연구는 지금까지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던 한반도 신석기문화의 개시문제와 기원·계통, 편년 등에 새로운 시각과 검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동아시아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초기신석기문화가 연구되어야 함을 보여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시점에 한반도 초기 즐문토기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는 제주도 고산리유적의

발굴 성과(강창화 2002)는 그 동안 자료 부족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한반도 초창기 즐문토기문화의 실체와 기원을 규명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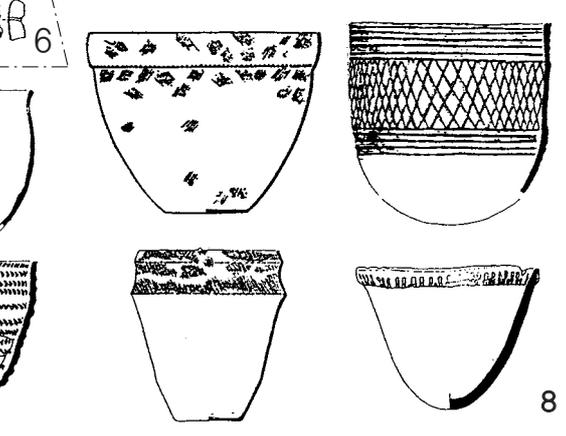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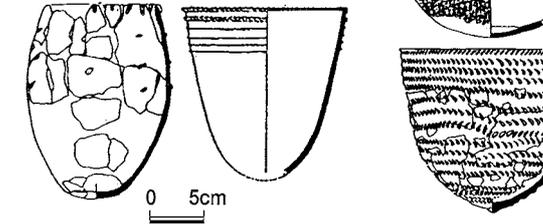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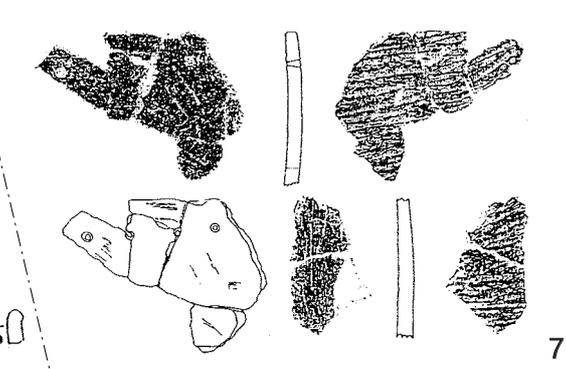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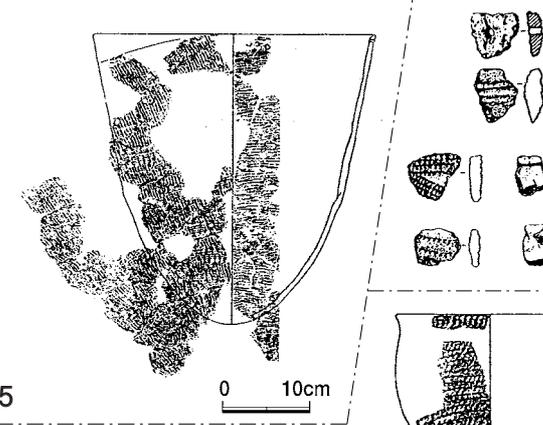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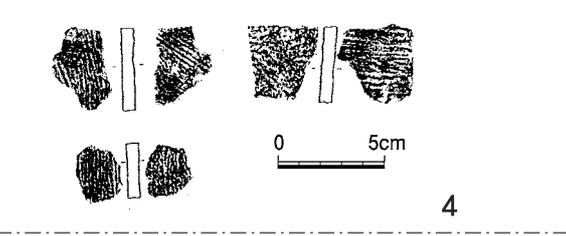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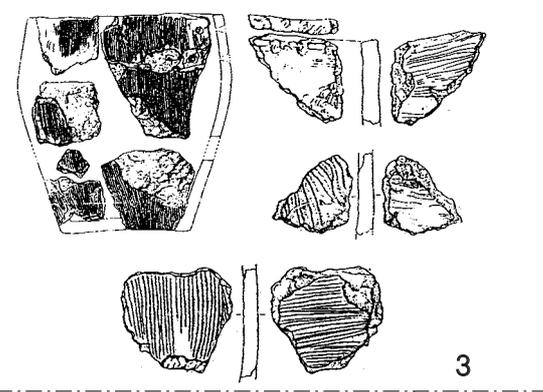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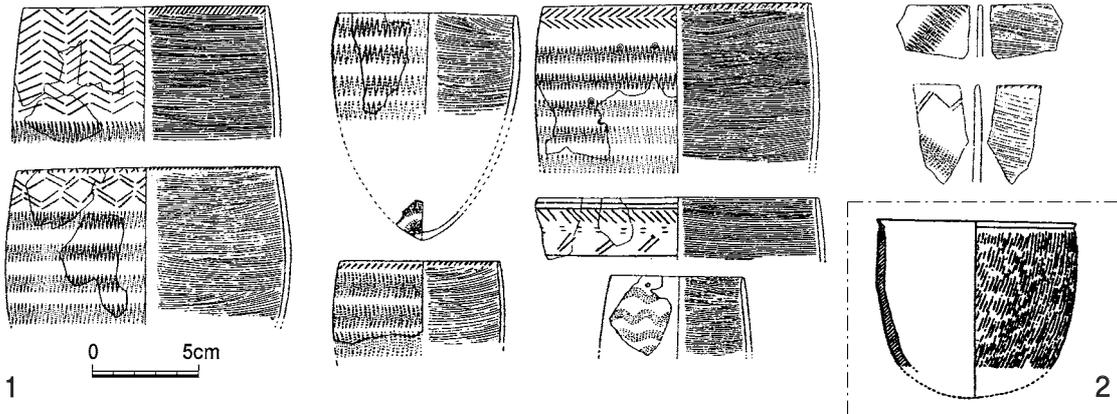
앞으로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제주도 고산리유적의 후기구석기의 문화요소가 잔존하는 석기류와 고식의 즐문토기(고산리식토기)는 남해안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즐문토기문화의 성립과 기원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임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2. 즐문토기의 변천과 편년

신석기유적에서 발견되는 각종 유물 중 가장 다량으로 출토되는 것은 즐문토기이다. 이 즐문토기는 시기에 따라서 혹은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와 문양을 갖추게 되고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형과 문양이 변하여 간다. 이러한 즐문토기의 변화를 통해 불완전하지만 신석기문화의 대략적 변천 과정을 살필 수 있다.

기존 남해안지역의 즐문토기문화의 편년은 용기문토기를 표식으로 하는 초기, 자돌·압인문토기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영선동식토기가 주류를 이루는 전기, 태선침선문을 기본 문양형태로 하는 중기, 태선침선문이 퇴화하고 축소된 시문 부위를 갖는 토기와 봉계리식토기가 성행하는 후기, 마지막으로 침선문기법이 거의 사라지고 새로이 이중구연, 단사선문 등이 유행하는 만기의 5단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제주도 고산리, 청도 오진리유적의 예에서 본다면 용기문토기의 앞 단계 토기 문화가 상정되고 있고, 그간 신자료의 축적과 연구 성과로 본다면 기존 편년안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제주도 고산리유적과 청도 오진리유적의 발굴 성과를 참고하고 수가리패총의 편년안을 재검토한 결과 남부지역 즐문토기문화를 6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하인수 2006). 이를



【도2】 동북아시아 신석기시대 초창기 토기 (축척 부동)
 1 우스치카렌카유적, 2 선인동유적, 3 가사유적, 4 휴미유적, 5 그루마투하유적, 6 우스치울마유적, 7 우스치카렌카유
 적, 8 일본각지

참고하여 경남지역 즐문토기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도3】.

제1단계는 신석기문화의 초창기로 성립 시기라든가 구체적인 문화 실상은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제2단계는 신석기문화의 초기(B.C.6,000~B.C.4,500)로 용기문토기를 주로 사용하던 시기이다. 제3단계는 신석기시대 전기(B.C.4,500~B.C.3,500)로 부산의 영선동패총 문화를 특징으로 하던 시기이며, 소위 영선동식토기가 유행하던 시기이다. 제4단계는 신석기시대 중기(B.C.3,500~B.C.2,700)로 소위 빗살무늬토기로 불리는 태선침선문토기 즉 수가리 I 식토기가 남부지방의 해안지대 및 내륙지역에 유행하던 시기이며 남부지역 신석기문화가 가장 발달하던 시기이다.

제5단계는 신석기시대 후기(B.C.2,500 전후)로 수가리 I 식토기가 쇠퇴하고 퇴화침선문의 수가리 II 식토기와 외반구연 옹형의 봉계리식토기가 성행하는 시기이다. 신석기시대 마지막 단계인 6단계(B.C.2,000 전후)는 이중구연토기와 단사선문토기를 지표로 하는 올리식토기가 유행하는 시기이다. 그러면 앞서 설명한 토기문화 단계를 토대로 시기별 즐문토기의 특징과 변천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초창기 즐문토기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발견된 신석기시대 토기 중 확실한 절대 연대를 갖는 최고의 토기는 용기문토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용기문토기가 한반도 최초 혹은 초창기의 토기형식이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용기문토기의 절대연대 측정치가 B.C. 6,000년을 넘지 못하며, 이것은 이웃한 일본과 러시아의 최고 형식의 토기와는 그 연대가 적어도 4,000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용기문토기 전단계의 토기양상 내지 문화에 대한 성격이 무엇보다도 먼저 밝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 한반도내에서 발견된 신석기시

대의 유적과 유물 중에서 용기문토기문화 성립전의 모습을 밝혀 줄 양호한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남부지방 초기 즐문토기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토기가 제주도 고산리유적(제주대학교박물관 1998·2003)과 청도 오진리 암음유적(부산대학교박물관 1994)에서 발견됨으로써 한반도 초기 신석기시대의 모습을 어느 정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 고산리 유적에서 출토된 무문양토기와 자돌점열문토기(고산리식토기로 부름)는 한반도 내륙지역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토기이다. 고산리식토기의 태토 속에 식물성 섬유질이 다량 혼입되어 있는 점, 지그재그형의 점열문토기, 이들 토기가 후기 구석기의 종말기적 특징을 갖는 석기류와 공반되고 있는 점에서 동북아시아 아무르강유역의 초창기 신석기시대 토기와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하인수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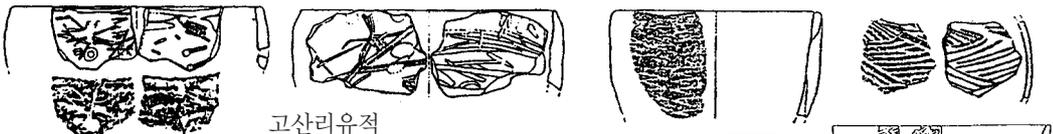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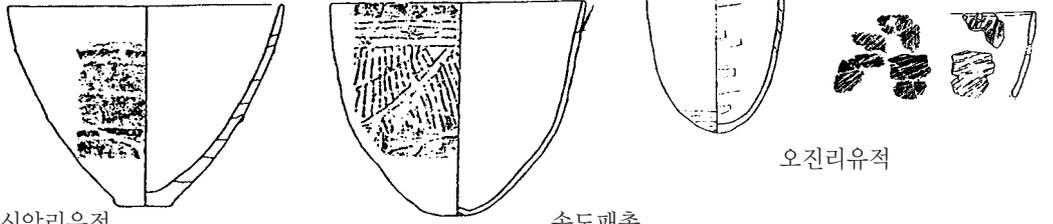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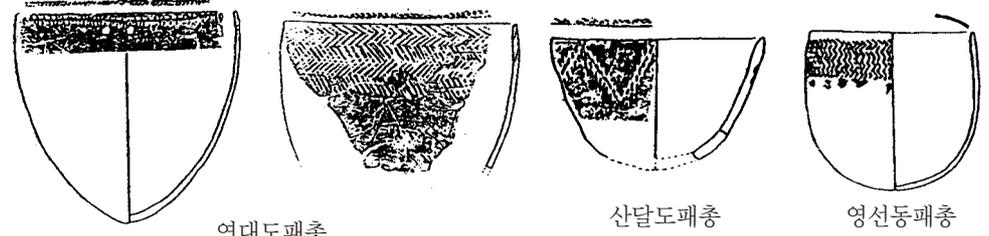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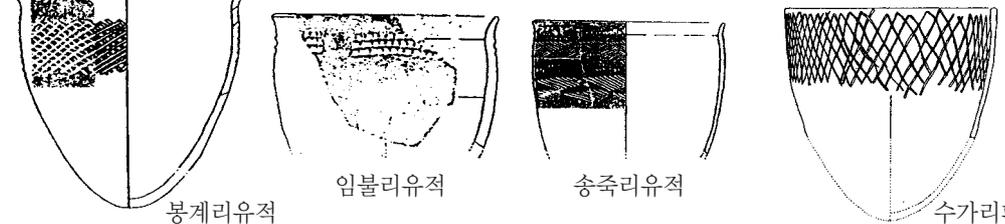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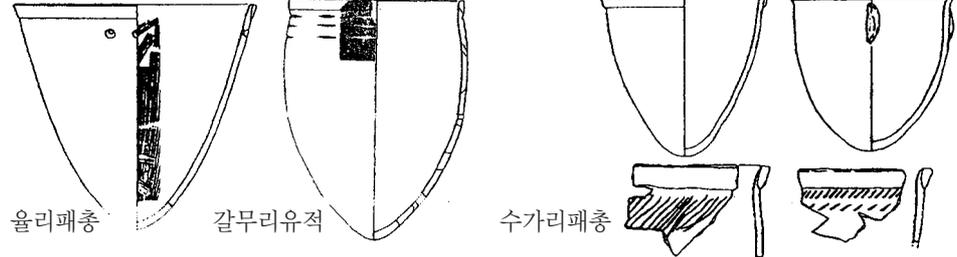
특히 지그재그 형태의 점열문이 종으로 시문된 점열문토기는 시문기법과 문양의 형태에서 아무르강 상류의 우스치카렌카유적의 초창기토기와 동일하다. 고산리식토기의 시간적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과학적인 연대측정치가 없어 단정할 수 없으나 토기의 형식적 특징이 아무르강유역의 초창기 토기와 유사하고, 식물성 섬유질이 다량으로 혼입된 태토를 동북아 초창기 토기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자는 제주도 고산리유적에서 출토된 일군의 토기가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시대 초창기 토기 중의 하나라고 추정하고 있다.

아무튼 이들 자료들은 보다 넓은 시각에서 동북아시아 여러 지역의 초기 신석기시대 문화와 비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2) 초기 즐문토기

신석기시대 초기 즐문토기를 대표하는 형식이 토기의 표면에 가는 점토띠를 붙여 여러 가지 무늬를 기

토기 형식

초창기	 <p>고산리유적</p>
조기	 <p>신암리유적 송도패총 오진리유적</p>
전기	 <p>연대도패총 산달도패총 영선동패총</p>
중기	 <p>갈무리유적 송죽리유적 육지도패총 수가리패총</p>
후기	 <p>봉계리유적 임블리유적 송죽리유적 수가리패총</p>
말기	 <p>울리패총 갈무리유적 수가리패총</p>

[도3] 남부지역 즐문토기 편년표 (축척 부동)

하학적으로 장식한 용기문토기이다. 용기문토기의 계통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으나 중국 동북지방 아무르강 하류역의 토기문화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정징원 1991, 하인수 2002a).

용기문토기는 용기문만 단독으로 시문된 경우와 가는 침선문, 점열문 등 여러 문양이 함께 시문된 복합문 형태가 있다. 용기문토기의 가장 큰 특징은 저부가 대부분 납작한 평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초기 즐문토기 중에는 지두문토기, 세침선문토기, 두립문토기, 단도마연토기, 무문양토기, 파수부토기 등도 제작되고 있으나 무문양토기 이외에는 모두 용기문토기보다 출토 비율이 적다.

용기문토기가 출토되는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울산 세죽패총, 범방유적, 강원도 문암리유적, 연대도패총, 동삼동패총 8-9층 등이 있다.

3) 전기 즐문토기

용기문토기 다음으로 등장하는 토기는 끝이 뾰족하거나 둥근 시문구로 눌러 찍어 여러 가지 문양을 장식한 토기이며, 부산 영선동패총에서 처음으로 출토되어 영선동식토기로 불리고 있다.

영선동식토기는 주로 경남 해안지역에서 출토되고 있으나 최근 남부내륙과 서해안지역에서도 출토예가 증가하여 그 분포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시문수법에 따라 자돌문토기, 압인문토기, 압날문토기, 조압문토기, 세침선문토기, 세단사선문토기, 구순각목토기 등으로 나누어지며(하인수 1997), 형태는 밑이 둥근 발형, 완형, 호형, 주구형, 천발형 등이 있다. 문양 형태는 자돌 내지 압인 기법으로 시문한 점열문, 어골문, 사선문, 격자문 등의 단독문과 문양요소가 상호 결합한 복합문이 있다. 관련 유적으로는 동삼동패총 3호주거지, 하동 목도패총, 영선동패총, 밀양 살내유적 등이 있다.

4) 중기 즐문토기

영선동식토기 다음으로 출현하는 것은 중서부지방의 암사동식토기의 영향을 받은 침선문토기이다. 중기의 즐문토기는 우리가 흔히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로 부르는 형식이다. 이 형식은 남해안식 태선침선문토기 혹은 수가리 I 식토기로도 불린다.

기종은 심발, 발, 천발, 호형, 웅, 완, 파수부토기, 깔대기형토기 등이 있으며 앞 시기에 비해 기종구성이 다양하고 대형이 많다. 토기의 밑바닥 형태는 원저와 침저가 주류를 이루나 평저도 있다. 구연부는 직립하고 문양을 구성하는 선이 굵은 태선문인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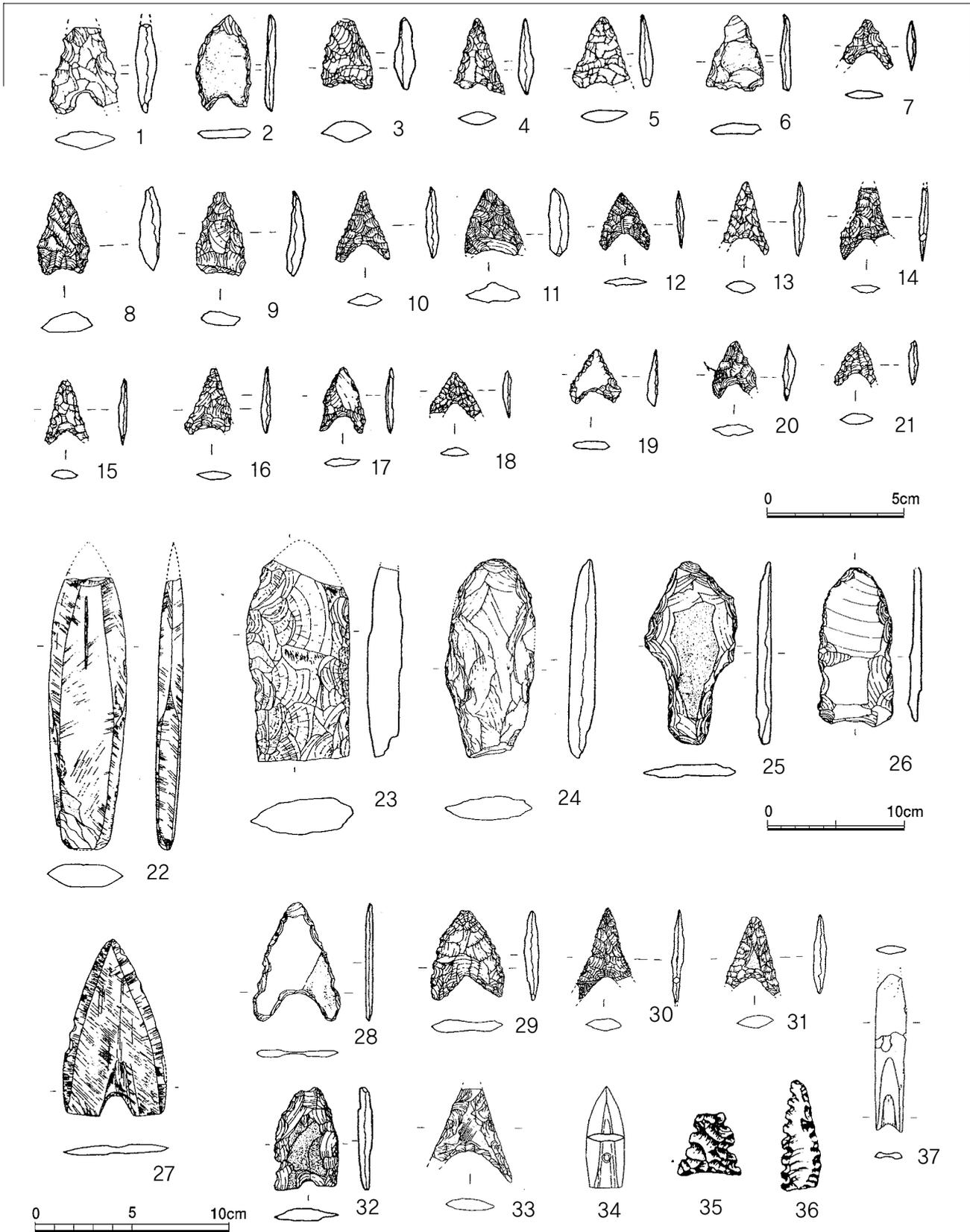
토기의 전면에는 침선 기법으로 어골문, 격자문, 삼각문, 집선문, 사선문, 마름모문 등의 기하학적 문양이 단독 혹은 복합 시문된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김해 수가리패총, 동삼동패총, 범방유적, 신암리, 진주 상촌리 주거지 등이 있다.

5) 후기 즐문토기

전형적인 빗살무늬토기 다음 단계에 등장하는 토기는 퇴화된 침선문과 자돌점열문을 주요 문양으로 하는 수가리 II 식토기와 봉계리식토기이다. 이들 토기는 태선침선문이 퇴화·단순화되고, 문양대가 축소·간략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문양 형태는 거칠게 새긴 격자문과 점열문, 압인문 등이 토기의 구연 부근에 시문되는데 후기 후반 무렵에는 토기 구연부가 가볍게 외반하면서, 세격자문, 점열문, 압인문 등이 시문되는 소위 봉계리식토기가 유행한다. 후기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수가리 제2문화층과 동삼동 3·4층(제4문화층), 합천 봉계리, 거창 임불리유적, 진주 상촌리유적 등이 있다.

6) 말기 즐문토기

퇴화침선문토기 다음으로 등장하는 토기는 구연을 이중으로 덧대어 만든 이중구연토기(겹아가리토기)와 구연부 아래에 짧은 단사선을 1열 내지 수열 시문



【도4】 수렵·어로구(축적 부동)

1~7, 24~26, 28, 29, 32, 37(목지도), 8~21, 30, 31, 33(연대도), 22, 27(세죽), 23, 34(범방), 35, 36(상노대도)

한 단사선문토기이다. 남부지역 즐문토기 중에서 가장 늦게 출현한 형식이며, 대표적인 유적을 따라 울리식토기로 불린다. 분포범위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남부내륙과, 제주도, 서해안까지 미치고 있다.

말기 즐문토기는 구연부의 이중구연, 퇴화단사선문, 사질성태토를 특징으로 하며, 전 단계에 비해 유문양 토기의 비율이 감소하고 무문양토기가 증가한다. 문양이 있는 경우에도 구연 주위만 한정하여 장식되고 문양 구성도 매우 단순하고 조잡하다.

문양의 형태는 단사선문, 거치문, 손톱문, 세격자문, 점열문 등이 있으며 관련 유적으로는 부산 울리패총, 사천 구평리패총, 동삼동패총 제2층, 금천리, 오진리유적 등이 있다.

IV. 생업활동

빙하시대가 끝나고 후빙기에 접어들면서 한반도는 동·식물상이나 자연환경, 생태 등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특히 약 12만년 전에 시작된 최종 빙하기가 끝나는 무렵,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신석기인들은 생존을 위해 수렵과 어로, 농경, 채집, 의례, 교역 활동 등을 통해 생업 영역의 확대와 형태를 다양화하고 생활양식을 개선하게 된다⁴⁾.

이러한 사실은 오랜 구석기 기간 동안 주요 생계 수단으로 이용된 수렵 중심의 생업활동만으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존기반을 항구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업전략과 생업형태의 구축이 필요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생업이란 『생존의 구체적인 실현 과정이며, 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존을 실현하는 과정은 집단을 둘러싼 자연환경이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생업 형태로 나타나며, 시기에 따라 혹은 집단의 생존전략에 의해 그 형태가 변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도 한다. 특히 신석기인들의 생업형태는 거주지역의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데, 유적을 둘러싼 자연 환경은 생업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유적과 환경간의 상호작용 결과는 다양한 생업활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신석기시대 생업형태는 노동력을 투입하여 식량자원을 획득하는 직접적인 생산활동과, 생존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으나, 생산 활동에 간접적인 효과 내지 영향 주는 간접적인 생산활동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⁵⁾. 전자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렵, 어로, 채집, 농경활동이 있으며, 이는 생존전략에 따른 적극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후자는 교역과 생업활동의 안전, 동식물의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주술, 의례 등을 들 수가 있다. 후자는 직접적으로 생산에 관계하지는 않지만 행위의 결과가 식량획득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생산 활동을 배가하는 효과를 주기도 한다.

이러한 생업활동의 여러 형태는 자연계의 순환에 따라 변화하는 동식물의 생태학적 동향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식량자원의 확보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연계의 질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계획적인 생업전략이 필요하였음은 물론이다. 그러면 최근 발굴 성과를 참조하면서 경남해안지역의 생업활동의 내용과 그와 관련된 도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⁶⁾.

4) 구석기인은 극히 한정된 식물이나 중대형의 동물을 포획함으로써 기본적인 식량을 확보하였지만, 새로운 자연환경에 적응한 신석기인은 주변의 자연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식량자원과 생업활동의 범위를 확대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5) 일반적으로 생업경제에 있어서 동식물 자원의 관리를 통해 식량자원을 산출(생산)하는 의미로 생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생존을 위해 노동력을 투입하여 식량자원을 획득하는 활동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6) 생업활동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안승모(1998)와 신숙정(1994)의 논고를 참고하였다.

1. 어로활동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는 경남해안지역은 근해에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며, 리아스식 해안이 발달해 있다. 특히 남해안지역은 어류의 서식과 산란장으로 적합한 생태 환경을 갖추고 있어 각종 어패류가 많이 서식하고 있다. 이 같은 자연 조건은 즐문토기인을 해안지역에 머물게 하고, 어로활동이 주요 생업기반으로써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남해안지역의 동삼동, 범방, 연대도, 육지도패총 유적에서 출토된 각종 어패류와 고래, 물개 등의 해수류 유존체 그리고 이들을 포획하는데 사용된 다양한 어구는 이 지역에 거주하였던 즐문토기인의 어로활동의 실태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상어, 방어, 다랑어, 참돔, 물개, 돌고래 등의 외양성 어종과 해수류가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다는 사실은 즐문토기인이 먼 바다까지 진출하여 어로활동을 하였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외양성 어업의 발달은 결국에는 대한해협을 사이에 둔 일본의 구주지역과 남해안지역의 지속적인 문화교류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신석기시대의 어로활동 영역은 크게 작살업, 낚시업, 어망업, 그리고 패류 채취업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작살업과 낚시업은 외양성 어업을 나타내고, 어망업과 패류채취는 내만성 어업을 보여준다(김건수 1999).

해안가에 거주하던 즐문토기인이 어떠한 종류의 고기를 포획하였고, 어떤 종류의 조개를 채취했는가는 부산의 동삼동패총을 비롯한 남해안 연대도, 육지도, 송도패총의 조사 성과를 통해 알 수 있다.

남해안지역의 패총에서는 도미, 농어, 돔, 방어, 참치, 대구, 정어리, 상어, 가오리, 송어 등의 고기뼈가

출토되는데, 대부분 중형의 어류로 단백질의 함량이 높은 것이다. 이 중에서 대구는 겨울철 리만해류를 타고 연해주 연안에서 동해안을 따라 내려오는 것으로 당시 즐문토기인은 각종 어류의 특성과 회유하는 시기를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들을 잡기 위해서 먼 바다까지 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형 어종을 포획하기 위해 동삼동과 범방패총 등 여러 유적에서 출토되는 결합식 낚시바늘【도5-7~20】을 이용하기도 하였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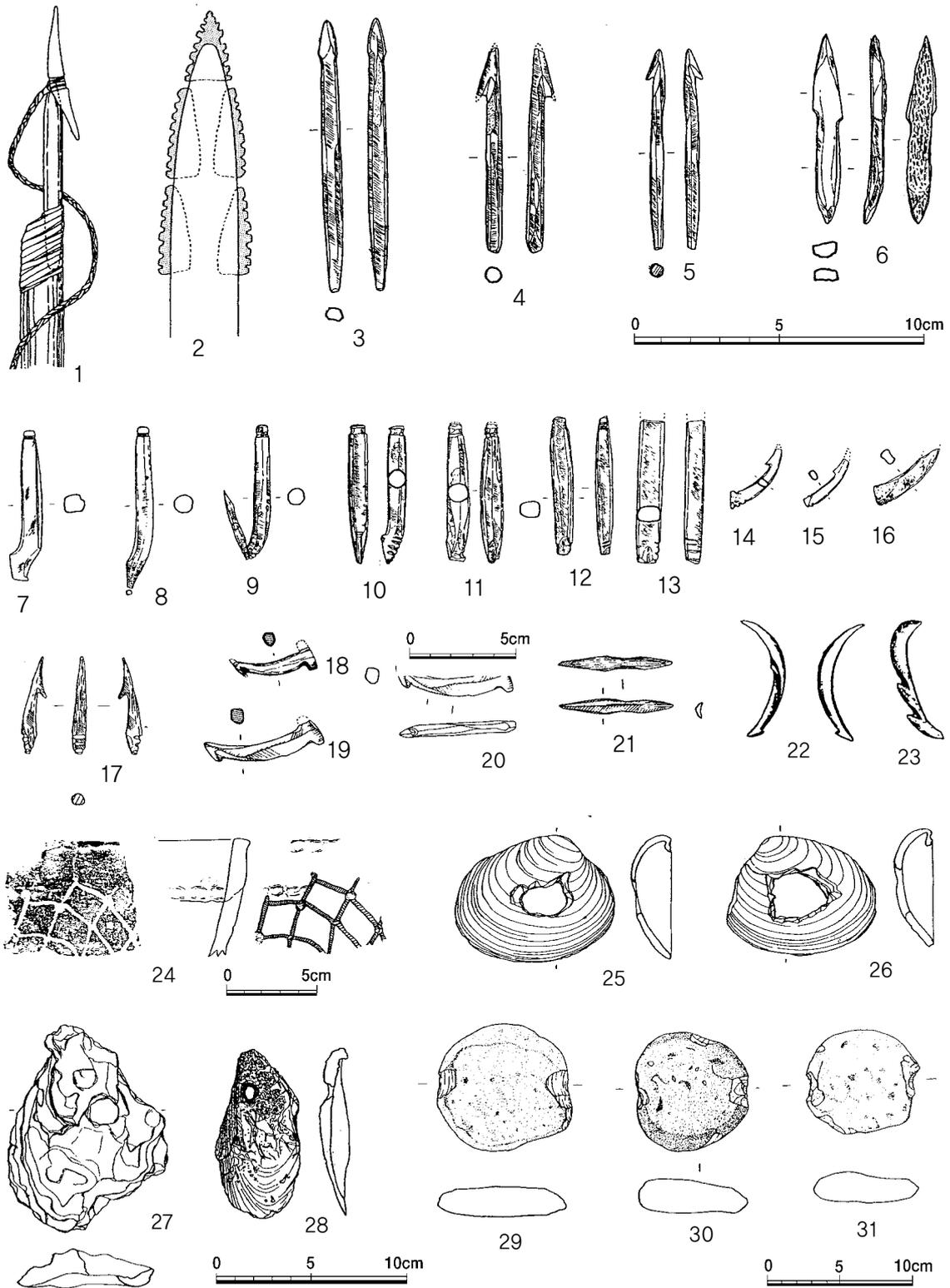
어로작업에는 작살이나 창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는 낚시, 그물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패총에서 출토된 석제【도4-22~7】, 골제의 작살【도5-3~6】 등의 어로구는 당시 어로활동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어로활동에 이용된 그물은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그물을 토기 표면에 압흔하여 문양으로 한 그물문토기【도5-24】나 어망추【도5-29~31】, 貝錘【도5-25~28】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해수류인 고래, 돌고래, 물개, 강치, 바다사자 뼈도 다량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 대형의 바다동물도 직접 포획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해수류는 고기와 껍질, 뼈 등이 다양한 생업도구와 식료로 이용되어 쓰임새에 있어 효용가치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신숙정 1994). 특히 돌고래 이빨은 연대도패총에서 출토된 발찌의 예로 보아 장신구로 이용되기도 하였다⁸⁾. 해수류의 포획에는 결합식작살【도5-1·2】이나, 대형작살【도4-22~26】, 離頭【도5-6】 등이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삼동패총을 비롯한 수가리, 조도, 상노대도, 육지도패총, 산등, 세죽, 신암리 등에서 출토되는 많은 양의 고래뼈를 통해 볼 때 당시 즐문토기인이 연안으로 접근하는 고래를 직접 포획하여 식량원으로 이용하였고, 그 잔재물인 뼈는 각종 골각기의 재료로 사

7) 결합식 낚시바늘은 재질과 형태, 크기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세분되는데, 이것은 어로대상의 종류와 관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축은 골제, 석제, 패제 등으로 구분되며, 비늘은 대부분 사슴뼈나 멧돼지 이빨로 만든 골제이다.

8) 민족지 조사에 의하면 남태평양 솔로몬제도의 말라이트섬 원주민들은 집단 어로를 통해 포획한 돌고래를 식량으로 이용하였을 뿐 만 아니라 이빨을 婚嫁나 장식품 등 특수 교환재 사용하고 있다(竹川大介 1995).



【도5】 어로구(축척 부동)

1(회전식 이두섬착장도), 2(결합식작살 착장도), 3~6,24~28(동삼동), 7~9(세죽), 10~16(범방), 18,19(구평리), 20,21,29(육지도), 17,30,31(연대도), 22,23(상노대도)

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신석기패총에서 출토되는 고래뼈 만을 근거로 신석기시대 포경의 존재를 단정할 수 없으나 당시 사용된 대형 작살의 존재, 포경활동과 수렵 그림이 있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의 제작 시기가 신석기시대까지 올라 갈 가능성이 있는 점(하인수 2004a), 동삼동 패총을 비롯한 해안지역의 패총유적에서 전시기에 걸쳐 고래뼈가 출토되고 있는 情况的인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연안지역에서 느린 속도로 유행하는 귀신고래나 긴 수염고래, 흑등고래 정도는 집단의 協業으로 직접 포획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족지적인 예로 보아, 연안으로 접근하는 고래를 원시적 도구와 방법으로 포획하는 예도 있고, 일본 승문문화와 동삼동패총에서 고래뼈를 이용한 골제품이 출토되고 있는 점은 단순히 해안에 좌초한 고래를 포획하여 생활도구의 재료로 이용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적어도 고래의 효용가치를 충분히 인식한 어로의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어류 이외에 소라, 굴, 전복, 투박조개, 피조개, 꼬막, 고동, 가리비, 성게, 개조개, 대합, 홍합 등 각종 패류도 채취하여 중요한 식량자원으로 삼았는데 패총에서의 출토 상태와 양으로 보아 신석기인들은 굴과 홍합을 즐겨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패류가 연중 쉽게 획득할 수 있지만, 획득 양에 비해 可食 부위가 적고 칼로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식량 자원으로써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을 것이며, 貝食만으로 생계유지는 곤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패류가 갖는 영양학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형태로 가공되어 저장되거나 해산물이 산출되지 않은 내륙지역으로 공급되는 교역물품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예상된다.

한편 채집된 패류 중에 가리비나 투박조개, 피조개 등은 장신구로 이용되기도 하였는데, 특히 투박조개는 팔찌의 재료로 애용되었다⁹⁾.

조개류의 채취에는 여러 형태의 도구가 이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패류의 종류와 서식환경에 따라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채취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옥지도나 동삼동, 범방패총 등에서 출토되는 소형의 有肩石器【도7-11·12·15·16】나 사슴뼈로 만든 빗창【도림10-1~7】 등이 채집구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단정할 수 없으나 여러 형태의 타제석부 중 일부는 굴 등 암초성 패류를 채취하는 도구로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2. 수렵활동

수렵은 인간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뼈나 뿔, 이빨, 가죽 등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용구를 만드는 재료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신석기시대에 있어서도 여전히 생업활동의 주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동삼동, 수가리패총 등 동남해안의 여러 유적에서 발견되는 동물유존체를 살펴보면 구석기시대의 대형동물류들은 사라지고 사슴·멧돼지·고라니·노루·오소리·너구리·삿괭이·수달·개 등 중 소형 동물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출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육상 동물 가운데 사슴과동물과 멧돼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고, 모든 유적에서 고루 출토되고 있는 반면, 기타 동물류는 전체 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도 안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수렵의 주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안승모 1997).

이 중에서 특히 사슴은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기타 획득물과 달리 폐기되는 잔재물이 거

9) 조개팔찌는 남해안의 패총유적에서 다량 출토되고 있는 장신구 중의 하나인데, 동삼동패총 정화지역에서 1,500여점의 조개팔찌가 출토되어 주목된 바 있으며, 조개팔찌는 제작방법과 貝輪部의 형태에 따라 5형식으로 구분된다(하인수 2004a).

의 없을 정도로 가죽과 각 부위의 뼈는 다양한 용도의 재료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수렵의 주요 대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삼동패총과 수가리패총 등 해안지역의 신석기유적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동물유체 중 사슴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일본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패총에서 출토되는 동물유체 중 70% 가량이 사슴으로 보고되고 있을 정도로 사슴은 즐문토기인에게 매우 친숙한 동물이다.

사슴이 즐문토기인들의 생업에 있어서 갖는 이러한 의미가 일상생활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 최근 동삼동패총 제5층의 중기즐문토기 문화층에서 확인된 사슴선각문토기가 아닌가 한다.

사슴선각문토기는 일상의 생활 용기로 사용되었다기보다 수렵 대상인 사슴사냥에 대한 기원과 이와 관련된 의식을 행하거나 혹은 집단내에 특별한 의례시 사용된 특수한 용기로 추정하고 있다(하인수 2004a).

멧돼지 역시 우리나라와 같은 활엽수림지대에 사는 동물로서 고기와 이빨·가죽 등 여러 면에서 이용 가치가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멧돼지 이빨은 결합식조침의 바늘이나 장신구로 자주 이용되기도 한다.

수렵도구 내지 방법은 다양했을 것으로 생각되나, 원거리에서도 사냥을 할 수 있는 활과 화살, 근거리 용인 창 등이 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다양한 형식의 화살촉[도4-1~21]이 많이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활을 이용한 수렵이 성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민족지의 예로 보아 올가미나 함정, 텃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함정은 주로 화살

로 잡기 힘든 몸집이 큰 동물을 잡는데 사용하였을 것이며, 올가미는 오소리나 너구리, 족제비와 같이 몸집이 작은 동물을 잡는데 사용하였을 것이다(신숙정 1994).

한편, 사냥의 대상에는 사슴이나 멧돼지 등의 육상 동물 이외에도 바닷가나 강가에 사는 철새나 텃새도 주 사냥대상이었을 것이다. 부산 동삼동과 연대도패총의 예로 볼 때 가마우지나, 독수리, 신청홍, 갈매기, 오리, 꿩 등도 사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철새 도래지인 낙동하구의 을숙도는 조류 수렵을 위한 좋은 사냥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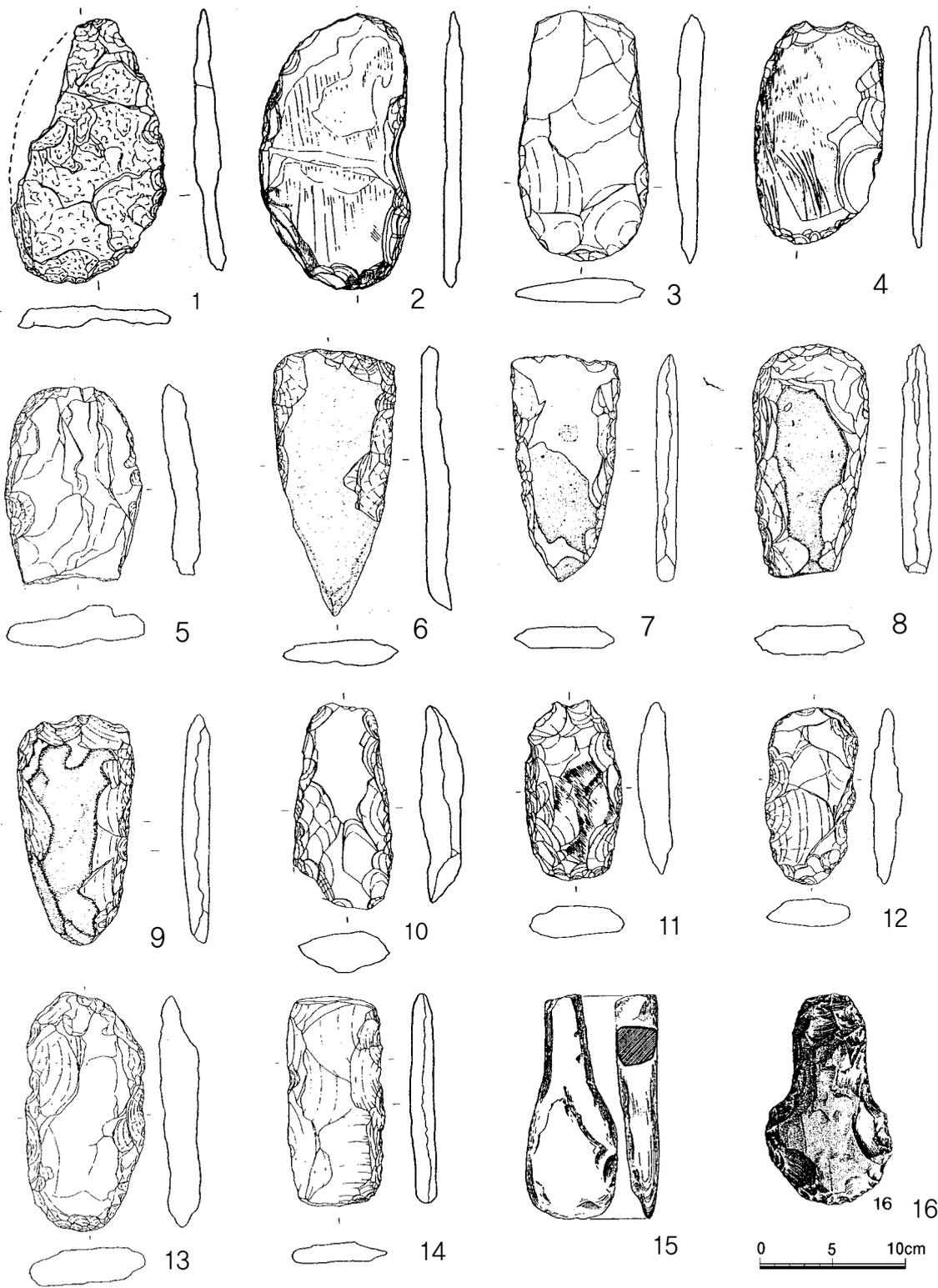
수렵은 즐문토기인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식료원일 뿐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뿔과 뼈는 바늘, 작살, 낚시바늘, 팽이, 송곳, 첩두기 등 다양한 형태의 골각기와 장신구의 재료로 활용되었다.

경남해안지역의 패총유적에서 출토되는 각종 골각기는 고래나 멧돼지, 조류의 뼈로 만든 것도 있으나 대부분은 사슴뼈를 재료로 한 것이다[도10]. 특히 긴 관상의 형태를 이루는 사슴의 중수골과 중족골은 쉽게 종으로 쪼개 봉상 내지 침상의 도구를 만들 수 있고, 그 폭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골각기의 재료로 널리 이용되었다.¹⁰⁾

3. 채집활동

해안지역에 거주하는 즐문토기인에게 있어서 채집 역시 수렵, 어로와 함께 생업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해안 여러 유적에서 특히 패총에서 출토되는 각종 어패류와 동물유존체 출토 양상으로 볼 때 수렵과 어로활동으로 획득한 식료를 주요 식량자원으로 이용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패총 자체가 실제로 수백년 이상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여기서

10) 수가리패총에서 출토되는 골각기 중 사슴의 중수골과 중족골로 만든 골제품의 비율이 33%를 차지하고 있으며(부산대학교 1981), 동삼동패총 정화지역에서 출토된 골제품의 재료는 대부분이 사슴뼈이다.



【도6】 채집·농경구(축척 부동)
 1.(우봉리), 2~4.10.11(목도), 5.12.13(범방), 6~9(연대도), 14(옥지도), 15(동삼동), 16(상노대도)

출토된 동물과 어패류의 양은 당시 즐문토기인이 수렵과 어로활동을 통해 획득하여 소비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 양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집단의 규모나 유적의 존속시기, 거주 인구 등을 고려할 때 패총에서 출토되는 자연유물의 양은 즐문토기인의 안정적인 식량자원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족한 식량자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식물성 식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계절별로 다양한 식용식물을 식량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식용 식물의 판별과 서식환경의 지역성, 계절성의 파악은 자연계의 순환적 질서와, 환경적 변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획득한 경험적 지식과 정보를 통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연중 스케줄이 다른 식료의 계절성을 적극 활용하여 시기별로 집중적으로 획득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남해안지역은 상록수림과 활엽수림의 발달에 따라 근경류, 견과류¹¹⁾, 유실수 등 다양한 야생 식용식물이 풍부하여, 채집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신숙정 1994, 안승모 1998).

물론 이들 자료는 유존하기 힘들어 고고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는 적지만 굴참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등에서 채집 가능한 도토리나 가래 등의 견과류는 당시 즐문토기인들이 직접 채집하여 식용으로 이용하였음이 세죽리유적이나 봉계리, 창녕 비봉리 유적(임학중 2004)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세죽리유적과 비봉리유적에서 확인된 도토리 저장혈은 즐문토기인이 도토리를 어떻게 취급하고 보관하는가를 보여 준다. 이러한 저장 행위는 식물성 식료의 계절적인 변동에 대처하고 식량자원의 결핍기를 준비하기 위한 생업전략의 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안지역에 거주했던 즐문토기인은 거주지 주변에 펼쳐진 산야에서 밤이나 도토리 등 견과류의 채집 뿐만 아니라 칩이나 참마 등의 근경류, 구근류의 채집도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에서 다량으로 출토되는 다양한 형태의 굴지구(타제석부)는 이를 방증한다.

신석기시대에 발달한 토기의 사용은 식료를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날것으로 식용하지 못하였던 야생식물을 익혀 조리함으로써 보다 많은 식물 자원을 가식 범위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식물을 채집하는데 있어, 열매를 딸 때는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지만 식물의 뿌리를 채집하는 데는 타제석부류【도6】가 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타제석부는 농경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신석기 초기【도6-1】부터 이미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일찍부터 식물자원을 획득하는 도구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기 이후 정형화되는 말안장형의 갈돌, 갈판【도7-1~3·6·7】은 조, 기장 혹은 견과류를 제분하는 도구로 널리 사용되는데, 초기와 전기 단계에는 부정형의 갈판과 갈돌【도7-4·5】이 견과류를 가공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4. 농경활동

신석기시대는 기본적으로 수렵, 어로, 채집활동을 주요 생업경제로 하는 사회로 이해되어 왔으나 황해도 봉산군 지탑리유적 2호주거지에서 조 혹은 피로 추정되는 탄화곡물이 확인된 이래 신석기시대 후기 단계부터 원시적인 농경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그 이후 마산리 7호주거지(변사성 외 1989), 남경유적 31호주거지 출토 조(김용간 외 1984)의 확인으로

11) 견과류는 보관이 용이하고, 영양가가 높아 특히 다른 계절에 비해 식량 확보와 사정이 좋지 않은 겨울의 식생활을 보충해주는 대체 식료로서의 효용 가치가 높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신숙정 1994).



【도7】 식료가공·조리구(축척 부동)
 1,6,13(동삼동), 2,7,11,12,15,16,19(옥지도), 4,5,8~10,18,20(범방), 11(신암리), 3,14,17(연대도)

적어도 신석기시대 중기(B.C.4,000~B.C.3,000년) 무렵부터 조 중심의 발농사가 시작되었음이 분명하게 되었고, 조 이외의 다른 재배식물도 존재할 가능성과 농경의 上限연대가 올라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대청리유적에서는 벼, 보리, 밀 등의 곡물이, 김포와 일산지구의 토탄층에서는 벼씨가 검출되고, 김해 농소리패총에서 벼의 식물규소체가 발견됨으로서 신석기시대의 도작농경 문제도 조심스럽게 타진되고 있어 신석기시대 농경에 대한 연구는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된다(안승모 1996).

특히 동삼동패총 1호주거지에서 조와 기장의 식물유체가 조사됨으로써 신석기시대의 곡물재배는 보다 분명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하인수 2001). 동삼동패총 출토 조, 기장의 연대가 지탑리와 마산리 유적과 거의 같고, 한반도 최남단인 부산지역에서 재배 곡물이 출토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 볼 때 적어도 신석기 중기 단계에는 한반도 전역에 걸쳐 조와 기장을 중심으로 발농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농경을 실증하는 구체적인 실물자료 이외 이를 가공, 저장하고 재배하는데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각종 도구들의 변화와 그 양상에서도 농경의 개연성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중기 즐문토기단계가 되면 정형화된 말안장형 갈판【도7-1~3】과 갈돌【도7-6·7】이 다량으로 사용되고, 흙을 일구는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납작한 타제석부【도6】가 대량으로 증가하는 점¹²⁾, 중기 태선침선문토기 단계부터 대용량 토기가 급증하고 저장용으로 생각되는 대형토기들이 다량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점은 이전의 영선동식토기와 용기문토기 단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양상이다.

아무튼 한반도 농경의 정황적 사례와 동삼동패총의 발굴 성과를 참고해 볼 때, 경남해안지역의 즐문토기인은 적어도 신석기 중기 단계에 접어들면서 조와 기장을 중심으로 하는 발농사를 통해 기존의 수렵과 어로, 채집활동을 통해 조달한 부족한 식량자원을 보충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¹³⁾.

5. 신앙·의례활동

자연의 변화에 좌우되는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온 즐문토기인은 생활 자체가 종교적이고 의례적인 측면이 강했다. 자연에 대한 두려움과 생업활동의 안전기원·풍요·다산 등을 종교적인 신앙으로 해결하였으며, 이를 위해 일부 자연물과 동식물을 신격화하거나 형상화하여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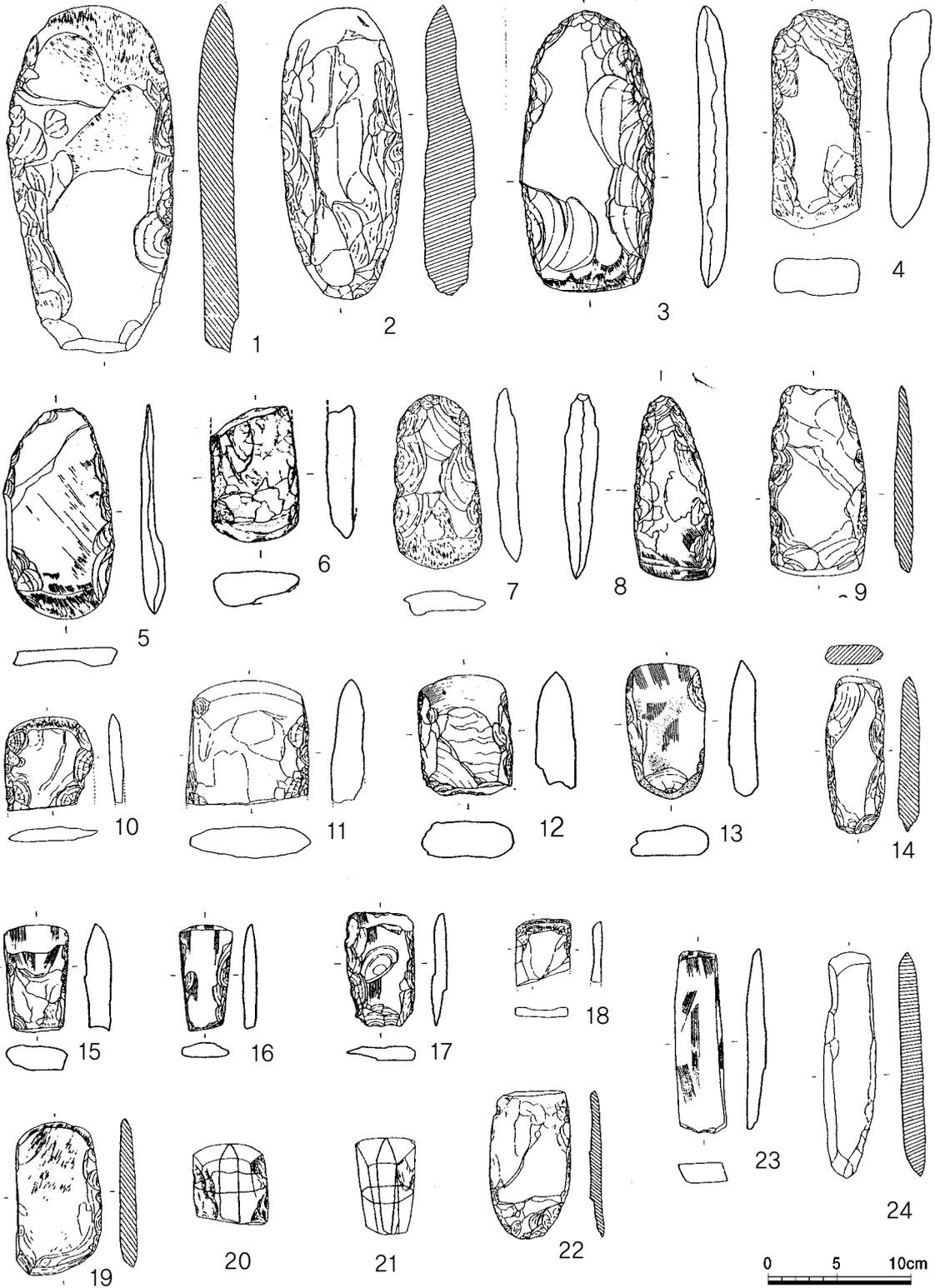
경남해안지역의 여러 패총유적에서 즐문토기인의 정신세계의 흔적을 보여 주는 여러 종류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조개가면과 흙을 빚어 만든 토우다. 이 중에서 동삼동패총에서 출토된 곰모양 토우는 숲속의 왕자라 불리는 곰을 형상화한 것인데 당시 사람들의 곰숭배 신앙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밖에 신암리와 욱지도, 범방, 수가리, 세죽패총에서 인물상과 동물상의 각종 토우가 출토되고 있는데, 신암리유적에서 출토된 인물형의 토우는 머리와 팔, 다리가 없고 몸체만 남아 있는 3.6cm 정도의 女性坐像을 하고 있다.

욕지도패총에서는 멧돼지를 형상화한 동물형 토우 2점이 출토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간략화되어 형상의 특징이 구체적이지는 않다. 돌출된 코의 형태나 얼굴 모습에서 멧돼지를 모델로 한 것으로 보이며 당시 수렵생활과 관련된 주술적인 器物로 추정된다.

12) 최근 조사된 범방유적의 남해안지역 태선침선문토기 문화단계인 중기 문화층에서 굴지구인 타제석부가 대량으로 출토하고 있다(하인수 2002a).

13) 잡곡농경이 즐문토기인의 생업경제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생산방식, 생업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도8】 벌채 및 가공구(축적 부동)

1,9,14,22(다대포봉화산), 2,19,24(용호동), 3,5(북정), 6(우봉리), 7,10,11,18(범방), 8(연대도), 12,13,15~17,23(목지도), 20,21(신암리)

한편 즐문토기인은 일상 활동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 동물뼈나 이빨·조개·옥·돌·흙 등의 재료로 목걸이·팔찌·귀걸이·뒤꽂이 등 각종 장신구를 만들어 착용하였다. 이들 장신구는 민족지의 예로 보아 개인적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벽사적 기능을 갖기도 하고 혹은 의례적인 성격을 갖기도 한다.

신석기시대 여러 유적에서 출토되는 각종 장신구는 종류에 따라서 그것을 소유하는 자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을 表象하기도 하고, 원시신앙의 의례적인 도구나 혹은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려는 벽사적인 呪具의 기능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벽사적인 呪具로서의 기능은 신석기인의 생업 활동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예를 들면 동삼동패총과 연대도패총을 비롯한 남해안 여러 유적에서 출토된 맹금류의 발톱이나 멧돼지, 수달, 돌고래 등의 이빨, 각종 동물뼈, 패류 등으로 만들어진 장신구는 즐문토기인의 주요 생업기반인 수렵과 어로활동의 산물로 획득되어진 잔재물(먹거리로써의 가치는 상실)로 만들어 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즐문토기인은 장신구 소재가 갖는 本源的인 특성(특정 생물이 갖는 용맹성, 생명력, 풍요, 다산을 상징하는 정령의 힘)에 의탁함으로써 생업활동의 안정성과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신석기시대의 일부 장신구는 주술·벽사적 성격을 갖는 呪具의 기능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의례적인 기물들은 즐문토기인의 생계와 생산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지만 이를 통해 생산 활동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생업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생업활동의 산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경남해안지역에서 조사된 유적과 최근 연구를 통해 이 지역 즐문토기인의 생업활동과 내용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당시 즐문토기인은 생업활동을 통한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효율적인 식량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돌이나, 동물뼈·조개껍질 혹은 교역을 통해 획득한 흑요석 같은 재료를 이용하여 일상생활과 생업활동에 필요한 여러 형태의 도구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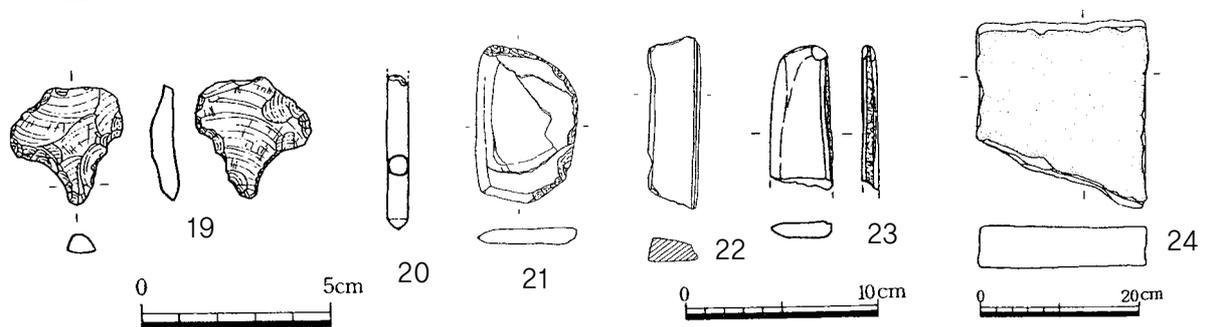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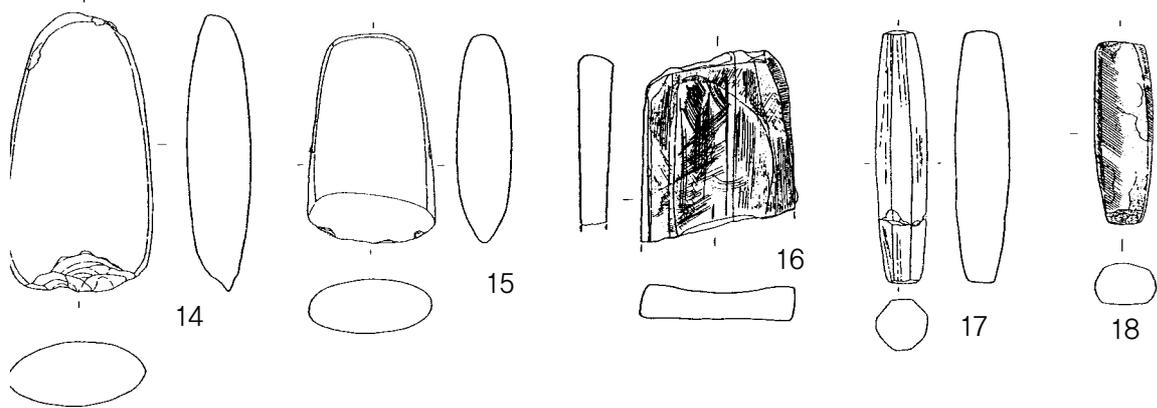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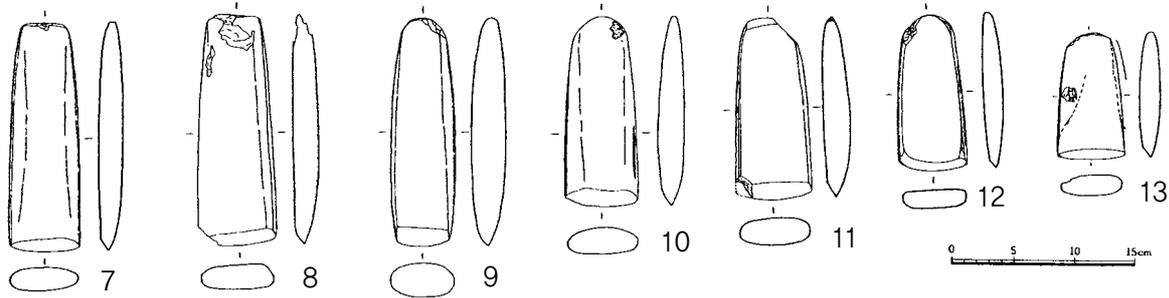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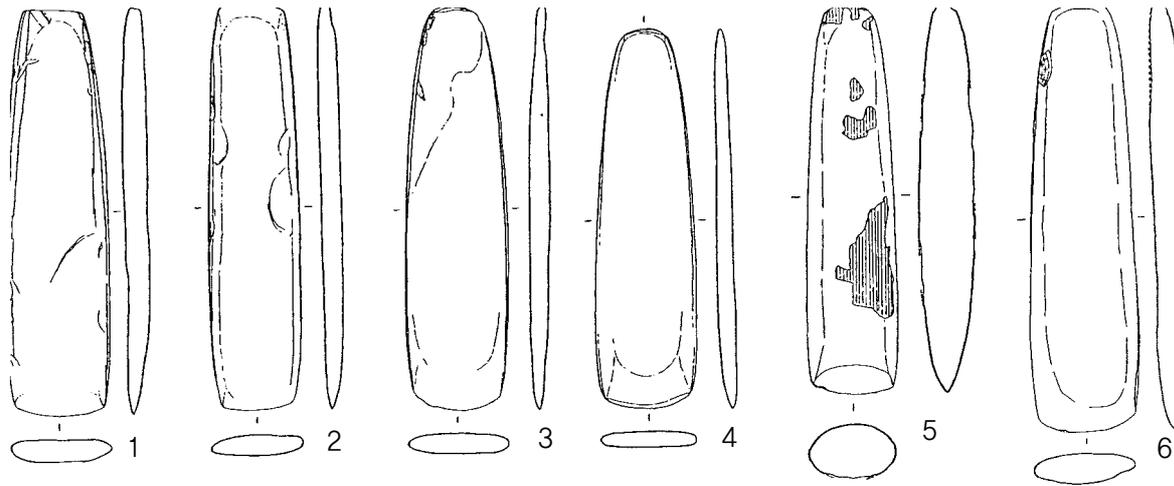
생활도구는 쓰임새에 따라 크게 수렵용·어로용·농경용·일상용구 등으로 나누어지며, 수렵·어로용으로는 화살촉·창끝·뼈작살·납시바늘·그물추, 식물채집 및 농경용으로는 타계석부(돌괘이), 갈돌, 갈판, 고석【도7-8~10】, 토기 등이 있다.

그 밖에 가옥 축조나 각종 목기 제작에 필요한 목재를 벌채하고 가공하기 위한 각종 마제석부류【도8·9-1~15】와 식료 가공과 의복 제조에 필요한 조개칼【도7-13】, 뼈바늘【도10-38】, 뼈톱【도10-40】, 돌칼【도9-21】, 굽개, 뚜르개【도9-19】, 각종 골각기【도10-1~37】 등이 일상용구로서 제작되고 사용되었다. 한편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직접적인 생업도구로 볼 수 없으나 장신구나 토우 같은 기물은 풍요와 다산, 생산력 향상을 위해 초자연적인 힘을 빌리는 주술·의례적인 용구로 활용되어 간접적인 생업도구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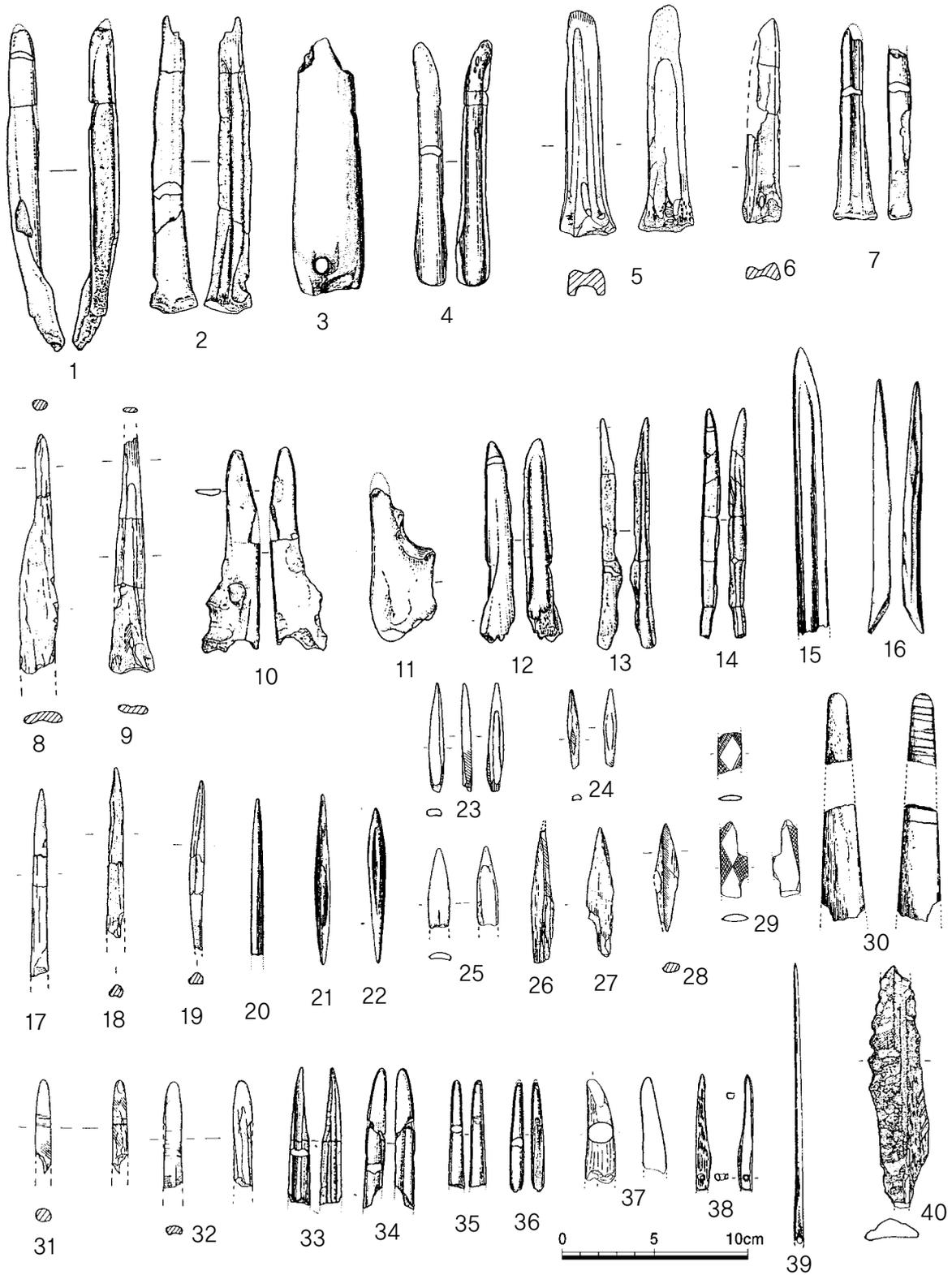
V. 대외교류

신석기시대 문화교류의 양상은 편의상 문물 이동의 지리적 범위와 문화적 성격에 따라 크게 대외교류와 지역적(대내적) 교류로 대별할 수 있다. 대외교류는 지역과 문화적 기반을 달리하는 한반도 이외의 지역과의 교류, 지역적 교류는 한반도 내의 재지간에 이루어지는 대내적 교류를 의미한다.

전자에 대해서는 주로 한일문화교류라는 관점에서(하인수 2001) 일찍부터 연구되어 왔으나 후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지역 간 교류의 양상과 현상에 대한 이해는 관련 자료와 연구부족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나 지금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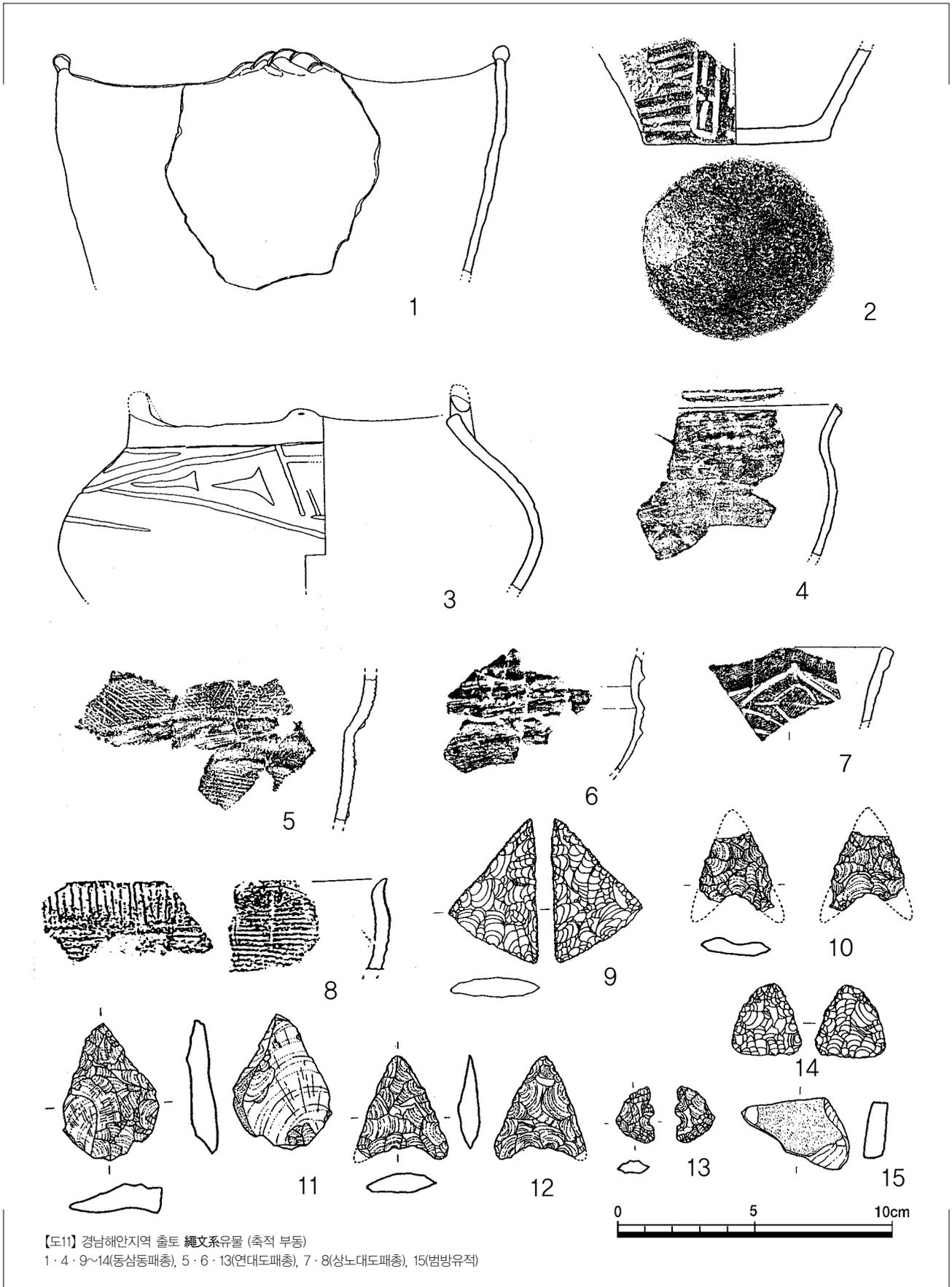


【도9】 발채 및 가공구 (축척 부동)
 1~13 · 20(후포리), 14 · 15(범방), 16(목도), 17(이길봉수대), 18(연대도), 19(동심동),
 21(범방), 22(다대포봉화산), 23 · 24(우봉리)



【도10】 골각기(축적 부동)

1, 2, 4, 7, 10~14, 33~36(수가리패총), 3, 15, 16, 20~22, 30, 39(상노대도패총), 5, 6, 8, 9, 17~19, 28, 31, 32(연대도패총),
23~27(육지도패총), 29, 37(범방패총), 38, 40(동삼동패총)



지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단편적이거나 어느 정도 실태를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용호동 출토 편마암제 마제석부라든가, 조도패총과 범방패총 출토 중서부지역의 침선문계토기, 범방패총의 분묘에서 출토된 연옥제 경식, 범방유적의 화강편마암제 마제석부 및 혈암제 결합식 조침 축부 등은 현지에서 산출되지 않는 석재라는 점에서 타지역에서 부산지역으로 유입된 것이 확실하고, 상시유적과 단양 금굴유적, 청도 오진리유적에서 출토된 투박조개로 만든 패천은 동해안과 남해안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교역의 네트워크를 통해 교역품으로 이동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들 자료를 통해 본다면 지역간의 교류 내지 교역 활동을 통한 물자유통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석기시대 국내의 지역적인 교류문제는 대외교류 못지 않게 당시 지역집단의 동향과 성격, 사회경제 구조 등을 규명하고 해명하는데 중요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되나 아직 자료적인 한계와 관련 연구 부재로 이에 대한 검토는 차후로 미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최근 연구성과와 발굴 자료를 참고하여 경남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본구주지역간의 문화교류와 그 양상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한반도와 일본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위치하는 지리적 환경과 생업형태의 유사성으로 구석기시대 이래 문물 이동과 文化의 교류가 주변의 어떤 지역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다. 특히 한반도 경남해안지역과 구주지역은 신석기시대에 접어들면서 대한해협을 공동의 생활 무대로 하여 수천년 간의 교류활동이 전개되는데, 이와 관련된 고고학적 유물과 유적이 한일 양지역의 곳곳에 산재해 있어 당시 빈번한 문화교류의 실상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신석기시대의 이러한 교류의 흔적은 부산의 동삼동패총과 범방패총, 남해안지역의 연대도와 상노대도,

욕지도패총 등 제유적에서 출토된 일본 승문토기와 석기, 흑요석 등의 각종 유물【도11】에서 찾을 수 있으며, 같은 양상으로 일본의 서북구주 해안지역과 오도열도, 대마도의 佐賀貝塚, 越高, 夫婦石遺蹟 등에서도 한반도 남해안의 다양한 즐문토기와 장신구 등이 출토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여러 종류의 승문계유물이 다량 출토되고 있는 동삼동패총¹⁴⁾은 한일신석기시대 문화교류 양상을 시기별로 잘 보여 줄 뿐만 아니라 교류창구로써 양지역의 문화교류 실태와 성격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동삼동패총과 동남해안지역에서 출토된 승문계유물의 종류는 여러 형식의 승문토기를 비롯하여 흑요석제 석촉, 작살, 서북구주형의 석기 및 조침, 석시 등이 있으며 양적으로는 승문토기와 흑요석제석기가 주류를 이룬다.

승문계토기로는 승문 전기의 轟B式土器, 西唐津式土器, 曾畑式土器, 중기의 船元Ⅱ式土器, 阿高式土器, 후기의 南福寺式土器 등이 있다. 이들 승문토기는 시기적으로 한반도 남부 즐문토기문화 초기에서 후·만기에 걸치고 있다. 대부분의 자료들이 편들로 출토되어 전체 특징은 자세하지 않으나 일부 유물 즉 소위 굴곡형토기로 불리는 것 등을 제외하고는 태토, 소성, 문양구성, 기형 등으로 보아 구주지역에서 반입된 것으로 보아도 좋다고 생각된다.

승문계석기로는 흑요석제 석촉, 박편석기, 석거, 석제작살, 석시 등이 있는데, 직접 구주지역에서 반입된 것과 승문석기의 영향으로 재지에서 만든 것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대표적인 것이 흑요석과 이를 재료로 하여 만든 흑요석제석기이고, 후자의 예가 연대도패총에서 출토된 석시이다.

이들 흑요석제 석기들은 기본적으로 재질이라든가 형태적인 면에서 일본열도의 승문문화 석기류와 유

14) 1999년 부산시립박물관의 동삼동정화지역 발굴조사는 기존 동삼동패총의 성격과 문화내용을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흑요석 등 다량의 승문유물과 1,500여점의 패천, 즐문토기, 골각기, 석기류 등 각종 유물들이 출토됨으로써 동삼동패총이 동남해안지역의 거점적 교역집단의 성격을 갖고 있음이 밝혀지게 되었다(하인수 2001).

사한 특징을 보여 주며, 특히 石鉅는 서북구주 지역의 것과 동일한 형태다. 석기의 제작에 사용된 흑요석은 최근 분석 결과(高橋豊·河仁秀·小畑弘己 2003)대부분 일본 佐賀縣의 腰岳産과 淀姫産으로 판명되었는데, 이 결과를 받아 들인다면, 동삼동패총을 비롯한 범방, 연대도 등의 흑요석제 석기의 원료는 모두 일본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 석기류가 완제품으로써 유입된 것인지, 아니면 반제품 또는 원석 형태로 이동한 것인지는 앞으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동삼동과 범방, 연대도패총 등에서 원석과 다량의 박편들이 出土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석을 입수해서 재지에서 직접 가공·제작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승문계 유물들이 어떠한 메카니즘 하에서 교류되고 유통되었는가는 현재로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한일 양지역민 공통적인 생업 환경 속에서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어로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가운데 상호 생업기술과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교류의 틀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추정 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상호 물자교류 내지 물물교환이라는 원시적인 교역시스템이 구축되고 그 결과 한일 양지역의 문화교류 기반과 구조의 틀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한반도 남해안과는 지척시간에 위치하는 대마도는 양지역 문화교류의 중간지대 혹은 창구로써 뿐만 아니라 교류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교류의 구체적인 실례의 하나가 동삼동패총에서 출토된 흑요석과 투박조개로 만들어진 패천을 들 수가 있다. 흑요석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특정 지역에서만 산출되고 그것이 갖는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석기의 재료로써 효용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남해안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는 흑요석이 일본 구주지역으로부터 교류의 산물로 유입

된 것이라면 이쪽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교환물자 즉 교역품이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로서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상물은 최근 동삼동패총에서 1,500여점이라는 많은 양이 출토된 패천로 보인다.

동삼동패총에서 생산된 패천은 국내의 여러 집단 뿐만 아니라 구주지역의 흑요석과 주요 교역물로서 대마도나 구주지역에 공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즐문계유물이 다수 출토되고 있는 佐賀貝塚의 투박조개제의 패천은 구주산 흑요석을 매개로 동삼동패총 집단에 의해 공급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하인수 2004b).

VI. 맺음말

이상에서 최근 연구와 발굴 성과를 중심으로 경남지역의 신석기문화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밖에 다루지 못하여 불완전한 것이 되고 말았는데 이러한 점들은 차후에 새로운 유적과 자료를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고자 한다.

본고와 관련하여 향후 연구 과제로써, 최근 발굴 성과에 따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신석기시대의 농경 문제는 신석기시대 곡물재배가 생산력의 증대 뿐만 아니라 생업경제와 사회구조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즐문토기의 세부적인 변천과정과 편년, 유적의 입지에 따른 생업의 특성, 특정 유물의 이동에 따른 지역 혹은 집단 간의 교류 문제와 교류의 성격 등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최근 들어 발굴 성과에 힘입어 내륙지역의 신석기문화의 실체도 드러나고 있는 만큼 해안지역과 생업구조와 생활방식, 도구조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參考文獻〉

- 梅原考古學研究所編, 1994, 『一萬年前を掘る』
- 강창화, 2002, 「제주지방 초기 신석기문화의 형성과 전개」, 『해양교류의 고고학』, 한국고고학회
- 경남발전연구원, 2005, 『살내유적』
- 경성대박물관, 2000, 『김해 화목동유적』
- 계명대학교박물관, 2006, 『금릉 송속리유적』
- 高橋豊 · 河仁秀 · 小畑弘己, 2003, 「螢光X線分析에 의한 東三洞 · 凡方遺蹟 出土 黑曜石 產地推定」, 『韓國新石器研究』6
- 곽종철, 1990, 「낙동강 하구역에 있어서 선사 고대의 어로활동」, 『가야문화』3
- 국립김해박물관, 2005, 「창녕비봉리유적 현장설명회자료」
- 국립경주박물관, 1991, 『울진 후포리유적』
- 국립문화재연구소, 1995, 『선사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국립중앙박물관, 1976, 『조도패총』
- 국립중앙박물관, 1988 · 9, 『신암리유적』
- 국립진주박물관, 1989, 『옥지도』
- 국립진주박물관, 1993, 『연대도』
- 국립진주박물관, 1999, 『목도패총』
- 김건수, 1999, 『한국 원시고대의 어로문화』, 학연문화사
- 김동호, 1966, 「釜山地方의 貝塚」, 『古文化』4
- 김동호, 1980, 「韓國東南海岸島嶼の先史土器とその文化」, 『考古學シヤナル』183
- 김상면, 1990, 「청도 사촌리유적 발굴조사보고」, 『고고학지』2, 한국고고미술연구소
- 김용간 외, 1984, 『남경유적에 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용기, 1965, 「농소리패총 발굴조사보고」, 부산대학교박물관
- 김용기, 1971, 「多大浦貝塚 발굴조사보고」, 『부대사학』2
- 김원룡, 1987, 『한국고고학연구』, 일지사
- 김원룡, 1963, 「춘천 교동 혈거유적과 유물」, 『역사학보』20
- 김원룡 · 임효재, 1968, 『남해도서고고학』,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 金子浩昌 · 中山清隆, 1992, 「東三洞貝塚と動物遺存體資料 - L.L. Sample氏の調査資料 中心として -」, 『武藏野の考古學』
- 及川民次郎, 1933, 「南朝鮮牧ノ島東三洞貝塚」, 『考古學』4-5
- 金子浩昌, 2002, 「韓國新石器時代 貝塚과 漁撈活動」, 『한국 신석기시대의 환경과 생업』, 동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 단국대학교박물관, 1993, 『사천 구평리유적』
- 大曲美太郎, 1933, 「慶南多大浦にて貝塚發見」, 『ドルメン』3-6
- 島津義昭, 1992, 「日韓の文物交流」, 『季刊考古學』38
- 동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2002, 『세죽유적』
-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1994, 『감포관광단지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 東北福祉大學, 1995, 『東あじあ 極東の土器の起源』
- 동아대박물관, 1981, 『김해 부원동유적』
- 동아대박물관, 1989, 『합천 봉계리유적』
- 동아대박물관, 1984, 『上老大島』
- 동아대박물관, 1995, 『巨濟市文化遺蹟精密地表面調査報告書』
- 동아대박물관, 1997, 『울산 우봉리유적』

- 동아대박물관, 1993, 『金官伽倻 關聯遺蹟 精密地表調査報告』
- 동의대학교, 1988·9, 『대야리유적』 I·II
- 동의대학교, 2002, 『상촌리유적』
- 藤田亮策, 1948, 『朝鮮考古學研究』, 高桐書院
- 박경원, 1961, 「경상남도사전유적유물지명표」, 『고고미술』2
- 박상헌, 1965, 「洛東江口 東岸의 貝塚」, 『考古美術』6-6
- 부산여자대학박물관, 1993, 『가덕도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 부산대박물관, 1985, 『김해예안리고분군 I』
- 부산대박물관, 1998, 『기장군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 부산대학교박물관, 1980, 『金谷洞栗里貝塚』
- 부산대학교박물관, 1981, 『金海 水佳里貝塚』
- 부산대학교박물관, 1994, 『淸道 梧津里 岩蔭遺蹟』
- 부산수산대학교박물관, 1989, 『上登貝塚』
- 부산수산대학교박물관, 1992, 『北亭貝塚』
- 부산시립박물관, 1993, 『凡方貝塚 I』
- 부산시립박물관, 1996, 『凡方貝塚 II』
- 변사성 외, 1989, 「마산리유적의 신석기시대 집자리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1989-4
- 山田昌久, 1984, 「環境變化 道具」, 『歴史公論』6, 雄山閣
- 西谷正, 1982, 「朝鮮半島の黒曜石について」, 『賀川光夫先生還暦紀念論集』
- 西本豊弘, 1996, 「繩文時代の狩獵と儀禮」, 『季刊考古學』55, 雄山閣
- 小林達雄, 1996, 『繩文人の世界』, 朝日選書
- 小林達雄, 2002, 『繩文らんどすけふ』
- 손보기, 1982, 『상노대도의 선사시대 살림』, 수서원.
- 송은숙, 1991, 「한국 남해안지역 신석기문화에 대한 고찰」,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埴原和郎 編, 1990, 『繩文人の知恵』, 小學館
- 신숙정, 1994, 『繩文人의知恵우리나라 남해안지방의 신석기문화 연구』, 학연문화사
- 신중환, 1989, 「울주 신암리 유적」, 『영남고고학』6
- 심봉근, 1998, 「진주상촌리유적 출토 신석기시대 옹관」, 『문물연구』
- 瀋鏞夫·郭鐘喆, 1991, 「洛東江河口 金海地域の 環境과 漁獵文化」, 『伽倻文化研究』2
- 兒玉健一郎, 2000, 「土器出現の意義」, 『九州の細石器文化Ⅲ』, 九州舊石器文化研究會
- 安樂勉, 1994, 「對馬における韓國新石器文化との交流」, 『考古學シヤナル』376
- 안승모, 1994, 「재배식물로 본 동아시아의 신석기시대 농경」, 『동아시아의 신석기문화』, 국립문화재연구소
- 안승모, 1997, 「신석기시대의 생업과 사회」, 『한국사』2, 국사편찬위원회
- 안승모, 1996, 「韓國 先史農耕研究의 成果와 課題」, 『先史와 古代』7
- 안승모, 1998, 『동아시아 선사시대의 농경과 생업』, 학연출판사
- 안승모, 2002, 「신석기시대의 식물성식료(1)」, 『한국 신석기시대의 환경과 생업』, 동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 안춘배, 1988, 「거창 임블리유적 발굴조사보고」, 제12호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 鈴木忠司, 1982, 「採集經濟と自然資源」, 『考古學による 日本歴史』16, 雄山閣
- 有光教一, 1936, 「朝鮮瀛仙町の一貝塚に就いて」, 『人類學雜誌』51-2
- 有光教一, 1962, 「朝鮮の櫛目文土器」, 『京都大學文學部考古學叢書』3
- 有光教一, 1965, 「釜山岩南洞貝塚土器」, 『朝鮮學報』36

- 유병일, 1999, 「새로 찾은 울산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적」, 『울산연구』1
- 윤명철, 1989, 「해로를 통한 선사시대 한일 양지역의 문화접촉 가능성 검토」, 『한국상고사학보』2
- 윤선외, 1985, 「수가리패총의 연체동물화석군집과 해수면변동」, 『한국고생물학회지』1
- 이기길, 1995,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의 질그릇과 살림」, 백산
- 이동주, 1992, 「남해안 도서지방의 선사문화 자료(I)」, 『고고역사학지』8
- 이동주, 1991, 「한국내륙지역의 신석기시대 유문토기 연구」, 『한국상고사학보』7
- 이동주, 1996, 「한국 선사시대 남해안 유문토기 연구」, 동아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동주, 1997, 「전면시문 침선문토기토기문화의 전개와 편년」, 『고문화』50
- 이범홍, 1992, 「동삼동패총 채집석기」, 『고고역사학지』8
- 이상길·김미영, 2003, 「밀양 금천리유적」, 『고구려고고학의 제문제』, 한국고고학회
- 李相均, 1995, 「新石器時代における韓國南岸と九州地方の文化交流」, 東京大博士論文
- 이상균, 1998, 『신석기시대의 한일문화교류』, 학연문화사
- 이청규 외, 1995, 「고산리 유적과 석기유물」, 『석계황용훈교수정년기념논총』
- 이현중·하인수 외, 2004, 「거제도출토 신석기시대 신자료」, 『한국신석기연구』7
- 임상택, 1998, 「패총유적의 성격」, 『과기고고연구』3
- 임학중, 1993, 「남해안 신석기시대 초기의 토기문화에 대한 고찰」, 경북대고고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임학중, 2002, 「동삼동패총」, 『한국 신석기시대의 환경과 생업』, 동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 임학중, 2004, 「창녕 비봉리유적 발굴조사」, 『제주도 신석기문화의 형성과 전개』, 한국신석기학회
- 장명수, 1989, 「경호강 류적 출토 선사 유물 신례에 대한 소고」, 『박물관기요』5
- 장명수, 1989, 「섬진강 하류의 패총문화」, 『고문화』34
- 전영래, 1979, 「부안 계화도 산상유적 신석기시대 유물」, 『전북유적조사보고』10, 전주시립박물관.
- 정징원, 1974, 「김해지방의 즐문토기문화」, 『于軒丁仲煥博士還曆紀念論文集』
- 정징원, 1978, 「산달도패총 유물에 대한 일고찰」, 『문리과대학논문집』17, 부산대학교
- 정징원, 1982, 「남해안지방의 즐문토기 연구」, 『부대사학』6
- 정징원, 1985, 「남해안지방 용기문토기에 대한 연구」, 『부대사학』9
- 정징원, 1990, 「남해안지방 초기즐문토기의 일검토」, 『영남고고학』7
- 정징원, 1991, 「조도패총 출토 남해안식 즐문토기」, 『고고역사학지』7, 동아대박물관
- 鄭登元·鄭漢德, 1992, 「韓國島嶼地域の遺蹟」, 『季刊考古學』38, 雄山閣
- 齊藤忠, 1935, 「慶尙南道 蔚山 西生面 出土の櫛目文様土器片」, 『考古學雜誌』25-6
- 제주대박물관, 1998·2003, 『濟州高山里遺蹟』
- 조현복, 1993, 「영남내륙지방 즐문토기에 대한 고찰」, 동의대석사학위논문
- 竹川大介, 1995, 「ソロモン諸島のイルカ漁」, 『動物考古學』4, 動物考古學研究會
- 창원대박물관, 1999, 『新港灣敷地安骨 일대유적시굴조사보고』
- 최삼룡, 1988, 「상노대도의 동물뼈 화석에 나타난 자른 자국」, 『孫寶基博士停年紀念 고고인류학논총』
- 최중혁, 2004, 「사천 선진성공원 주차장부지 유적」, 『한국신석기연구』8
- 坂田邦洋, 1978, 『韓國隆起土器の研究』, 昭和堂
- 坂田邦洋, 1982, 「九州産黒曜石がらみた先史時代の交易について」, 『賀川光夫先生還曆紀念論文集』
- 하인수, 1991, 「부산 다대동·옹호동출토 석기류」, 『부산직할시립박물관 연보』13
- 하인수, 1993, 「오산리토기의 재검토」, 『부산광역시립 박물관연구논집』3
- 하인수, 1997, 「영선동식토기소론」, 『영남고고학보』21, 영남고고학회
- 하인수, 1997, 「부산의 선사유적과 유물」, 부산시립박물관 복천분관

- 하인수, 1999, 「동삼동패총정화지역발굴성과」, 『고고학을 통해 본 가야』, 한국고고학회.
- 하인수, 2001, 「동삼동패총 1호주거지 출토 식물유체」, 『한국신석기연구』2
- 하인수, 2002a, 「용기문토기의 성립과 전개」, 『한국신석기시대의 환경과 생업』, 동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편
- 하인수, 2002b, 「범방유적 발굴개요」, 『한국신석기연구』3
- 하인수, 2004a, 「東三洞貝塚 文化에 대한 豫察」, 『韓國新石器研究』7
- 하인수, 2004b, 「신석기시대의 한일문화교류와 흑요석」, 『한일교류의 고고학』, 영남·구주고고학회
- 하인수, 2006, 「영남해안지역의 신석기문화연구」,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박사학위논문
- 한영희, 1993, 「신석기시대 패총」, 『한국고고학보』29
- 한영희, 1994, 「신석기시대의 사회와 문화」, 『한국사』1
- 한영희, 1995, 「신석기시대」, 『한국고고학의 반세기』, 제19회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 한영희·임학중, 1991, 「연대도 조개더미 단애부 II」, 『한국고고학보』26
- 横山將三郎, 1933, 「釜山府絶影島東三洞貝塚報告」, 『史前學雜誌』5-4
- Sample, L.L. Tongsamdong, 1974, 「A Contribution to Korea Neolithic Culture History」, 『Artic Anthropology』XI-2

경남지역 무문토기문화의 형성과 전개

이상길(경남대학교 사학과)

- I. 머리말
- II. 경남의 지리 개관
- III. 무문토기인(無文土器人)들의 생활상
- IV. 경남지역 무문토기 문화의 특징

I. 머리말

경남은 북쪽과 서쪽으로 소백산맥과 연결되는 높은 산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과 남쪽은 낙동강과 그 지류에 의한 평지이거나 혹은 바다를 접하고 있다. 지리산이나 가야산 등의 산지에서 발원한 크고 작은 하천들이 동·남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데, 하천이 곡류(曲流)하는 곳에는 비옥한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다.

지금부터 3,000년 전 무렵 무문토기를 가진 사람들이 남강이나 밀양강, 황강 등 하천변 충적지나 얇은 구릉지대에 모여 살게 되면서 경남지역에도 무문토기시대(無文土器時代)가 도래하게 되었다¹⁾. 이 시대는 본격적인 식량 생산, 인구 증가에 따른 취락 규모의 확대, 전쟁의 발생, 방어진락의 등장, 거대한 분묘 조성 등의 특징을 가지며, 계급이나 계층이 이 시대의 어느 시점에서 생겨나기 시작하였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처럼 무문토기시대는 그 이전 시대에 비해 매우 발달된 사회체계를 갖춘 역동적이고 문화 수준이 높은 사회였다. 청동기를 포함하는

무문토기시대는 인간사회가 본격적인 문명사회로 진입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인류 문화의 발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획기적인 시기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이 글은 지금까지 경남 각지에서 조사된 고고학 발굴조사 성과를 기초로 하여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 아울러 경남지역에서 무문토기문화가 언제 어떻게 형성되어 발전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무문토기인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그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취락, 분묘, 식량 생산 등 몇몇 요소를 선별하여 기술한다. 또한 남강 수계의 진주 대평리유적이나 그 상류인 경호강유역의 산청 목곡리유적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옥(玉)의 생산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파악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이나 사회 전반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라 생각하여 별도의 장을 신설하였다. 유물의 경우는 한반도 남부지방 전체가 대개 그러하듯이, 경남지역 역시 유물상에서 다른 지역과 특별히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장을 마련하지는 않고 필요에

1) 일반적인 고고학 시대구분으로는 신석기시대 다음이 청동기시대이다. 그러나 초기의 무문토기인들은 아직 청동기의 존재를 모른 채 여전히 석기를 주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시대를 '무문토기시대'라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여 시대명을 '무문토기시대'로 부르거나 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넓은 의미에서의 '청동기시대'라는 시대명도 아울러 사용한다.

따라 설명을 더하는 것으로 한다.

이 글에서의 세부적인 시기구분은 초기(早期: 각목 돌대문토기 사용), 전기(前期: 공열토기 사용), 중기(中期: 송국리형문화 단계), 후기(後期: 점토대토기 사용)의 네 시기로 나누며, 무문토기시대 후기는 다음 시기인 철기문화 초기와 일부 겹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이상길 2006)

II. 경남의 지리 개관

전 근대 사회는 물론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도 자연지리적인 조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경남지역의 자연환경 또는 지리적 특징은 이곳에 살았던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의 생활이나 무문토기 문화의 형성·전개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그들의 생활 무대를 간단하게 검토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뿌리깊은 나무 1983;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1988)

경상남도는 한반도의 동남쪽 끝 영남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의 산지는 동부의 태백산맥과 서부의 소백산맥 줄기들이 뚜렷하게 돌출되어 있으며, 중앙부는 대체로 낮은 산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서부의 소백산지는 지리산을 비롯하여 해발 1,430m의 가야산, 1,104m의 황매산, 1,605m의 덕유산, 1,279m의 백운산 등 높고 험준한 산들로 이어져 있다. 따라서 합천, 거창, 함양, 산청 일대는 깊은 계곡 주변의 좁은 분지가 산간지역의 전형적인 지세를 이루고 있다. 동부의 태백산지는 태백산맥이 동해안을 따라 길게 뻗어내린 연장선상에 위치하는데, 흔히 영남알프스라고도 불려진다. 그 중에서도 간월산(936m), 영취산(1,059m), 신불산(1,209m), 가지산(1,239m), 천성산(922m) 등이 대표적이다. 비교적 중앙부에 위치하는 창녕, 의령, 진주, 사천, 마산, 창원, 밀양 등지는 해발 800m 이내의 비교적 낮은 산

들로 이어지는데, 이 지역들은 낙동강 또는 그 지류가 되는 강들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곳이다. 결국 지리산(1,915m)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산지 동남쪽은 낙동강과 그 지류 또는 남·동해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태백산에서 발원한 낙동강은 한반도 남부지방에서는 가장 긴 강으로(525km), 전체 유역면적은 23,860km²에 이른다. 이 강은 한반도 전체에서도 압록강에 다음 가는 긴 강으로, 그 하로(河路)의 경사가 완만하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일찍이 영남의 문화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무문토기시대 또는 그 이전의 선사시대에는 낙동강과 같은 규모가 큰 강보다는 그보다 작은 여러 지류가 생활근거지로 오히려 선호(選好)되었다.

덕유산에서 발원한 남강(南江)은 경남의 중서부지역을 남-동류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된다. 이 강은 수계(水系)로서는 낙동강의 지류이지만, 길이(186.3km)와 유역면적의 규모(3,492.5km²)나 주변의 여러 지류(위천, 임천, 덕천강, 함안천 등)로 보아서는 독립된 하천으로 인정하기에 손색이 없다. 이 강은 특히 함양-산청-진주의 산간분지를 곡류하는 과정에서 곳곳에 크고 작은 충적지를 만들었는데, 이들 충적대지는 선사시대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매우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많은 유적이 형성되어 있다. 거창과 함천지역을 감입곡류(嵌入曲流)하는 황강(黃江)은 함천군 청덕면에서 낙동강 본류와 합류한다. 유로의 총 연장은 111km이고 유역면적은 1,332km²이다. 이 하천은 하도(河道)의 경사가 워낙 급하여 토사(土砂)의 유출이 심한 편이어서, 하천의 양 기슭에 넓은 백사장을 형성하였다. 남강 정도는 아니지만 이 하천의 유역 곳곳에 역시 많은 선사유적이 형성되어 있다. 밀양강은 가지산(1,240m)에서 발원하여 남류하다가 청도천, 동창천과 합류하며, 삼랑진 근처에서 낙동강으로 유입된다. 이 하천은 길이(96km)에 비해 유역면적(1,476km²)이 넓은 것이 특색이다. 밀양강과 그 소지류들은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하여 우기에는 수

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본류로 유입되기가 어려워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소지류와의 합류지점에는 역류에 의한 넓은 충적지가 형성되고, 그것에 밀양 금천리유적과 같은 대규모 유적이 형성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부산과 울산 지역에는 수영천, 회야강, 태화강 등 낙동강 지류가 아닌 하천들이 흐르고 있다. 이 하천들은 길이가 그다지 길지는 않지만, 그 주변은 일찍부터 사람이 살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많은 유적이 분포한다. 또한 바다와 맞닿아 있는 남·동쪽의 해안지대는 그 특유의 풍부한 자원으로 인해 유리한 생활 여건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소금의 공급처로서의 역할도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의 해안 가까이에는 무문토기인들의 흔적이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식량자원의 보고(寶庫)인 이 공간을 중요한 무대로 삼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상과 같이 경상남도에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하는 좁은 계곡과 분지의 산간지역, 낙동강과 그 지류들을 끼고 발달한 충적평야와 저습지역, 복잡한 굴곡해안과 섬이 많은 남해안지역, 해안선이 단순하고 평지가 협소한 동해안지역 등 다양한 지형과 지세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지형과 지리적 조건의 다양성은 산과 들, 강과 바다와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을 풍부하게 할 뿐 아니라, 지역적으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연환경 하에서 무문토기인들은 각자 자기들이 자리잡은 곳에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였던 것이다.

Ⅲ. 무문토기인(無文土器人)들의 생활상

1. 시기별 취락의 변천

정착생활, 식량생산, 인구증가는 한반도의 무문토기시대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경남 각지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무문토기시대와 관련되는 취락의 변천 과정을 크게 네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한 지역에서 신석기시대부터 무문토기시대 중기까지의 변화상을 잘 보여주는 남강유역을 중심으로 하여, 경남 지역 취락의 시기별 변화와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신석기시대 말기 : 이른바 봉계리식 토기 또는 이중구연토기(二重口緣土器)를 사용하는 시기로, 신석기시대의 최말기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명백하게 신석기시대에 해당되지만, 경남지역에 처음으로 들어온 무문토기인들이 이들 토기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서로 접촉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다시 말하면 외부로부터 무문토기를 가진 사람들이 오기 전부터 경남의 각지에는 봉계리식 토기 또는 이중구연토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다. 합천 봉계리유적을 비롯하여, 거창 대야리유적과 임블리유적, 산청 강루리유적, 진주 상촌리·대평리유적, 부산 동삼동유적, 통영 상노대도·육지도유적 등 내륙이나 해안 여러 곳에서 봉계리식 토기가 출토되었다. 또한 부산 금곡동 율리유적, 부산 동삼동유적, 김해 수가리·농소리유적, 사천 구평리유적, 밀양 금천리유적 등지에서는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되었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낙동강의 지류인 작은 하천이나 바다를 끼고 생활을 영위하였는데, 진주 대평리유적이나 밀양 금천리유적과 같은 무문토기 초기 유적에서도 이들 토기가 함께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양자(兩者)가 일정 시기 공존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

다.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무문토기인들에게 동화(同化)되어 갔을 것이다.

2) 무문토기 초기(돌대문토기의 사용) : 진주 소남리 유적, 진주 대평리 어은 1지구·옥방 5지구, 진주 상촌리유적, 진주 본촌리유적, 밀양 금천리유적 등에서 이 시기 또는 그와 버금가는 시기의 주거지와 유물이 확인된다. 지금까지 확인된 주거지는 어은 1지구에서 가장 집중되고 있다. 한반도 전체에서 돌대문토기가 출토되는 초기의 유적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이 유적의 분포가 그다지 조밀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어은 1지구에서는 돌대문토기 단계 주거지의 분포 범위가 비교적 넓게 퍼져 있기는 하지만, 주거지 자체가 조밀하게 모여 있지 않고 띄엄띄엄 열상(列狀)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석기시대 말기의 유구와 혼재하고 있는데, 상호 공존인지 선후가 있는 중복관계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다. 전형적인 돌대문토기는 남강유역 전체에서 일정 지역에만 한정해서 분포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 조사된 밀양 금천리유적 역시 이중구연토기나 위석식노지(圍石式爐址)가 있는 주거지 등으로 보아 비슷한 시기일 것으로 여겨진다.(이상길·김미영 2003)

한편 진주 대평리 어은 1지구의 이 시기 주거지에서는 쌀을 비롯하여 보리, 밀, 조, 기장, 콩, 들깨 등 각종 곡물이 출토되었다. 아울러 이 주거지에서 수확용 도구인 반달돌칼(半月形石刀)도 함께 출토된 것으로 보아, 이 주거지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미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시기적으로는 지금부터 3,000년 전(기원전 1,000년)의 일이다.

이 외에도 이보다 시기가 조금 늦은 전기에는 소위 혼암리식 토기가 출토되는 세장방형 주거지가 별도로 존재한다. 한강유역의 여주 혼암리유적에서 처음 확인되어 '혼암리유형(欣岩里類型)'으로 명명(이청규

1988)된 이 토기문화는 공렬토기, 구순각목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 세장방형주거지 등으로 특징지워진다. 그러나 경남 각지에서 지금까지 조사된 이 시기 유적은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단계(前期)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앞 시기인 초기의 끝에 그대로 포함시켜 둔다.

한편 밀양 금천리유적을 비롯하여 울산 무거동 옥현 유적이거나 울산 야음동유적에서는 무문토기시대의 논의 조사되었는데, 특히 금천리유적의 논의 관개시설을 갖춘 완전한 형태였다. 이들 유적의 주거지에서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공렬토기 등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전기에 속하는 것은 분명하다. 결국 무문토기시대 초기 또는 전기의 어느 시기에는 신석기시대 후기 이래로 계속되었던 밭농사와 함께 완전한 형태의 논농사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이상길 2002).

3) 중기의 송국리형문화(松菊里型文化) : 부여 송국리유적으로 대표되는 무문토기시대 중기가 되면, 한반도의 거의 전 지역에 걸쳐 많은 유적이 조사되고 있다. 경남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경호강·남강수계의 산청 옥산리·묵곡리유적, 산청 사월리유적, 남강댐 수몰지구내 여러 유적(소남리, 대평리, 상촌리 등), 진주 평거동유적 등에서는 대규모의 취락이 확인되었다. 그밖에도 사천 이금동유적, 창원 남산유적, 합천 대야리유적, 김해 내덕리유적, 밀양 황성동유적, 양산 소토리유적 등 내륙과 해안 각지에도 여러 취락유적이 분포한다. 또한 울산지역은 비슷한 시기에 울산 검단리유적을 비롯하여 구영리유적, 다운동유적 등의 유적이 있는데, 유적의 밀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살기에 매우 유리한 환경조건이었던 것 같다.

송국리문화 단계의 주거지는 평면 말각의 (장)방형 또는 원형의 주거지로, 내부 중앙에 타원형 수혈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주거형태는 남강유역에서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대평리유적에서

만 300기 이상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따라서 대평리유적의 중심 시기는 바로 이 주거지가 존재하는 때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다른 여러 유적에서도 주거의 수가 앞 시기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부터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음이 분명하다. 이처럼 무문토기시대 중기가 되면서 취락의 규모가 확대되고 유적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당시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중기인 송국리문화 단계에는 농업생산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강유역의 진주 대평리유적을 비롯하여 경남 각지에서 확인되는 논이나 밭 유적도 대체로 이 시기에 해당된다.

식량생산사회 취락의 가장 큰 특징은 방어시설(防禦施設)의 출현이다. '환호취락' 혹은 '방어집락'으로 일컬어지는 이 유형의 취락형태는 전 세계적으로 식량생산사회에 등장하는 특징을 보인다. 유럽이나 중국과 같은 선진지역에서는 신석기시대에 이미 대규모의 방어취락이 등장하나, 한반도의 경우는 무문토기시대 중기가 되어서 본격화된다. 마을 전체를 감싸는 도랑인 환호(環濠)와 흙 담장인 토루(土壘), 나무 울타리인 목책(木柵)으로 구성된 방어시설은 취락 내의 사람과 재산을 보호하는 유용한 시설물이었다. 경남지역에서는 울산 검단리유적을 비롯하여 창원 남산유적, 산청 사월리유적, 진주 대평리유적 등 여러 곳에서 환호와 같은 방어시설이 확인되었다.

특히 진주 대평리유적의 옥방 1지구와 옥방 4지구에서 조사된 환호(環濠) 역시 이 시기의 것으로 보이며, 밭의 대부분도 이 시기가 중심인 것 같다. 조사되지 않은 지역을 감안한다면, 무문토기 중기의 대평리유적의 인구는 적어도 수 천명이었을 것이다. 이 시기에 대평리에서는 적어도 2개 이상의 단위 환호 취락이 존재하는 대규모의 취락군이 형성되었는데, 그 규모로 보아서는 '청동기시대의 도시(都市)'라 불러도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대규모의 농경지, 옥(玉)의 생산과 교역, 석기나 토기의 대량생산, 분묘의 조

성 등이 모두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4) 무문토기 후기 : 기원 3세기 무렵 점토대토기(粘土帶土器)라고 하는 새로운 토기문화가 형성되면서 무문토기는 서서히 쇠퇴해 간다. 석기의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남부지방에 까지 세형동검(細形銅劍) 문화가 확산되며, 지석묘와 같이 무문토기시대를 대표하는 분묘의 형태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를 획기(劃期)로 파악하여, 이 시기를 '삼한시대(三韓時代)'로 부르고자 하는 주장도 있다.(안재호 1994 외) 경남지역에서는 사천 방지리유적과 늑도유적, 합천 영창리유적, 김해 구산동·대청·홍동 등의 유적이 이 시기의 취락에 속한다.

2. 거대 분묘(墳墓)의 조성

지석묘(支石墓)는 무문토기시대의 분묘 가운데 하나로,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관심사이다. 이러한 형태의 분묘는 지상에 큰 돌이 드러나 있음으로써 일찍부터 관심을 끌었으며, 무문토기시대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경남지방에서는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부터 창원 외동지석묘, 김해패총 D구 등의 지석묘가 조사되었고, 당시의 조사 내용 가운데 극히 일부가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다(小泉顯夫 1986:234~239; 榎本龜次郎 1935; 榎本杜人 1957). 현재까지 경남지방에서 확인된 지석묘유적은 대략 300개소 정도이며, 파악이 가능한 지석묘의 수는 1,500기 이상이다(이성주 1999). 이 가운데 지금까지 적어도 수백 기(基)가 발굴조사 되었을 것이다.

보통 지석묘라고 하는 것 중에서 남방식(南方式, 碁盤式)은 지하에 구덩이를 파고 매장시설을 만든 다음 뚜껑돌을 덮고 지석(支石)을 놓은 뒤 그 위에 상석(上石)을 얹은 구조이고, 개석식(蓋石式, 變形南方式)은 뚜껑돌이 없거나 지석이 없이 상석이 매장시설의 뚜껑 역할을 하는 구조라고 알려진 것이 보통이다(김원룡 1986). 지석묘의 구조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여러 검토(지건길 1990)가 있었으나 기본적으로는 '북

방식(北方式)-남방식(南方式)-개석식(蓋石式)'이라는 틀 속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경남지역에서 조사된 유적 중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형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지석묘가 속속 발견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지석묘의 형태에서 벗어나는 특별한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복잡한 매장시설의 출현

창원 외동지석묘를 최초로 관찰한 고이즈미(小泉顯夫)는 이 유적을 '지금까지 예가 없었던 지석묘'라고 소개하고 있다. 당시의 간단한 메모만으로 자세한 정황을 알기는 어렵지만, 그 당시 일반적으로 매장주체부(埋葬主體部)라고 판단한 곳보다 아래에 실제의 매장시설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즉, 상부에 있는 매장시설(?)의 바닥을 제거한 후 유물(石劍, 石鏃, 丹塗磨研土器)이 부장(副葬)된 진짜 매장부가 드러난 것이다. 이와 같이 예가 없어 유구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는 김해 내동지석묘에서도 있었다(김정학 1983).

1993년에 조사된 창원 덕천리유적의 구조는 당시로서는 매우 특기(特記)할 만한 것이었다. 8 x 6m 크기의 구덩이를 4.5m 깊이까지 파고 돌로 짠 무덤을 만든 뒤, 뚜껑을 덮고 돌을 채우고 다시 뚜껑을 덮기를 여러 번 반복한 것이다. 당시에는 이처럼 크고 깊은 구덩이를 수직으로 파 내려갈 수가 없었으므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면적이 점차 줄어들도록 단(段)을 지운 것도 특기 가운데 하나였다.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마산 진동리유적, 함안 도항리유적, 사천 이금동유적, 창원 상남동유적, 양산 소토리유적, 김해 울하리유적 등 여러 유적에서 이것과 비슷하게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매장시설이 많이 조사되고 있다.

여기에서 복잡한 구조라는 것은 단을 지운 구덩이(多段土壙)와 여러 겹의 뚜껑돌(多重蓋石),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운 돌무지(積石)를 합해서 일컫는 말이다. 이처럼 단(段)이 지게 구덩이를 파는 것은 깊이와도

관련이 있다. 1m 이내의 얇은 구덩이를 파고 매장시설을 만드는 경우에는 굳이 단을 지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구덩이가 2m 이상의 깊이를 가지게 되면, 전체를 한꺼번에 수직으로 파 내려가려면 단을 지을 수밖에 없다. 또 그 정도로 깊게 구덩이를 파고 아래쪽에 매장시설을 만든 뒤, 구덩이의 나머지 공간을 채우는 것도 축조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여기에 필연적으로 덧붙여지는 것이 여러 겹의 뚜껑돌과 돌무지이다.

여러 겹의 뚜껑돌과 돌무지는 전체적으로 묘(墓)를 크게 만들어 그 위용(偉容)을 드러내는 데 유리할 뿐 아니라, 매장시설을 완전하게 감싸 보호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 번 단을 지운 구덩이와 여러 겹의 뚜껑돌, 그리고 돌무지는 모두가 한 set로서 채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시기적으로는 무문토기시대 후기가 될수록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복잡한 구조를 갖춘 분묘의 등장은, 분묘의 외형을 크게 보일려고 하는 '이상(理想)'과, 그 속에 석곽(石槨)이나 석관(石棺)과 같은 일정 규모의 매장시설을 축조해야 하는 '현실(現實)'이 하나의 분묘 내에서 한꺼번에 노정(露呈)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2) 지석묘에서 봉토(封土)의 존재

봉토(封土)는 분묘 위에 일정한 높이까지 흙을 쌓아 올려 그 묘를 보호하는 동시에, 분묘의 존재를 알리고자 하는 외형적인 표지(標識)이다. 이것은 단지 분묘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묘의 존재를 알리는 동시에 그 위용(偉容)을 과시하고자 하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다. 그러므로 분묘에 봉토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계급, 계층이나 특별한 존재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창원 덕천리유적에서 상석 아래에 별도의 봉토가 존재하였음이 처음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었다(이상길 1993). 비록 일부만 남아있기는 하였지만, 1호 지석묘에서는 묘광(墓壙)의 어깨선보다 높게 쌓아올린 봉

은 색의 봉토가 뚜렷하였다. 양산 소토리유적에서는 봉토로 판단되는 흙이 묘곽의 어깨선을 덮고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사천 이금동유적에서는 목관(木棺)과 같은 것이 함몰된 양상으로 보아, 묘의 상부에 적석(積石)과 봉토가 덮혀있었을 가능성도 있다(윤호필 1999). 최근에 조사된 마산 진동유적에는 직경 20m 가량의 원형 봉토가 조성되어 있었다. 이 외에도 돌이나 흙이 개석의 상부를 덮으면서 지면보다 일정높이 이상 솟아 있는 경우는 봉토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봉토 또는 봉분(封墳)은 매장시설의 보호, 분묘의 표지(標識)로서의 역할, 묘역의 범위표시 등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봉분의 이러한 역할은 지석묘의 상석이 가지는 기능과 매우 유사하다(이상길 1996). 지석묘는 대부분 특히 주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므로 상석이 눈에 쉽게 띄이며, 하나의 상석 주위에 여러 기(基)의 매장시설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묘표(墓標)로서의 기능이 보다 큰 것으로 이해된다. 조사된 여러 사례로 보아 지석묘의 축조 단계에 봉토의 개념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석묘의 상석이 삼국시대 이후 분묘의 봉분과 비슷하게 묘표적인 기능을 가졌다고 한다면, 굳이 지상(地上)에 높게 솟아 있는 상석 아래에 다시 봉토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은 의문으로 남아 있다.

3) 묘역시설(墓域施設)과 구획묘(區劃墓)

매장시설의 외곽을 둘러싸 방형(方形) 또는 원형(圓形)으로 구획한 시설, 즉 묘역시설을 갖춘 지석묘의 조사 예가 늘어나고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은 묘역시설이 구분(區分) 또는 구획(區劃)의 의미가 강하다고 판단하여 '구획묘(區劃墓)'라고 불렀다(이상길 1996). 최근에 들어 특히 이러한 분묘의 조사예가 늘어나고 있어,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다. 묘역시설과 같은 구조가 최초로 확인된 예는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김해패총 D區이며, 현재는 영남은 물론 호남지역에까지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합천 저포리 E지구, 거창 산포, 사천 소곡리, 사천

이금동, 진주 대평리, 밀양 살내, 밀양 신안 등 여러 지석묘유적에서는 (장)방형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구획된 안쪽 전체에 돌이 깔려 있는 구조가 확인되었다. 이 중에는 지표면에 석축(石築)을 쌓으면서 내부에 매장시설을 축조한 경우(地上式)와, 매장시설이 지하에 있는 지하식(地下式)의 두 종류가 있다. 산포유적의 경우 구획은 되어 있으나 매장시설이 지상식인 소위 유사석곽형(類似石槨形)이 많고, 밀양 살내유적에서는 매장주체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살내유적은 지상식으로 축조되었는데, 구획도 매우 정연할 뿐 아니라 중앙부에 上石도 얹혀져 있는 상태여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것과는 달리 김해패총 D區와 창원 덕천리유적, 마산 진동리유적, 김해 율하리유적에서는 부석(敷石)이 깔려있지 않은 (장)방형의 묘역시설이 확인되었다. 이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이다. 내부에 立石이 서 있는 것으로 확인된 대구 상인동유적 역시 동일한 구조이다.

한편 사천 소곡리유적과 진주 대평리 옥방1지구, 마산 진동 등의 유적에서 조사된 묘역시설은 원형 또는 타원형의 구획석이 둘러져 있고 그 안쪽에 부석(敷石)이 깔려 있는 구조이다. 소곡리유적의 경우 부석이 개석 위를 덮고 있어 앞에서 설정한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옥방1지구 5호묘의 구획석 가까이에는 부석이 채워져 있고, 매장시설 상부는 적석(積石)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산 진동유적의 경우는 (타)원형으로만 구획되어 있고 그 안에 부석이 없는 구조이다. 옥방1지구 5호묘에서는 구획석의 한쪽에 방형의 突出部가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와 유사한 예는 용담댐 수몰지구의 진안 여의곡 A지구에서 확인된 적이 있는데, 이것을 제단(祭壇)으로 생각하고 있다(김승욱 1999).

한 유적에서 여러 기의 분묘가 조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모두 묘역시설로 구획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묘역시설이 하나의 분묘군 내에서 우열(優劣)을 나타내는 것인지, 혹은 구획

묘의 피장자(被葬者)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존재였는지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다(이상길 1996). 이러한 문제는 당시 사회에서 위계(位階)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동검(銅劍)이 부장된 묘에서도 마찬가지이다(윤호필 2002). 구획되어있지 않은 분묘에 비해 많은 노동력이 투여되었음이 분명한 구획묘의 매장주체부의 크기나 출토유물에서 전혀 차별성이 없다면, 여기에는 무언가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김해패총 D區나 창원 덕천리 1호의 경우와 같이 극대화(極大化)한 묘역은 다른 어떤 기준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돌출된 유력개인(有力個人)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유력집단(有力集團) 혹은 유력가족(有力家族)의 존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이상길 1996: 110~112).

4) 취락(聚落)과 분묘(墳墓)의 상호관련성

발굴조사의 규모가 커지고 조사 면적이 확대되면서, 유적의 전체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났다. 취락과 분묘와의 상관관계, 공간의 구획, 분묘의 배치 등 여러 면에서 당시 사회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였는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경남에서 지금까지 조사된 무문토기시대의 취락을 보면, 당시에 이미 생활공간(生活空間)과 분묘공간(墳墓空間)이 분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완전한 형태의 방어취락(防禦聚落)인 울산 검단리유적에서 지석묘는 지형상 환호를 포함한 주거군과 완전히 분리되어 일정거리 떨어져 있었다. 울산 무거동 옥현유적에서는 주거지가 있는 구릉 전면을 완전히 조사하였으나, 여기에는 60여기의 주거지만 있을 뿐 단 1기(基)의 분묘도 확인되지 않았다. 창원 남산유적의 경우도 환호 내부에 분묘는 없었다. 진주 상촌리유적에서는 주거지와 분묘가 구(溝)로써 구획되어, 각기 한쪽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분묘와 취락이 공간적으로 구분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사천 이금동유적은 동일한 지역 내에서 분묘와 주거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으며, 그 경계부분에서 대규모의 고상식 건물(高床式 建物)이 확인되었

다. 이 건물의 성격은 분명하지 않으나, 전체 규모나 기둥의 크기, 건물의 형태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창고시설(高床家屋)과는 분명히 다르다. 전체 길이 40m에 달하는 이 건물은 신전(神殿)이거나(이상길 2001) 분묘의 제사와 관련된 묘전(墓前) 건축물일 가능성이 높다.

지석묘에 대해서 지금까지 분포, 구조분석 및 유형 분류, 중국 동북지방과의 관계, 출토유물을 근거로 한 편년 등 많은 연구가 있었다. 무문토기시대 거의 전 기간에 걸쳐 조성된 이 분묘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경남지방의 지석묘는 영남 전체, 또는 호남지방을 비롯한 남부지방 전체와 비교할 때 공통되는 점이 매우 많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북에서 남으로 전해지는 선사문화의 전파 루트는, 경남지방에 이르러 거의 최성기(最盛期)를 맞이하고 있다. 거대한 묘역시설을 가진 구획묘(區劃墓)나, 세형동검이나 철기문화와 관련을 보이는 지석묘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남, 특히 남해안에 연한 여러 유적의 무문토기문화는 다른 지방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3. 식량 생산

'인간(人間)이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라는 화두(話頭)는 오래 전부터 고고학뿐만 아니라 인류사적으로도 커다란 관심 중의 하나였다. 한반도에 있어서 지금까지 농경(農耕)에 관한 접근은 농경과 직접 관련된 유구가 아닌, 주거지에서 출토된 곡물자료, 석도(石刀)와 같이 농경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구, 지석묘나 환호취락과 같이 농경사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이것을 기초로 하여 농경의 개시나 벼농사(稻作)의 전파경로, 재배곡물의 종류나 성격, 벼의 품종 등이 주로 거론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벼(농사)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농경유적의 뒷받침 없이 단지 곡물자료에만 의존한 농경연구는 여러가

지 점에서 한계를 안고 있었다.

1990年 이후 농경에 관한 특기(特記)할만한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다. 경남의 여러 유적에서 무문토기시대의 논과 밭 등의 경작유구가 확인되면서 농경에 관한 연구 역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밀양 금천리유적, 울산 무거동 옥현유적, 울산 아음동유적 등 여러 곳에서 무문토기시대의 논유적이 조사되었고, 진주 대평리와 평거동유적에서는 대규모의 밭이 확인되었다. 금천리유적의 논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의 것으로, 논둑과 수리시설을 갖춘 완전한 형태이다. 다만 논외의 규모가 지금보다는 훨씬 작은 소구획(小區劃)이어서, 단위면적이 5평(坪) 안팎의 크기이다. 그러나 논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요소들을 구비하였다는 점에서 당시의 농업기술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인류가 신석기시대부터 정착생활을 하면서 농경이 시작되었고, 청동기시대가 되면서 농업이 가장 중요한 식료획득수단의 하나가 된다. 한반도에서도 신석기시대 후기 혹은 무문토기 시작 단계부터 농경, 특히 밭작물의 재배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리라는 예상은 일찍부터 있었다. 진주 대평리유적에서는 이런 현상을 뒷받침하는 대규모 밭이 발굴되었다. 대평의 무문토기시대 밭은 강변 자연제방(自然堤防)의 뒷쪽 경사진 곳에 위치한다. 밭고랑은 강이 흐르는 방향과 직교되게 만들어져 있으며, 지금까지 조사된 밭을 모두 합하면 12,000평이 넘는 넓은 면적이다. 당시의 밭은 현재와 같이 구획이 되어 있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이것으로 보아 소유자 개개인별로 밭이 분할되지 않고 공동으로 경작, 수확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무문토기시대에 대평리에 살았던 사람들이 농사를 짓게 된 주된 요인은 환경·지형·토양 등 제반 여건이 함께 작용하였을 것이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당시의 대평리 역시 농사를 짓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이었으므로, 그들은 안정적으로 농경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밭고랑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밭에서는 여러 종류의 작물이 재배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대평리 무문토기시대 주거지에서 출토된 곡물자료는 쌀을 비롯하여 보리, 밀, 수수, 조, 콩, 들깨 등 현재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밭작물이 거의 망라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특히 조의 양이 가장 많은 점으로 볼 때, 당시에는 조가 가장 선호되는 작물이었던 것 같다.

대평에서 직접 땅을 일구고 작물을 가꾸는 데에는 석제의 괭이·호미·부리형석기 등이 사용되었고, 목기 제작용 도끼나 끌 등의 도구로 보아 목제 농기구도 사용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석도(石刀)와 낫으로 수확한 곡물은 일정한 기간 동안 저장되었고, 갈돌과 갈판으로 껍질을 벗기거나 갈아서 조리하였다. 무문토기시대 초기에는 집 안에 있는 화덕에서 조리를 하였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중기에는 야외에 마련된 화덕시설을 이용하였다. 대평리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는 당시의 식생활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는데, 곡물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흔적이 토기에 잘 남아있다. 조리용 토기는 중간정도 크기의 토기를 이용하였고, 발형(鉢形)이 많다. 저장용 고상(高床)의 창고나 지하 구덩이 시설, 그리고 대형 저장용 토기를 사용하였다. 접시나 보시기류의 작은 토기도 만들었는데, 식사용의 토기이다.

한편, 주거지나 노지(爐址)에서 탄화(炭化)된 쌀이 출토되었으며 밭에서는 벼과(科) 식물의 규산체(硅酸體)가 검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평리에서 조사된 밭유적에서 벼가 재배되었는지 혹은 다른 곳에 별도로 논이 있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대평 충적지 가장 안쪽의 습지(濕地) 주변에 논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정도일 뿐이다. 혹시 앞으로 이곳을 조사할 수 있다면, 남강유역의 농경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유적과 유물로 보아 대평리유적의 무문토기인들은 풍부한 농업생산물과 잉여생산물을 가질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대평의 무문토기 사회는 600년 이상 유지될 수 있었고,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가 분화되

어 더 큰 사회로 발전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되었다.

4. 남강 수계의 옥(玉) 생산과 교역

대평리를 비롯한 남강유역의 여러 유적이 옥 제작과 관련이 있음은 널리 알려진 주지의 사실이다. 공옥(*攻玉)에 관해서는 남강의 상류 경호강변에 위치하는 산청 묵곡리유적에서 이미 확인된 적이 있었다. 발굴 결과로 보면 경호강변의 묵곡리나 옥산리에서부터 대평을 지나 보다 하류의 귀곡동 대촌유적에 이르기까지 남강유역의 전 지역에서 옥 생산 관련 자료들이 출토되었다. 한반도의 무문토기시대 유적에서 벽옥제 관옥(碧玉製 管玉)의 제작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남강 수계(水系)에서는 천하석제(天河石製)의 곡옥(曲玉)이나 환옥(還玉)의 제작지만 확인되었다. 옥제작의 흔적은 주로 무문토기 중기의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는데, 玉 파편과 옥을 가는 슯돌(玉磨 砥石), 천공구(穿孔具), 연마제(研磨劑)라 생각되는 분말 등이 그 증거이다. 남강 수계의 어딘가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옥 원석(原石)의 산지(產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천하석은 별도의 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관입(貫入)해 들어가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암맥상이나 지질도로서는 쉽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산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공옥과 관련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옥으로 만든 장신구는 당시 사회에서 귀중한 재화(財貨)로 취급된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의 공옥은 당연히 교역(交易)과 부(富)를 연상시킨다. 아직 옥의 비파괴분석법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유물을 분석하여 산지를 추정하거나 교역 또는 교환망(交換網)을 추적하는 작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육안으로의 관찰에 의해 경남 서부지역과 전남 동부지역의 천하석제 옥제품 간에 유사성이 있으며, 그 생산지가 남강유역일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에 그

치고 있다.

남강유역에서 생산된 수공업 산물은 각종의 토기, 석기, 장신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담록청색의 옥으로 만든 각종 장신구이다. 옥은 산청군 둔철산, 차황면의 호염봉 일대가 기원지로 추정되는 퍼사이트(perthite)라는 광물로, 대평을 비롯한 남강유역의 여러 유적에서 제작, 생산, 유통되었다. 특히 방형주거지 내부에서는 옥을 가공했던 흔적이 발굴되었다. 중앙에 옥을 연마하기 위한 작업공(作業孔)이 마련되어 있고, 그 주위에서 여러 줄의 홈이 있는 슯돌(砥石)과 파손된 많은 옥 부스러기들이 출토되었다. 일반적인 석기에 비해 옥을 제작하는 데에는 더욱 정교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산된 옥은 대평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의 넓은 지역으로 공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대평유적에서 생산된 옥제품이 주변의 여러 지역에 공급되었다면, 그 반대로 대평의 사람들이 무엇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진 바가 없다. 피상적인 관찰이기는 하지만, 대평에서 외래품으로 판단되는 출토품은 꼬막밖에 없는데, 그것도 양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옥을 주고 과연 무엇을 교환하였는지를 상상해 보면, 등가(等價)의 가치를 가질 만한 것으로는 청동기(靑銅器)와 소금(鹽)밖에 없다. 그러나 대평을 비롯한 남강유역에서 청동기가 출토된 적은 없으며, 소금은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이다. 다만 꼬막은 분명히 해산품(海産品)이므로 해안지역과 일정한 교역 혹은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정도이다.

남해안인 사천만과는 직선거리 20~30km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대평리 사람들은 꼭 필요한 소금과 각종 해산물을 이곳에서 가져왔을 것이다. 대평의 몇몇 주거지 내부에는 꼬막의 껍질을 모아 놓은 저장소가 있었다. 또 해안에서 들여온 꼬막의 껍질로 장신구를 만들었는데, 집터에서는 제작 도중인 조각들이 많이 출토되었다. 한편, 산간지역으로부터는 목재나

* 攻玉이란 옥을 깎는다는 뜻임

짐승가죽 등도 대평으로 들여왔을 것이다. 대평은 이러한 교역의 중심에 있었으며, 남강이 주요한 교통로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옥의 제작이나 가공은 고난도(高難度)의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자연히 전문적인 제작집단 혹은 기술자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다. 공옥의 흔적이 있는 주거지는 그 규모나 출토 유물에 있어 다른 주거지와 거의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공옥 기술자는 제품 생산의 결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없었다는 말이 된다. 결국 생산체제는 특정인이 장악하고 있으며 옥 생산과 교역의 결과 획득된 부는 대규모의 지식묘에 묻힐 수 있을 정도의 특정인이 가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IV. 경남지역 무문토기 문화의 특징

이상으로 경남지역 무문토기시대 사회와 문화의 특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한반도 대부분의 지역이 그러하듯이, 경남지역의 무문토기시대는 환호취락을 비롯한 대규모 취락의 등장과 확산, 농경을 통한 식료생산, 지식묘와 같은 대규모 분묘의 조성, 청동기나 옥과 같은 위신재(威信財)를 소유한 지배계층의 출현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한반도 남부에서 가장 규모가 큰 남강유역의 여러 유적에서 수십 기의 분묘가 조사되었지만 청동기(靑銅器)는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았다. 청동기, 특히 동검(銅劍)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나 위치를 감안한다면, 대평에서 청동기가 출토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일견(一見) 심각한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다. 수장권(首長權)을 상징하는 청동기의 부재(不在)로 인해 '남강유역의 무문토기 취락이 불평등의 초기적인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수장권 혹은 지도계층의 세력이 아직 '미약한 집단 위주의 사회(corporate or group-based society)'를 반영하는 것(Martin T. Bale, 1999)처럼 보일 우려가 바로 그것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무문토기 중기인 송국리문화 단계에 대평리유적에서만 적어도 300동 이상의 주거지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동시기의 환호와 농경지도 넓게 자리잡고 있었다. 한 자루의 동검이 몇 동의 주거지 혹은 몇 명의 사람과 맞먹을 수 있을지는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취락이 '미약한 집단 위주의 사회'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청동기와 같은 위신재(威信財)가 있다는 것 자체에는 그만한 의미가 있겠지만, 출토되지 않았다는 것이 곧 그 사회에서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자료로 볼 때 경남지역의 무문토기시대는 매우 역동적이고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는 시기였다. 신석기시대 이래로 모든 문화의 흐름이 '북→남'인 점을 고려할 때, 경남지역은 모든 문화의 종착지인 동시에 그 문화가 가장 꽃피는 지역이다. 계층화된 사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고고학 자료는 분묘이다. 지금까지 한반도 전 지역에서 발견된 지식묘 중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큰 것들은 대부분 경남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창원 덕천리유적, 마산 진동유적, 김해 율하리유적 등에서 발견된 지식묘는 지금까지 상상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 준다. 남강유역에서의 옥 생산, 울산 검단리 유적이나 창원 남산유적의 환호 역시 무문토기사회 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료이다. 또한 이러한 경남의 유적들은 바다를 건너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일본 야요이시대(彌生時代) 문화의 원류(原流)를 경남지역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도 커다란 특징이라고 여겨진다.

(참고문헌)-발굴보고서는 제외함.

- 뿌리깊은 나무, 1983, 『한국의 발견-경상남도』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1988, 『慶尙南道史(上卷)』
김승옥, 1999, 「진안 용담댐 지석묘 발굴조사」『20세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제42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
김원룡, 1986, 『韓國考古學概說』(제3판, 일지사)
김정학, 1983, 「金海 內洞支石墓 調査概報」『釜山 堂甘洞古墳群』, 부산대학교박물관
안재호, 1994, 「三韓時代 後期瓦質土器의 編年」『嶺南考古學』14, 영남고고학회
윤호필, 1999, 「사천 이금동유적 발굴조사 개요」『20세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제42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
윤호필, 2002, 「銅劍墓와 그 被葬者의 性格에 關한 研究」『慶大史論』제12·13합집, 경남대학교사학회
이상길, 1993, 「昌原 德川里遺蹟 發掘調査 報告」『三韓社會와 考古學』(제1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이상길, 1996, 「청동기시대 무덤에 대한 일사각」『碩晤尹容鎮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이상길, 2001, 「埋葬과 儀禮에 關한 새로운 試圖」『한국 청동기시대 연구의 새로운 성과와 과제』(충남대학교박물관 학술회의 발표요지)
이상길, 2002, 「南部地方 初期農耕의 現段階」『한일 초기농경 비교연구』, 大阪市學藝研究員等共同研究 韓半島綜合學術調査團
이상길, 2006, 「區劃墓와 그 社會」『금강-송국리형 문화의 형성과 발전』(호남·호서 고고학회 합동학술대회 발표요지)
이상길·김미영, 2003, 「密陽 琴川里遺蹟」『고구려고고학의 제문제』(제27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발표요지)
이성주, 1999, 「라. 경상남도」『한국 지석묘(고인돌)유적 종합조사·연구(II)』, 문화재청·서울대학교박물관
이창규, 1988, 「南韓地方 無文土器文化의 展開와 孔列土器文化의 位置」『한국상고사학보』제1호, 한국상고사학회
지건길, 1990, 「湖南地方 고인돌의 型式과 構造」『韓國 支石墓의 諸問題』(제14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小泉顯夫, 1986, 『朝鮮古代遺跡の 遍歴』-發掘調査三十年の回想, 六興出版
榎本龜次郎, 1935, 「金海貝塚-その新發見」『考古學』제6권 제2호, 동경고고학회
榎本社人, 1957, 「金海貝塚の 甕棺と箱式石棺-金海貝塚の再檢討」『考古學雜誌』제43권 1호, 일본고고학회

학술조사보고 제35집

경남의 선사문화

발행일 _ 2006년 12월

발행·편집 _ **國立慶尙南道文化財硏究所**

제작 _ 아이웍스디자인

T.055·262·2116 F.262·2117

國立慶尙南道文化財硏究所

641-729, 慶尙南道 昌原市 龍湖洞 8-4

Tel. 055)285-1314~5 Fax. 055)285-1305

<http://www.cch.go.kr>

미션 _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로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비전 _ 문화유산으로 국민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주는 문화재청.